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23-2027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연구기관 : (사)문화다움

책 임 연 구 원	조아영	(사)문화다움 기획연구실장
선 임 연 구 원	양채윤	(사)문화다움 기획연구팀장
연 구 원	박지연	(사)문화다움 위촉연구원
	박민하	(사)문화다움 위촉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김수민	(사)문화다움 연구원

I 서 장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1. 연구 배경	3
1.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4
2.1. 연구 범위	4
2.2. 연구 주요내용	4
제2절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	5
1.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5
1.1. 연구 방법	5
1.2. 연구 분석 틀	5
2. 연구 추진프로세스	6

II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둘러싼 환경분석

제1절 외부환경 분석	9
1. 거시환경 분석	9
1.1. 정책환경	9
1.2. 경제환경	11
1.3. 사회문화환경	12
1.4. 기술환경	17
2. 태권도 정책 및 유관기관 검토	19
2.1. 태권도 정책 검토	19
2.2. 태권도 유관기관 현황 검토	21
3. 전북 및 무주군 환경 검토	23
3.1. 전북 정책 검토	23
3.2. 무주군 환경 검토	25
제2절 박물관 환경변화 및 현황 검토	32
1. 박물관 정책 및 동향 검토	32
1.1. 박물관 법·제도 및 정책 검토	32

1.2. 박물관 패러다임 변화	37
1.3. 박물관 사회적 역할 변화	38
2. 국공립박물관 및 체육 관련 박물관 현황 검토	41
2.1. 국공립박물관 현황 검토	41
2.2. 체육 관련 박물관 현황 검토	42
제3절 환경분석 시사점	44

III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현황 분석

제1절 국립태권도박물관 내부현황 분석	47
1. 국립태권도박물관 비전영역 분석	47
1.1. 박물관 연혁 및 전개과정 이슈	47
1.2. 비전 및 추진방향 검토	51
1.3. 대외협력 및 교류	53
1.4. 박물관 이용객 관리	54
1.5. 홍보·마케팅	55
2.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영역 분석	56
2.1. 소장품 관리	56
2.2. 조사·연구	58
2.3. 전시	59
2.4. 교육·체험 및 문화행사	61
2.5. 공간 및 시설	66
3. 국립태권도박물관 조직영역 분석	71
3.1. 조직 및 업무체계	71
3.2. 인력운영 및 업무분장	72
3.3. 예산	73
제2절 국립태권도박물관과 국공립박물관 현황 비교분석	75
1. 비교분석 개요	75
2. 비교분석 결과	75
제3절 박물관 주요관계자 의견수렴	82
1. 의견수렴 개요	82
2. 박물관 임직원 의견수렴	83
2.1. 관장 심층인터뷰	83
2.2. 박물관 직원 FGI	88
2.3. 박물관 임직원 서면의견	91
3.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 의견수렴	95

제4절 현황 분석 시사점	96
---------------------	----

IV 벤치마킹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1절 벤치마킹 사례조사	101
1. 사례조사 개요	101
2. 국내 체육 관련 및 전문테마 박물관	102
2.1. 국내 체육 관련 박물관	102
2.2. 전문테마박물관	106
3. 해외 국기 관련 및 참고 사례조사	111
4. 사례조사 시사점	119
제2절 전문가 의견수렴	120
1. 의견수렴 개요	120
2. 태권도 전문가 의견수렴	121
3. 박물관 전문가 의견수렴	126
4. 의견수렴 시사점	132

V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전략과제

제1절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방향 및 비전 도출	135
1.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방향 도출을 위한 진단	135
1.1. 국립태권도박물관 현 단계 진단	135
1.2. SWOT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도출	135
2.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방향 및 비전 설정	137
2.1.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방향	137
2.2.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전략	139
제2절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전략과제	140
1. [전략목표 1]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	142
1-1. 박물관 방향 수립 및 관리	143
1-2.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145
1-3. 관람객 관리 및 소통 체계화	148
2. [전략목표 2] 태권도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활동 고도화	152

2-1.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154
2-2.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 강화	159
2-3.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2
2-4. 전시 콘텐츠 전문화 및 다각화	165
2-5.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169
2-6. 매력적인 공간 조성	175
3. [전략목표 3] 지속가능한 박물관 기반 확보	179
3-1. 박물관 조직역량 강화	180
3-2. 박물관 자원 확보방안 다각화	184

VI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제언

제1절 중장기 추진 로드맵	189
1. 중장기 추진단계 설정 및 단계별 추진의 주안점	189
1.1.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단계 설정	189
1.2.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주안점	190
1.3. 단계별 전략과제 추진 로드맵	191
2. 예산 운영계획(안) 수립	195
제2절 연구 결과의 활용 및 제언	197
1. 연구 결과의 활용	197
1.1. 연구 추진의 의미 및 계획의 성격	197
1.2. 연구 결과의 활용	197
2. 국립태권도박물관 발전을 위한 제언	198
2.1. 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언	198
2.2. 정책 제언	198

참고문헌

참고문헌	203
------------	-----

표목차

<표 1> 우리 사회 문화정책의 전개과정	9
<표 2> 상위법령 주요 내용 및 방향성	10
<표 3> 정부 정책 동향 검토	10
<표 4> 회복탄력성의 3가지 측면	15
<표 5>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16
<표 6> 연령대별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 특징	17
<표 7>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10대 문화콘텐츠)	19
<표 8>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19-2023)	20
<표 9> <110대 국정과제> 태권도 관련 계획	21
<표 10> 태권도 4대 조직의 기능 분석	21
<표 11>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23
<표 12> 전라북도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	24
<표 13>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24
<표 14>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명당 평균 문화관련 예산액 순위(상위 10개)	26
<표 15> 무주군 <7대 핵심 비전>	26
<표 16> 무주군 <2022 주요업무계획> 문화관련 계획	27
<표 17> 문화예술 관람 경험 횟수	29
<표 18> 주말/휴일 여가활동	30
<표 19> 특성별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경험	30
<표 20> 문화예술행사 불만족 요인	31
<표 21> 무주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31
<표 22> 여가시설 만족도	31
<표 23> 국립박물관 평가지표 체계	34
<표 24> ICOM 박물관 윤리강령에서 채택된 국제법령	35
<표 25> 박물관 정의	39
<표 26> 국공립 박물관 분포현황	41
<표 27> 전문테마 중심의 국립박물관 현황	41
<표 28> 국내 스포츠 관련 박물관 현황	43
<표 29>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둘러싼 환경분석 시사점	44
<표 30>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50
<표 31>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영전략체계도	52
<표 32> 박물관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54
<표 33> 태권도원 내외국인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54
<표 34> 박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54

<표 35> 박물관 사업영역별 진행상황	56
<표 36> 박물관 유물현황	57
<표 37> 박물관 등록자료 유형	57
<표 38> 박물관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개최 세부내용	60
<표 39>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용	62
<표 40> 태권도원 관람·체험 프로그램 세부내용	64
<표 41> 태권도원 수련·체험 프로그램 세부내용	64
<표 42> 태권도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세부내용	64
<표 43> 태권도원 청소년 인성캠프 세부내용	65
<표 44> 박물관 공간 구성 및 면적 현황	67
<표 45> 박물관 정원 및 현원	72
<표 46> 박물관 조직 및 업무 현황	72
<표 47> 박물관 예산 현황	74
<표 48> 국립립박물관 비교 분석 1. 공간 및 관람객 현황	78
<표 49> 국립립박물관 비교 분석 2. 소장품 및 활동 현황	79
<표 50> 국립립박물관 비교 분석 3. 인력 현황	80
<표 51> 2021년 국립지방박물관 예산세출 비교 - 박물관 활동 중심	81
<표 52> 관계자 의견수렴 개요	82
<표 53>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현황 분석 시사점	96
<표 54> 국내·외 사례조사 개요	101
<표 55> 국립체육박물관의 기증 관련 주요 내용	105
<표 56> 국립한글박물관 체계도	106
<표 57> 국립한글박물관 2020년 결산개요 및 사업성과	108
<표 58> 국립국악원 비전	109
<표 59> 어린이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세부내용	118
<표 60> 박물관 사례조사 시사점 및 벤치마킹 포인트	119
<표 61>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120
<표 62> 전문가 의견수렴 시사점	132
<표 63>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141
<표 64>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	142
<표 65> 박물관 활동 고도화를 위한 과제	152
<표 66> 소장품 수집, 분류 및 관리체계 추진 계획(안)	155
<표 67> 지속가능한 박물관 기반 확보를 위한 과제	179
<표 68> 국립태권도박물관 단계별 추진 로드맵	191
<표 69> 박물관 예산 운영계획(안)	196

그림목차

[그림 1] 시스템 이론의 틀	6
[그림 2] 연구 추진프로세스	6
[그림 3] 우리 사회 경제성장률 추이	12
[그림 4] 여가시간 추이	13
[그림 5] 영역별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	13
[그림 6] 무주군 위치	25
[그림 7] '태권도의 도시'를 위한 무주군의 정책적 활동	29
[그림 8]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비전 체계도	33
[그림 9] 국립태권도박물관 추진 흐름	47
[그림 10] 2022년도 박물관 경영전략체계도	51
[그림 11]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사업영역	53
[그림 12] 태권도박물관 및 태권도원 온라인 홍보 관리현황	55
[그림 13] 기증받은 메달	57
[그림 14] 국립태권도박물관 1~3전시실 내부 현황	59
[그림 15] 박물관 내 사진전시 공간	61
[그림 16] 태권도원 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	63
[그림 17] 태권도원 진로체험 및 청소년 인성캠프	65
[그림 18] 태권도원 내 박물관 위치	66
[그림 19] 태권도원 야외 안내 및 차량 진입 출입구 매표소	66
[그림 20] 국립태권도박물관 도면 - 면적 산출근거(2013년 6월)	67
[그림 21] 국립태권도박물관 도면 - 공간 활용 현황(2022년 6월)	68
[그림 22] 전시실 구성 및 연결 구조	68
[그림 23] 학습실 공간	69
[그림 24] 박물관 내 미활용 공간	69
[그림 25] 전시실 내 터치식 영상장비	70
[그림 26] 2021년 AI 로봇 이용서비스 통계	70
[그림 27] 태권도진흥재단 조직	71
[그림 28] 2022년도 박물관 사업별 예산 비율	74
[그림 29] 조직체계 관련 제안 내용	94
[그림 30] 국립산악박물관의 체험 프로그램	103
[그림 31] 국립산악박물관의 조직도	104
[그림 32] 국립체육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104
[그림 33] 국립한글박물관 조직도	107
[그림 34] 국립한글박물관 상설 전시 환경	107

[그림 35] 국립국악원 조직도	109
[그림 36] 국악박물관 상설 전시	110
[그림 37] 국립야구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 전시	111
[그림 38] 아카이브를 위한 기부 프로그램	112
[그림 39] 국립야구박물관 제공 활동지	112
[그림 40] 연구센터 활동	113
[그림 41] 뮤지엄샵 홈페이지	113
[그림 42] 소장품 아카이브	114
[그림 43] 미취학 및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커리큘럼	115
[그림 44] 박물관 자체 디자인 기념품	115
[그림 45] 뮤지엄샵 트로피 모형 기념품	115
[그림 46] FIFA 세계축구박물관 상설전시실 및 체험공간	117
[그림 47] FIFA 세계축구박물관 특별전시 및 웨비나 행사	117
[그림 48] 스포츠바 1904	118
[그림 49] 국립태권도박물관 SWOT 분석	135
[그림 50]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139
[그림 51]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전략 구조도	140
[그림 52] 전략목표 1.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	142
[그림 53] 전략목표 2. 태권도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활동 고도화	152
[그림 54] 전시공간 구축 주요 트렌드와 관련 기술	167
[그림 55] 전략목표 3. 지속가능한 박물관 기반 확보	179
[그림 56] 박물관 조직체계 및 내부 인력 배치(안)	183
[그림 57]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단계	189

I

서 장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체육(태권도) 전문박물관으로의 위상 확립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개관 8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태권도)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확립 필요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인증기관으로 미선정)에 따른 박물관 조직 운영, 사업 구조 등 박물관 운영 전반의 검토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필요성의 대두

- 태권도공원(현 태권도원) ‘전시·비지터센터’에서 ‘박물관’으로 전환, 운영을 지속하는 과정 속에서 파악된 성과와 과제를 기반으로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마련 필요
- 소장품 관리, 전시, 교육·체험, 조사·연구, 공간 운영·활용, 지역사회 연계 등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기대하는 주요 활동을 고려,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필요

1.2. 연구 목적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타의 체육 관련 박물관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전문박물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추진 전략 수립
-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둘러싼 내외부 현황분석, 의견수렴 등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과제 도출 및 향후 태권도계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위상 제시
-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통한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관리의 당위성 확보 및 예산 산출 근거 마련

2. 연구 범위 및 내용

2.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2023년~2027년 5개년 계획
- 공간적 범위: 국립태권도박물관 공간 및 주변 일대
- 내용적 범위:
 - 국립태권도박물관 현황 및 환경 분석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비전 수립
 - 국립태권도박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방안 도출
 - 국립태권도박물관 시설 개선 및 확충 가능 방안 도출
 - 국립태권도박물관 연차별 추진과제 및 사업비 산출

2.2. 연구 주요내용

■ 국립태권도박물관 현황 및 환경 분석

- 박물관 운영·소장품 프로그램 현황 및 조직 현황 분석
- 국립태권도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
- SWOT 분석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비전 수립

- 박물관 비전 및 핵심가치
- 중장기 목표 및 전략과제, 추진체계(조직) 검토
- 콘텐츠 특성화 방안 및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 국립태권도박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방안 도출

- 국내 체육 관련 박물관 및 연구자 연계 방안
- 지자체 연계 전략

■ 국립태권도박물관 시설 개선 및 확충 가능 방안 도출

- 시설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 태권도 라키비움 공간 활용 방안

■ 국립태권도박물관 연차별 추진과제 및 사업비 산출

-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관리계획 수립
- 연차별 추진 로드맵

제2절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

1.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1.1. 연구 방법

■ 환경분석/문헌분석

- 거시환경 분석 및 전북/무주군 환경 검토
- 박물관 정책 및 동향, 국공립박물관 현황 검토
- 국립태권도박물관 내부현황 분석(시스템 분석)

■ 현장조사

- 박물관 입지 조건 및 내외부 시설현황 검토
-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환경, 관람객 서비스 현황 검토

■ 벤치마킹 사례조사

- 국내외 체육 관련 박물관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전문테마 박물관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의견수렴

- 박물관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¹⁾
- 박물관 주요관계자(임직원,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 1차 의견수렴
- 박물관 우선순위 과제 도출을 위한 박물관 관계자 2차 의견수렴
- 태권도 전문가, 박물관 전문가 자문

1.2. 연구 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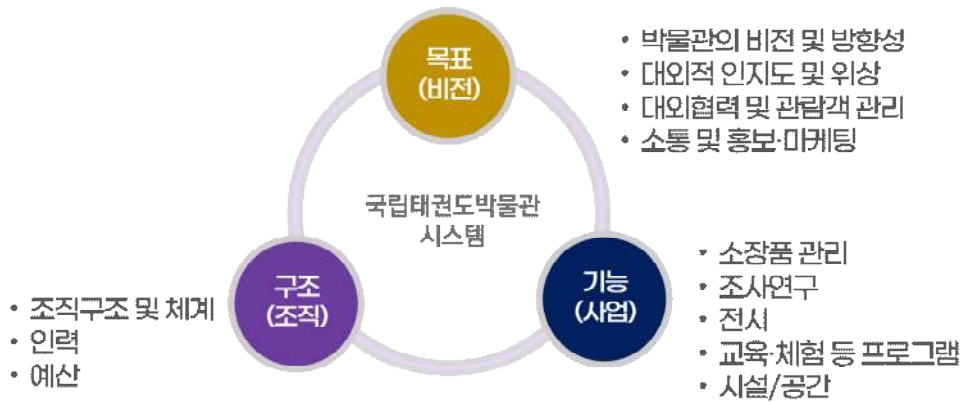
■ 시스템 이론(General System Theory)적용 분석

- 시스템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기능하는 공동체로 목표, 구조, 기능 요소로 구성되며 시스템 이론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을 이해하는 이론으로, 조직을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고, 각 요소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전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활용함.
- 시스템 관점에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목표와 구조, 기능의 적합성과 일치성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 중장기 비전과 추진 전략에서 보다 정합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함.
 - 목표: 시스템 유지와 발전의 방향성 제시/ 비전과 연계
 - 구조: 시스템의 정태적·안정적 측면 표현/ 조직과 연계

1) 박물관 이용 실태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이용객 설문조사를 온·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4주간(2022.6.15.~7.10.) 진행하였으나 총 24명 응답으로 표본 수가 적어 조사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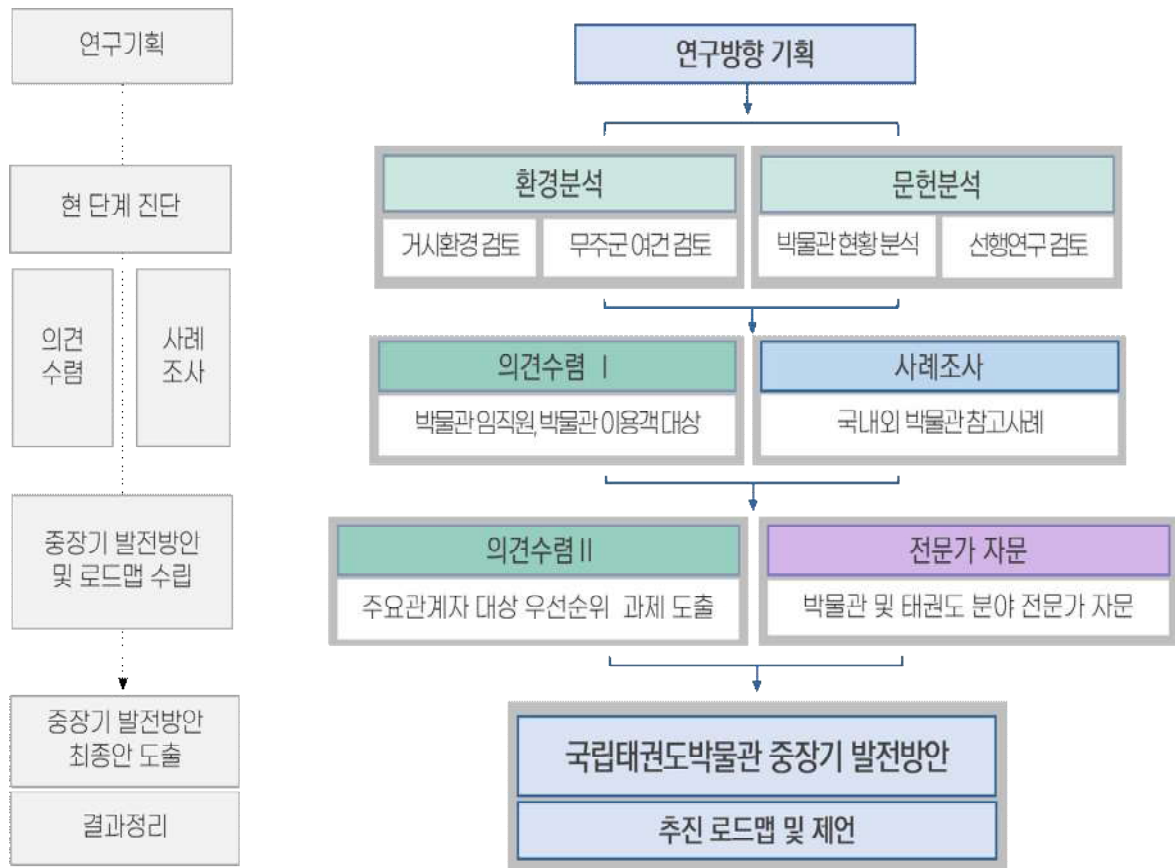
- 기능: 시스템의 동태적·과정적 측면 구현/ 사업과 연계

[그림 1] 시스템 이론의 틀



2. 연구 추진프로세스

[그림 2] 연구 추진프로세스



II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둘러싼 환경 분석

제1절 외부환경 분석

제2절 박물관 환경변화 및 현황 검토

제3절 환경분석 시사점

1. 거시환경 분석

1.1. 정책환경

■ 국가주의에서 문화국가로 발전해 온 문화정책

- 문화정책은 국가 행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특히 문화적 변화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전개됨. 협의의 문화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문화행정을 의미하며, 특히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경우 오랫동안 정부 주도 문화행정이 곧 문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 2018).
- 문화예술 관련 최상위 국가 비전인 <문화비전2030>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정책이 국가주의적 문화정책에서 문화국가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였음. <문화비전2030>은 우리 사회 문화정책의 흐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재의 문화비전을 설정하였음(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 2018).
- 1945년부터 1959년까지는 공보정책의 일환으로 영화, 방송, 출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공보 수단으로서 문화행정이 나타남. 1960년부터 1989년은 국가 중심의 문화 진흥과 육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였음.
- 1990년부터 2017년까지는 문화정책이 안정화되며, 문화 향유권 증진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등 문화 발전을 추구하며 문화국가를 향한 도전과 함께 한계가 나타남(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 2018).

〈표 1〉 우리 사회 문화정책의 전개과정

시기	특징	주요 내용
1945~1959년	공보수단으로서 문화행정	공보정책의 하나로 문화를 통제하거나 동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던 시기
1960~1989년	국가 중심의 문화진흥과 육성	국가 주도의 진흥전력과 육성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던 시기
1990~2017년	문화국가를 향한 도전과 한계	문화 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오히려 예술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강화나 블랙리스트의 작동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

출처: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2030

■ 문화권·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강조하는 상위법령

- 문화 관련 대표적 상위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음. 해당 법령들은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명시하고 있음. 세 가지 상위법령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차별 없는 문화복지 ▲지역문화와 공동체 강조 ▲생활문화 여건 조성 ▲문화교육 기회의 확대 등이 있음.

〈표 2〉 상위법령 주요 내용 및 방향성

구분	내용	주요 가치와 방향
문화예술진흥법 (1972)	- 전통문화예술 계승과 민족문화 창달 목적 - 문화예술공간 설치 - 문화예술복지 증진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법 명시	문화예술복지 문화예술공간
문화기본법 (2014)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법적 천명	문화권
지역문화진흥법 (2014)	-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발전 강조 - 생활문화진흥을 문화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규정	지역문화, 생활문화 전문인력, 문화도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공공의 가치 확보와 다원화를 요구하는 정부 정책

-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령에 의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으로는 <문화비전 2030>, <새 예술정책>,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대표적임. 이들 정부 정책들은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최근 정책 동향은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음.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으면서 ▲문화를 통한 사회 갈등 치유 ▲예술 창작활동 지원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함.

〈표 3〉 정부 정책 동향 검토

구분	내용	주요 가치와 방향
문화비전 2030 (2018)	- 문화가 사회의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의 개념 확장 - 문화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하고 개인(자율성) → 공동체(다양성) → 사회(창의성) 단계의 방향과 9대 정책의제 설정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새 예술정책 (2020)	- 예술행정의 혁신과 예술인의 권리 강화 요구에 의해 수립 - 지역예술기관 확대 네트워크 구축, 예술인 복지정책의 지	자율과 독립, 예술가치 존중,

구분	내용	주요 가치와 방향
	역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공간 다각화 등의 내용 포함 - 사람과 삶 중심으로 예술정책 재정립	분권과 협치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 분권과 자치의 원리로 지역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 구축 목표 - 지역을 근간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자치, 포용, 혁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1.2. 경제환경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 산업과 문화의 역할 강조

- 저성장의 고착화로 성장동력이 약화하였고, 실업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의 발굴과 적극적인 스타트업(start-up, 새 싹기업)의 지원, 대안경제로서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예술 분야도 타 산업과의 혁신적 융복합,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및 공유가치에 기반한 사업모델 창출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 주요 연구 및 통계자료〉

- ① 미국(2017 NEA(국립예술진흥기금)·AFTA(전미예술연합회) 보고서)
 - (영리+비영리) 경제에 7,296억 달러(약 786조 원) 규모 기여, GDP의 4.2%(교통·관광보다 큼)
 - (비영리) 2015년 기준 총 1,663억 달러의 경제활동, 46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및 주·지방·연방 정부 문화예술 예산 배정액의 5.5배 정부수익 창출(총 275억 달러)
- ② 영국(2015, 2016 DCMS(문화스포츠미디어부) 통계)
 - (일자리) 2011~2015년 창조산업 일자리 19.5% 증가, 그 중 음악·공연·시각예술은 34.7% 증가
 - (부가가치) 2008~2014년 총 경제 2.8% 증가, 창조산업 5.4%, 그 중 음악·공연·시각예술은 6.5% 증가

■ 팬데믹과 뉴노멀 시대, 경제체계 변화의 시작, 저성장 사회의 고착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되고 있음. IMF는 2015~2020년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1.6%로,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5.2%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역시 2020년까지 500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 등(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등, 2016),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사회가 고착화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7%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약 3.6%로 감소하였음. 특히 2019년 경제성장

률 2.2%, 2020년 경제성장률 -0.9%로 코로나19 여파가 여실히 드러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1~2022년 잠재성장률 역시 2%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함(한국은행, 2021). 현재 우리 사회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음.

[그림 3] 우리 사회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 국가지표체계, 경제성장률(2021년 10월 1일 검색 결과 기준)

1.3. 사회문화환경

■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변화

- 과거의 사회가 양적 성장과 빠른 속도가 중시되는 패러다임이었다면, 현대사회는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균형이 중심이 되는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음. 실제 근로자의 인식 또한 ‘초과근무를 해서 임금을 더 받기’(23.5%)보다는 ‘정시퇴근을 통해 여가를 즐기겠다’(76.1%)는 응답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됨(고용노동부, 2021).
- 조직과 집단이 우선시되기보다 개인의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이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게 되면서 다양한 측면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킴.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나홀로 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 관심사와 취미 기반의 소모임, 의미 있는 노후 생활 등의 양상이 사회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됨.

■ 여가 활동의 시간 증대와 다양화

-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의 증가는 시간의 증대로 이어짐. 2021 국민여가 활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8시간, 휴일 5.8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시간, 0.2시간씩 증가함.

[그림 4] 여가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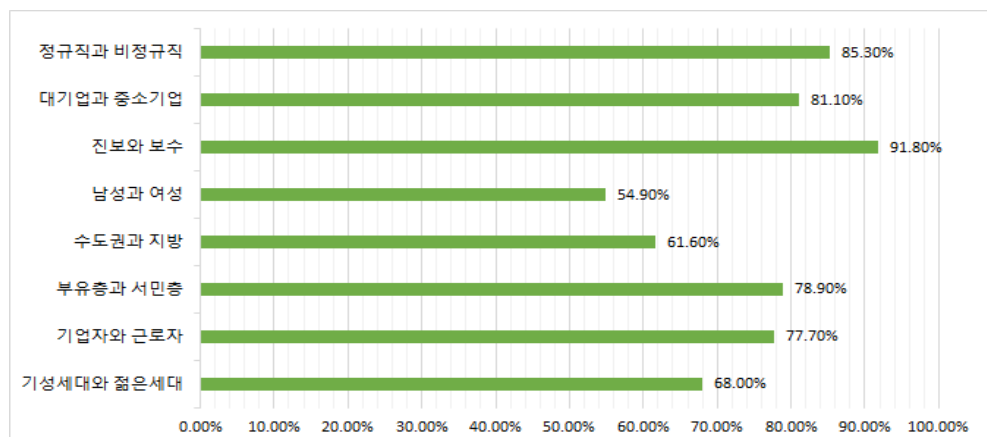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국민여가 활동조사

-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으로는 휴식활동(61.5%), 취미오락활동(21.4%), 스포츠 참여활동(6.5%), 사회 및 기타활동(5.2%), 스포츠관람활동(1.7%), 문화예술관람활동(1.7%), 관광활동(1.3%), 문화예술참여활동(0.6%)의 순서임. 휴식 및 취미오락을 제외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스포츠 참여활동임을 알 수 있으며, 위드 코로나 이후 실내 여가 활동에서 실외 스포츠 활동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및 갈등 쟁점화

-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며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지역, 집단, 세대, 젠더, 인종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및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 처해있음. 또한 외로움과 소외, 혐오와 고립감과 같은 병리적 현상이 심화되기도 함.

[그림 5] 영역별 갈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은 사회적 관계망 자체가 부족한 객관적인 고립 상태뿐 아니라 주관적 경험과 지각상태에 의해 발생하고, 삶의 과정에서 복합적인 현상으로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병리학적 측면의 치료보다는 생애주기별 특징, 예방과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정보람·윤소영·이성우, 2022).
-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감수성과 다양성 교육과 경험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시민성과 공동체 의식, 평등,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체험이 강조될 것이며, 공감과 치유에 기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시민 참여의 시대 본격화

- 종래의 사회발전을 이끄는 동인들이 변화하면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사람 중심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에 따라 현재 삶에 의미를 두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참여는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가 됨.
- 다양한 영역(정치 사회, 문화)에서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음. 특히, 문화정책의 경우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 민주주의’로 선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에게 문화예술의 접근 기회를 향상시키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를 지향한다면 문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로서 시민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에 해당함. 문화예술은 순수예술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임(서순복, 2007).
- 시민의식의 고양은 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욕구로 이어지며 거버넌스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음. 문화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민관협치 구조 내 역할 분담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체 간의 파트너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 강조

-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확산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음.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 등은 일상을 뿌리째 흔들었는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 사회적인 대면 활동을 막는 동시에 새로운 삶의 진입을 급속도로 가속화하고 있음.
- 무엇보다 대면 방식의 예술 활동은 대부분 취소되거나 소수 인원만으로 전환되었음.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은 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함.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집 안에서 영화, 게임, 음악(콘서트, 클래식 등), 드라마, 콘서트, 책, 웹툰 등을 보기 시작하며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를 만들어 냄. 다시보기와 몰아보기 등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OTT(Over The Top Service) 서비스의 비약적인 성장을 불러옴.

-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전환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불안’ 점차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 데 대한 ‘우울’과 ‘스트레스’ 언급량을 증가시킴(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함. 코로나로 인한 불안·스트레스·무기력·좌절·고립감 및 심리적·정서적 감정 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임.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생태학, 심리학, 사회학, 지리학, 교육학, 그리고 공공보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었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개념으로 재해·재난 위험에 대응하는 사람, 그룹, 커뮤니티의 ‘Capacity’ 또는 ‘Ability’로 기술하고 있음(하정우·김창수, 2020).

〈표 4〉 회복탄력성의 3가지 측면

회복탄력성 개념	특성	초점	맥락
공학적 회복탄력성 (Engineering resilience)	복구 기간 효율성	복구 불변	안정적 균형
생태적 회복탄력성 (Ecological resilience)	완충 능력 충격 완화	지속성 안정성	복수 평형 안정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 (Social-ecological resilience)	상호작용 재조직 유지 및 발전	적응능력 다변성 학습, 혁신	통합시스템 피드백 상호작용

출처: Folke, C.(2006), 하정우·김창수(2020) 재인용

- 최근 개인적 측면의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나’ 자신의 회복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명상과 정신 수련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는 비단 특정 세대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여러 세대로 확장하는 추세로 해석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문화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실업,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며,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창작-소비-유통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세대 간 갈등과 소통, 지역 쇠퇴와 재생, 다양한 갈등 치유와 회복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공공의 가치를 확장해가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따라서 정책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람' 중심의 정책 지향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팬데믹 시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강조

-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 시대의 도래는 문화예술분야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옴. 문화예술분야를 지탱하고 있는 대면접촉이 불가해지면서 문화시설의 휴관 및 폐관이 가속화되었고, 공연·전시·축제 등이 전면적으로 취소되면서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의 구조를 약화시킴. 이에 따른 문화예술의 상이한 피해양상은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나아가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도입한 유연하고 빠른 대처의 필요성을 야기함.
- 실제 2020년 9월, 지속가능한 예술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을 마련함. '코로나 일상 속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창작·유통·일자리·향유 측면에서의 다양한 실험·탐색 지원, 온라인 예술 유통기반 구축, 비대면 일자리·기업 적극 육성, 예술의 사회적 역할 및 향유 기반 확대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함.

〈표 5〉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구분	내용
창작	다양한 실험 지원으로 새로운 예술 성장 유도 -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실험 지원 -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확대
유통	온라인 기반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예술 - 온라인 공연 성공 본보기(모델) 창출 - 온라인·비대면 유통 및 해외진출 활성화
일자리	미래 일자리 및 혁신기업 육성으로 생태계 대응력 강화 - 비대면 예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 혁신 예술기업 육성 및 종사자 역량 강화
향유	비대면 예술 향유기반 확대로 예술 성장의 토양 마련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일상적 위기 속, 예술의 사회적 기여 및 향유 증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 특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연, 전시, 문학 등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거나 문화시설 이용 경험이 단절됨에 따라 문화향유나 참여가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 격차의 심화, 문화예술 관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양혜원 외, 2020).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의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다양한 상황에서의 문화 안전망 구축과 격차 해소, 시민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이 지속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

1.4. 기술환경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 가속화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고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능정보기술이 활용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조사 결과, 가구 인터넷 접속률(99.9%, 0.2%p ↑)은 전년대 거의 같았고, 가구 내 컴퓨터(73.6%, 2.0%p ↑), 스마트폰(96.5%, 1.6%p ↑) 보유율은 소폭 증가하였음. 개인 인터넷 이용률은 93.0%(1.1%p ↑)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5년 전에 비해 3~9세 및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인터넷 서비스 활용처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10대는 교육과 온라인 게임, 20~30대는 클라우드와 금융상품 거래, 40~50대는 인터넷 쇼핑·뱅킹, 60대 이상은 동영상·누리소통망 이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표 6〉 연령대별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 특징

구분	내용
10대 (교육·온라인 게임)	- 교육·학습에 인터넷 활용, 온라인 게임은 10대 대부분 이용 - 여학·백과사전 활용(89.3%, 17.4%p ↑), 온라인 게임(99.9%, 13.2%p ↑) 이용 급증
20~30대 (클라우드·금융상품 거래)	- 20~30대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보편화, 금융상품(보험, 주식)거래 급증 - 20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73.1%, 12.0%p ↑), 30대 금융상품거래(35.3%, 16.9%p ↑) 증가
40~50대 (인터넷 쇼핑·뱅킹)	- 중·장년층의 인터넷 경제활동 확산 - 50대 인터넷 쇼핑(67.8%, 7.6%p ↑), 인터넷 뱅킹(84.9%, 5.8%p ↑) 이용 증가
60대 이상 (동영상·누리소통망)	- 여가·소통을 위한 고령층의 동영상 서비스, SNS 활용 증가 - 60대 동영상(87.5%, 4.8%p ↑), SNS(44.6%, 4.5%p ↑) 이용 증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2.4.13.), 2021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비대면 기술 가속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는 기존의 ‘대면 문화예술 활동’ 대신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급격한 부상을 가져옴. 새로운 유통채널의 확대로 그간 문화예술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관객들이 신규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문화예술향유 방식이 새로이 자리 잡았으며, 새로운 수익의 창출 가능성, 투명성 제고 등으로 문화예술 시장의 대중화와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부상함(양혜원 외, 2020).
- 즉, 시민의 일상이 디지털 미디어, 온라인 기반 기술환경과 밀접해지는 사회환경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와 삶 전반의 혁신적 변화 속에서 문화 향유의 영역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있음. 전통적인 문화 향유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단순히 문화를 관람하는 형태였다면, 디지털·비대면 기술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이용자의 경험과 감각이 체험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태권도 정책 및 유관기관 검토

2.1. 태권도 정책 검토

■ 태권도의 다양한 활용전략을 강조하는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2018-2022)

- 문재인 정부는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세계보급’을 100대 국제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태권도의 다양한 활용전략을 강조하는 <태권도 미래 발전 전략과 정책과제(10대 문화콘텐츠)>를 제시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 2018).
- 태권도로 열어가는 건강한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음. 태권도 저변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위상과 정체성 확립, 글로벌 리더십 강화, 지원체계 혁신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따라서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10대 문화콘텐츠)는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표 7〉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10대 문화콘텐츠)

구분	내용	
비전	태권도로 열어가는 건강한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① 태권도 저변확대	
	② 태권도 산업생태계 조성	
	③ 태권도 위상과 정체성 확립	
	④ 태권도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⑤ 태권도 지원체계 혁신	
전략 및 과제	① 평생 즐기는 태권도	생활태권도 활성화
		태권도 참여문화 조성
	②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태권도 부가시장 창출
	③ 자랑스러운 태권도	태권도의 상징성 강화
		태권도 브랜드 가치 제고
	④ 세계와 함께하는 태권도	태권도 심사 및 단증발급 체계 개선
		태권도 ODA 및 현지화 전략
	⑤ 신뢰받는 태권도	단체의 역량 제고 및 협업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10대 문화콘텐츠)

■ 누구나 일상에서 태권도를 향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한 <제3차 태권도진흥기 본계획>(2019~2023)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태권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2018~2022)>를 토대로 <제3차 태

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3차 기본계획' 비전은 국기 태권도로 열어가는 '건강한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함. 비전 설정의 배경으로 태권도 관련 전문인이 중심이 되었던 정책에서 국민 대다수가 일상에서 태권도를 향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함. 이전 '1차, 2차 기본계획'들이 태권도 활성화의 기본 토대 구축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3차 기본계획'은 개개인이 생활문화로 태권도를 경험하고 즐기는 확산의 측면에 중심 가치를 두었음.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대 목표에 따른 4개 전략과 13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음. 태권도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자랑스러운 태권도, 평생 즐기는 태권도,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세계와 함께하는 태권도를 전략으로 제시함.

〈표 8〉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19-2023)

구분	내용	
비전	국기 태권도로 열어가는 '건강한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태권도 저변 확대와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 및 과제	① 자랑스러운 태권도	태권도 정체성 강화
		재미있는 태권도 육성 기반 조성
		태권도 교육연수 내실화
		태권도 단체 역량 제고
	② 평생 즐기는 태권도	태권도 평생교육
		성인 태권도 활성화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③ 지속 성장하는 태권도	태권도 산업 성장 기반 조성
		현장 중심형 태권도 인력 양성
		태권도원 관광 거점화
	④ 세계와 함께하는 태권도	태권도 글로벌 리더십 강화
		태권도 ODA 확대
		태권도 문화교류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19-2023)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 중,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복지 실현'이라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스포츠 저변 확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전문체육 지원 강화로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R&D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목표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 태권도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함. 국기(國技) 태권도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음.

〈표 9〉 〈110대 국정과제〉 태권도 관련 계획

구분	내용
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목표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 ODA 체계화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주요 내용	글로벌 인재양성(은퇴선수 경력경로 개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스포츠 및 태권도 등 세계에서 사랑받는 국제스포츠 종목 육성

출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2.2. 태권도 유관기관 현황 검토

■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한 태권도 관련 유관기관

- 태권도 관련 주요 기관으로는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하여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의 총 4대 기관이 존재함.
- 각 조직의 성격에 따라 중심 기능 및 특성화된 기능은 매우 명확한 편이나, 태권도의 양적 및 질적 규모의 발전에 따라 확장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에서 태권도계의 국내외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각 기관의 주요 활동 및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음(조현주 외, 2017).

〈표 10〉 태권도 4대 조직의 기능 분석

구분	1) 세계태권도연맹	2) 국기원
기본기능	- 국제경기의 주최주관 - 국가별 협회 관리 감독 - 지도자, 선수 및 심판 관리 감독 - 올림픽 대응 경기 전략	- 승품단 심사 - 지도자 교육 연수 - 연구 - 해외 지도자 파견
확장사업	- 올림픽 무브먼트 대응 운동 - 기술체계의 확장 - 대중화 이벤트 개발 실행	- 시범단 육성 - 공연 이벤트 - 관광상품개발 - 세계태권도한마당
중심기능	- 올림픽 무브먼트 대응 전략 기획 - 국제 경기 관련 기획 및 관리 - 올림픽 태권도 경기 개선	- 교육 및 연수 - 심사 - 연구개발
중심기능 조정	- 올림픽 무브먼트 대응 운동 - 대륙·국가별 조직 감독 기능 강화 - 국제경기 주최주관 중심 기능 강화	- 수련 및 지도 매뉴얼 개발 - 연구소 기능 강화 - 심사권 단일화 - 기술체계 연구개발 - 태권도산업기술 연구 - 태권도장 지원
특성화	- 국제경기 기획관리감독	- 교육, 연수 - 연구소 독립 기관화

구분	3) 태권도진흥재단	4) 대한태권도협회
기본기능	- 태권도원 조성 및 운영 - 태권도 진흥사업 - 교육, 수련, 교육 네트워크 - 태권도문화 중심지 조성	- 국내 경기의 주최 주관 - 시도 지부 협회 관리 감독 - 지도자, 선수 및 심판 관리 감독 - 대표 선수 선발 및 국제경기지원
확장사업	-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 - 경연대회 - 태권도원 관광상품개발	- 도장 지원 사업 - 태권도 관련 조사통계 - 태권도 경기 기술 연구 및 향상 - 태권도 홍보 계몽
중심기능	- 태권도 보급 운동 - 태권도 중심 문화체험 - 태권도 성지	- 도장 지원 사업 - 태권도 관련 조사통계 - 태권도 경기 기술 연구 및 향상
중심기능 조정	- 대중화 이벤트 기획 실행 - 문화예술 연계 관광상품 개발 - 태권도 성지화 사업 추진 지속	- 국내 경기 주최 주관 - 국내 지도자, 선수, 심판 관리 감독 - 태권도 클럽화 준비 - 국내 태권도 보급 홍보

출처: 조현주 외(2017), 태권도 활성화 및 세계화 전략 연구

3. 전북 및 무주군 환경 검토

3.1. 전북 정책 검토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이하 '4차 종합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확정 및 고시됨에 따라 법정 하위계획으로서 수립되었음. '4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생태문명시대, 혁신과 상생으로 웅비하는 전북'으로 설정함. 비전 설정의 배경으로는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면서 회복력이 높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해가는 전북의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전라북도에 해당함.
- 이하 4대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였음. 첫 번째 목표는 도농융합 생태문명 수도를 제시함. 두 번째 목표는 스마트 농생명·新산업거점을 제시함. 세 번째 목표는 천년 역사문화·체험 관광1번지를 제시함. 마지막 네 번째 목표는 글로벌 SOC·새만금 완성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른 세부 전략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1〉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2021-2040)

구분	내용
비전	생태문명시대, 혁신과 상생으로 웅비하는 전북
목표 및 전략	도농융합 생태문명 수도
	스마트 농생명·新산업거점
	천년 역사문화·체험 관광1번지
	글로벌 SOC·새만금 완성
전략	도약하는 지역발전과 생태문명기반 조성
	도농융합 상생과 농산어촌 활성화
	미래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고부가 주력산업 고도화
	전북형 뉴딜을 통한 新성장 동력산업 육성
	공생과 혁신을 통한 고품격 여행체험 1번지 육성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SOC 대동맥 완성
	도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전북 구현

출처: 전라북도(2021),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제2차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

- 전라북도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토대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음. 이에 지난 5년간(2015~2019)의 성과와 한계에 기반하여 전라북도의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향후 5년간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수립하며 문화자치의 정착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가치로 내세움.
-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의 한계', '시군·지역 간 문화격차 상존', '특수상황에 대한 대응 및 창작안전망 부족', '민간시장 침체와 지속가능성 부족' 등 지역이 갖는 한

계를 기반으로 전라북도는 ‘우리가 만들고, 더불어 누리는 전북문화’라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비전을 도출하였음(전라북도, 2020).

- 전라북도는 특히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개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음. 전략과 과제는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 ‘시군 지역문화기반 격차 감소’, ‘문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는 문화자치를 지역에 정착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인 선순환을 구축하고자 함.

〈표 12〉 전라북도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

구분	내용		
비전	우리가 만들고 더불어 누리는 전북문화		
가치	문화자치	균형발전	창의혁신
목표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	시군 지역문화기반 격차 감소	문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
전략 및 과제	① 지역 생태계 구축으로 문화자치 기반 마련	문화자치 제도 마련과 체계화	
		안정적인 지역문화재정 확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	
		지역의 공공·민간 역량 강화	
	② 균형과 다양성으로 지역문화기반 격차 해소	문화향유격차 해소와 질적 도약	
		예술창작 지원과 예술인복지 강화	
		성평등적 문화행정 혁신과 확산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활성화	
	③ 지역문화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문화유산의 생활 계승과 활용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	

출처: 전라북도(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

■ <제7차 전북권 문화관광종합계획>(2022-2026)

- ‘천년역사, 문화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이라는 비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여행환경 조성, 공정기반 스마트관광 체계 구축, 상생협력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의 목표를 제시하고,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관광객 맞춤 상품개발,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신규관광(단)지 조성(1개소)의 전략을 수립함.

〈표 13〉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구분	내용		
비전	천년역사, 문화 여행체험 1번지, 전북		
목표	안전하고 깨끗한 여행환경 조성	공정기반 스마트관광 체계 구축	상생협력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
전략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관광객 맞춤 상품개발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신규 관광(단)지 조성(1개소)

출처: 전라북도(2022),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3.2. 무주군 환경 검토

1) 무주군 일반환경

■ 자연과 역사, 문화의 중심지이자 태권도 발원지로서의 장소성 보유

- 무주군은 전라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가 만나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주요 전국 대도시권과 2시간대 거리의 접근성을 지니고 있음. 서쪽으로 진안군·장수군, 북쪽으로 충청남도 금산군·충청북도 영동군, 동쪽으로 경상북도 김천시와 경상남도 거창군과 접해있음. 소맥산맥의 산악지대에 속하며, 주변에는 민주지산, 대덕산, 덕유산 등이 줄지어 있으며, 하천은 남대천과 구랑천이 있어 자연생태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어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임.
- 1읍(무주읍), 5읍(부남면, 적상면, 안성면, 설천면, 무풍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인구는 23,940명(2022년 3월 기준)에 해당함. 무주군은 65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33.78%(8,087명), 55~64세까지의 장년층은 19.45%(4,657명)로 초고령사회 특성이 가속화되고 있음.
- 무주군은 청정지역이라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태권도의 발원지라는 장소성을 보유한 지역임. 무주 구천동은 삼한시대부터 9,000명의 호국무사들이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 주둔한 ‘구천둔(九千屯)’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며, 설천면(雪川面)은 9,000명의 호국무사가 아침에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은 물이 눈(雪)같이 하얀 내(川)를 이뤘다고 해 붙여진 지명에 해당함. 백운산(白雲山)은 흰 도복을 입은 선인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임(이강모, 2017).
- 자연·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사계절이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레저스포츠 관광도시, 무주’란 비전을 설정한 바 있으며,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되기도 하였음.

[그림 6] 무주군 위치



출처: 무주군청 홈페이지

2) 무주군 문화분야 예산

■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명당 평균 문화관련 예산액, 상위 4위

-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명당 평균 문화관련 예산액에 따르면, 무주군은 495.00천원으로 상위 4위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분야 예산 규모는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작은 인구 규모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표 14〉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1명당 평균 문화관련 예산액 순위(상위 10개)

단위: 천원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1	경북 울릉군	913.94	6	전남 강진군	465.58
2	충남 부여군	874.29	7	강원 양구군	450.33
3	경남 함안군	605.04	8	충남 단양군	435.78
4	전북 무주군	495.00	9	충남 태안군	429.79
5	전남 구례군	472.98	10	전북 고창군	405.4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3) 무주군 문화정책

■ 무주다움과 군민행복 실현을 위한 <7대 핵심 비전> 제시

- 무주군은 민선 7기 후반부에 주력할 추진과제를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주안점으로 두고 2020년 <7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였음. 추진가능성, 지역경제파급성, 지역특수성, 생활밀접성에 기반을 두고 관광, 농업, 복지, 의료 문화, 경제 등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 7개를 선정하였음.

〈표 15〉 무주군 <7대 핵심 비전>

구분	전략 방향
7대 비전	1천만 관광객시대 기반조성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초석 마련
	꿈과 낭만, 멋과 문화가 있는 남대천 관광 명소화
	농촌협약사업 유치와 푸드 플랜 완성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과 평생학습도시 실현
	군립 요양병원 건립으로 의료서비스 강화
	매력 넘치는 무주시장 시설현대화

출처: 무주군(2020), 7대 핵심 비전

■ 무주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무주다움의 가치 실현을 강조한 <2022 주요업무계획>

- 무주군은 2022년 무주발전 7대 분야를 ‘오감만족 문화관광’, ‘도약하는 지역경제’, ‘풍요로운 선진농업’, ‘꿈을 여는 희망열쇠’, ‘희망가득 맞춤형복지’, ‘군민안심 안전도시’, ‘감동있는 소통행정’을 제시하였음.
- 문화예술 관련한 오감만족 문화관광의 영역에서 ‘무주다움의 경쟁력으로 태권시티 완성’, ‘매력적인 관광명소 조성’, ‘역사·문화·축제로 무주의 가치 재조명’, ‘맛과 멋, 체험의 흥이 어우러진 관광도시’의 4개의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16〉 무주군 〈2022 주요업무계획〉 문화관련 계획

주요 과제	사업내용
무주다움의 경쟁력으로 태권시티 완성	- 국립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 태권브이랜드 조성
매력적인 관광명소 조성	- 빛 디자인 조성 -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역사·문화·축제로 무주의 가치 재조명	- 무주 적상산성 종합정비 - 무주-진안 지오프랜드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 가야사 발굴조사 -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이안 재현 - 문화재 보수정비 - 전통문화 보존육성 -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 무주 소재 연극 제작 및 공연
맛과 멋, 체험의 흥이 어우러진 관광도시	-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 농촌관광 프로그램 확대 -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The 맛집 등 관광 상품화 - 푸드플랜 사업추진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관광 먹거리 개발 등) -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운영 - 공중위생서비스 등급 평가로 위생수준 향상 - 코로나19 외식업소 안심이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제 확산 -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홍보 - 식품 공중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출처: 무주군(2022), 2022 주요업무계획

■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문화도시를 위한 <2035년 무주군 기본계획> 제시

- <2035년 무주군 기본계획>은 무주군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으로서 거시적인 환경 및 도시환경의 변화, 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음. 이에 따라 ‘청정자연, 관광, 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도시, 무주’로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문화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을 제시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심체계는 태권도원을 축으로 설천면 지역 브랜드를 특화시키고, 덕유산 일원의 관광레저 기능을 강화하면서 남부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무주리조트의 관광레저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설천면과 무주군,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

- 설천면과 무주군이 각각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2022~2025) 2차, 3차에 공모선정 되었음. 두 곳 모두 일반근린형 유형으로 주거지·골목상권 혼재지역에 거점 조성 등으로 상권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둠.
- 특히, 태권도의 배후도시 설천면은 ‘청정자연, 관광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배후도시 설천, 눈꽃내’를 사업명으로 제시하였음. 주요사업의 연계지점으로 태권 스테이션(주차장, 공유자전거 등)을 조성하고, 경관시설물을 배치하여 태권로드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함.

■ ‘태권도의 도시’ 무주를 위한 대내외적인 움직임 확장

- 무주군은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21 월드태권도그랑프리 챌린지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무주태권도웰빙축제의 경우 17회(2021년 기준)를 맞이함. 국기원 및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최근에는 국기원과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태권도 사관학교의 설립과 관련한 전자 서명 등을 받는 등 태권도 성지로서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태권도의 국제 성지화 및 무주 일대 태권도 테마를 강화하고자 함.

[그림 7] '태권도의 도시'를 위한 무주군의 정책적 활동



출처 : 무주군청 홈페이지

■ 무주 지역 내 문화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기반 조성

- 무주군, 국립태권도박물관, 무주문화원이 지역사 연구 및 문화 관련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체를 2021년에 구성함. 정기회의 개최와 주요 유물 및 전시품 교류 등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 체험 기회 확대 및 공동 연구와 교육 등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호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무주군 문화환경

■ 생활 속 일상적인 분야 중심의 문화향유

- 최근 1년 기준 스포츠 관람 4.08회로, 박물관 3.85회, 영화 3.59회 순으로 나타남. 박물관 관람 횟수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39세 이하(6.75회), 40-59세 이하(1.78회), 60세 이상(1.52회)로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17〉 문화예술 관람 경험 횟수

(단위: 회)

구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기타
전북	1.99	1.66	2.57	2.83	1.85	1.71	3.06	3.45
무주군	2.13	1.35	2.00	3.59	3.85	1.51	4.08	3.00

출처: 무주군(2022), 2021년 무주군 사회조사 보고서

■ 주말 및 휴일 문화예술경험 저조

-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으로 'TV 및 DVD 시청' 47.9%, '가사일' 16.8%, '휴식' 11.2% 순으로 응답함. 문화예술 관람은 0.1%로 극히 저조한 결과를 보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40-59세 이하-60세 이상 모두 'TV 및 DVD 시청'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게임, 인터넷 검색 등(22.9%)', '가사일(22.7%, 15.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8〉 주말/휴일 여가활동

(단위: %)

구분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일	기타
전북	40.1	5.9	0.9	0.9	4.0	6.4	0.9	2.4	0.3	6.4	12.8	14.6	3.8	0.7
무주군	47.9	3.1	0.1	0.1	4.0	6.0	1.1	0.9	0.0	3.9	16.8	11.2	2.4	2.5
연령 별	39세 이하	32.9	6.3	0.0	0.2	5.7	22.9	1.2	0.0	5.0	10.1	8.8	1.7	5.2
	40-59세 이하	41.3	3.7	0.3	0.0	7.0	4.2	1.5	2.2	0.0	22.7	9.6	2.3	1.3
	60대 이상	58.3	1.4	0.1	0.1	1.3	0.3	0.5	0.0	3.5	15.6	13.1	2.8	2.2

출처: 무주군(2022), 2021년 무주군 사회조사 보고서

■ 스포츠 중심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 ‘박물관’은 세대별 격차 발생

-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경험은 ‘스포츠’ 60.6%, ‘영화’ 29.6%, ‘미술관’ 27.3% 순으로 나타남. ‘박물관’은 5.0%로 낮게 나타남. ‘박물관’ 경험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는 0%, 40-59세 이하는 4.0%, 60세 이상은 20.0%로 세대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9〉 특성별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경험

(단위: %)

구분	음악, 연주회	연극, 마당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기타
전북	9.8	5.8	1.6	49.8	14.4	11.7	38.2	4.0
무주군	5.4	6.6	0.0	29.6	5.0	27.3	60.6	0.0
연령 별	39세 이하	2.7	6.2	0.0	51.2	0.0	40.8	0.0
	40-59세 이하	5.9	9.1	0.0	22.9	4.0	14.3	0.0
	60대 이상	10.3	0.0	0.0	0.0	20.0	35.9	0.0

출처: 무주군(2022), 2021년 무주군 사회조사 보고서

■ 행사 내용의 다양성, 낮은 행사수준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행사 불만족

- 지난 1년 동안 무주군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7.8%이며, 52.2%가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문화예술행사에 만족도는 ‘보통’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뒤를 이어 ‘약간 만족’ 32.1%, 매우 만족이 25.9% 순으로 나타나며,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임.
- 그러나 무주군 문화예술행사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행사 내용의 다양성 부족’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낮은 행사수준’ 34.8%, ‘입장료 및 주변 시설 이용료 등이 비싸서’ 10.3% 순임.

- 세부 분석 결과 '행사 내용의 다양성 부족'과 '낮은 행사수준'은 39세 이하에서 각각 40.1%, 59.9%로 높고, '입장료 및 주변시설 이용료 등이 비싸서'는 60세 이상(15.0%)에서 높게 나타남.

〈표 20〉 문화예술행사 불만족 요인

(단위: %)

구분	행사 내용 다양성 부족	낮은 행사수준	적은 행사횟수, 짧은기간	행사시설 장비 낙후, 부족	주변 시설 부족	높은 입장료, 이용료	관람자 예절 부족	기타
전북	38.3	21.9	3.7	11.6	8.1	13.6	1.6	1.1
무주군	37.3	34.8	2.3	3.4	0.0	10.3	4.8	7.1
연령 별								
39세 이하	40.1	59.9	0.0	0.0	0.0	0.0	0.0	0.0
40-59세 이하	38.4	23.5	4.3	6.4	0.0	13.9	9.2	4.3
60대 이상	30.5	30.7	0.0	0.0	0.0	15.0	0.0	23.8

출처: 무주군(2022), 2021년 무주군 사회조사 보고서

■ 문화기반시설 수는 많은 편이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

- 2021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나타난 무주군 문화기반시설은 총 7개에 해당함.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0.21개로 상위 10위에 속하며, 전라북도 평균 0.072개보다 높음.
- 세부적으로는 무주형설지공군립도서관, 무주도서관, 국립태권도박물관, 무주군충박물관, 최북미술관, 무주문화원, 전통문화의 집에 해당함.

〈표 21〉 무주군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무주군	7	-	2	1	1	-	2	2	-	-
구분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계	국공립	사립	대학						
무주군	1	1	-	-	-	-	1	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무주군의 문화기반시설의 양적인 수는 높은 편이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임. 여가시설 만족도에 대해 '보통' 52.1%, '매우 불만족' 12.9%, '약간 불만족' 25.2% 순임. 무주군 내 문화공간은 기본적인 접근성 및 만족도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표 22〉 여가시설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북	6.5	26.2	50.1	14.8	2.3
무주군	12.9	25.2	52.1	7.5	2.3

출처: 무주군(2022), 2021년 무주군 사회조사 보고서

제2절 박물관 환경변화 및 현황 검토

1. 박물관 정책 및 동향 검토

1.1. 박물관 법·제도 및 정책 검토

1) 국내 법령

■ 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 정의는 다음과 같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박물관 정의(제2조 정의)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총9장 3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음. 세부적으로는 제1장 총칙,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6장 등록, 제7장 관리와 운영·지원, 제8장 평가와 지도·감독, 제9장 운영자문·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시행된(2022년 7월 19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는 등 다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조응하는 박물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접근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발전을 선도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고, 생활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사회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수립함.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비전으로,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5개의 전략 및 16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함.
-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삶의 핵심 문화기반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시책을 포괄해 종합적인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함. 초연결 시대의 박물관·미술관으로 거듭나 보는 관점에서

체험하는 관람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찾도록 제도 개선, 운영 활성화, 이용 편의 증진, 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그림 8]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비전 체계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인증 실시

- 박물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박물관 난립 및 건립 후 사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른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됨.
- 201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공립박물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등록 후 3년 경과 공립박물관이 대상으로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를 통해 평가함. 2019년 1월, 전국 227개 공립박물관을 평가 대상으로 고시하고, 8월까지 평가지표 개선 연구를 추진함. 평가지표에 따라 자료평가와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국립박물관 또한 2020년 1월, 평가 대상인 36개가 고시되었고, 평가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 중 26개 박물관이 인증되며 인증률은 72.2%에 해당함.

〈표 23〉 국립박물관 평가지표 체계

평가인증 범주	평가인증 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1. 설립목적의 달성도 (15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9			
		운영관리 적정성				
	기관장 리더십	관장 리더십	6			
		관장 전문성 내부 구성원의 기관 이해도 강화노력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점)	조직 및 인력 관리	조직구성 적정성 조직구성원 역량강화	8			
	시설 관리	시설구성 적정성 관리전문성	9			
		이용자 편리성				
	재정 관리	예산규모 및 배정의 적정성	8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점)	자료수집	소장품 확보 노력	5		
자료관리		소장품 관리 적정성 소장품 보존	7			
		연구 및 성과 공유				
자료 활용		접근성 확장	8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30점)	전시	상설전시 운영 특별전시 운영	12			
		교육 기획				
	교육	교육 운영 전문성 문화향유 기회 확대	12			
		관람객 정책				
	관람객 정책	홍보마케팅 관람객 관리	6			
		5. 공적 책임 (10점)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법적 책임 준수 정책 이행 노력	3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국내외 유관기관) 지역사회 협력 자원봉사 운영		7			
	합계			100		

3) 국제 법령

■ 박물관 운영의 최소 규범인 ICOM 박물관 윤리강령

- 국제박물관협회(ICOM)는 UNESCO의 협력기관으로, 박물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박물관의 국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임. 박물관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을 기술한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음.

〈ICOM 박물관 윤리강령〉

1. 박물관은 인류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 해석하고 장려한다.
2. 소장품을 관리하는 박물관은 사회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이를 보관한다.
3. 박물관은 지식을 확립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한 증거들을 보유한다.
4. 박물관은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해, 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5. 박물관은 공공 서비스와 공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을 보유한다.
6. 박물관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소장품이 유래한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활동한다.
7.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8. 박물관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ICOM 박물관 윤리강령에서 채택된 국제 법령

- ICOM 박물관 윤리강령 중 ‘7. 박물관은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에서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명시하고 있음. 박물관은 국제, 지역, 국가 그리고 지방의 법령과 조약의 의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관리주체는 박물관과 소장품, 박물관 운영에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신탁이나 조건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박물관 정책에서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국제법령은 아래와 같음.

〈표 24〉 ICOM 박물관 윤리강령에서 채택된 국제법령

구분	내용	가입여부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1954년 헤이그협약 제1차 의정서 1999년 제2차 의정서)	〈협약서〉 - 군사적 필요에 의해 간절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에 대한 적대행위 및 절도·약탈·유용 및 파괴 행위를 금지 -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특별보호 대상 문화재의 경우는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 철회 가능 〈제1차 의정서〉 - 자국 점령 지역의 문화재 반출 방지 및 보호 의무 - 상기 의무에 반하여 반출된 문화재를 보유하는 국가는 이를 반환할 의무 - 반환시 문화재를 선의로 보유한 자에게 배상 지급 의무 〈제2차 의정서〉 - 협약의 내용을 상세화, 강화하고 개인의 형사처벌 규정 추가	x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UNESCO, 1970)	- 불법 거래 문화재 회수 및 반환 -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 협약위반자에 형벌 및 행정적 제재 부과 - 문화재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 설립 - 문화재 반출 인가 증명서 도입 -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의무 - 군대 점령에 따른 강제적인 문화재 반출과 소유권 양도 금지	o (1983년)

구분	내용	가입여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워싱턴, 1973)	- 1,000여 종의 협약대상 동식물을 규제정도에 따라 3개의 부속서에 나누어 등재 - 국제 거래 원칙적 금지 및 거래에 대한 수출·수입 증명서 발급 요건을 규정	○ (1993년)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UN, 1992)	-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정분배를 위한 국내적 조치 의무와 기술이전 의무(선진국) 부여	○ (1994년)
도난당했거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 (UNIEROIT, 1995)	-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 반환 청구(당사국 법원, 기타 당국, 외교·영사 경로) -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x
수중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UNESCO, 2001)	- 수중문화유산의 상업적 개발 금지 - 수중문화유산 발견 시 보고 의무 부여 및 불법거래 금지 - 당사국 간의 수중문화유산 보존 협정 체결 권장 - 발견된 유산과 역사적, 문화적 관련이 있는 당사국들의 유산 보호 논의 참여 보장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x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UNESCO, 2003)	- 긴급보호필요목록 및 대표목록 등재 제도 도입 - 기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결작'으로 선포된 유산들을 '인류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자동적으로 통합	○ (2005년)

출처: ICOM 박물관 윤리강령을 토대로 2020 유네스코 개황, 외교통상용어사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구원 재구성

■ 박물관의 다양성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

- 1960년 유네스코는 '박물관을 만민에게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대한 권고'를 채택함. 이 권고안에서는 박물관을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연구 및 대중에게 전시하여 교육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박물관의 책무가 모든 계층 특히 노동계급에서도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게 장려함. 이 권고안에서는 박물관의 정의, 일반원칙, 자료의 배치와 관람, 홍보, 지역사회에 있어서 박물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권고하고 있음.
- '박물관을 만민에게 이용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에 대한 권고'가 1960년에 채택된 이래로 박물관의 역할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쳐온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유산의 보호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유네스코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박물관 및 컬렉션의 보호와 증진, 다양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권고'를 제정하여 공포함.
- 이 권고안은 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서 유네스코와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논의하여 만듦. 박물관 및 컬렉션의 보호 및 증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유산의 보전 및 보호, 문화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과학 지식 전승, 교육 정

책·평생학습·사회적 결속 개발, 창조 산업 및 관광 경제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권고안에서는 박물관의 정의 및 다양성, 박물관의 주요 기능(보존, 연구, 소통, 교육), 현 사회의 박물관 관련 이슈(세계화, 경제 및 삶의 질, 사회적 역할, 정보통신 기술) 정책(일반 정책, 기능적 정책) 등에 대해 권고하고 있음. 박물관을 인류의 자연과 문화 다양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유산의 보호, 보존, 전승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함을 명시하고 있음. 더불어 박물관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통해 권고하고 있음.

1.2. 박물관 패러다임 변화

■ 박물관의 복합문화공간화

- 현대사회가 탈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현대인들은 여가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문화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아지게 되었음. 문화공간을 찾는 관람객들은 단순히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 교류 및 소통 등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화공간은 복합문화공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복합문화공간화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지닌 개개인들에게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한 곳에서 향유하고, 참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공간과 차별되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문화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문화공간들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관료적 운영의 개선 및 서비스 기능 확대,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을 모색하고 있음.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등 대표적인 문화공간들은 더 이상 단일한 역할로 기능하지 않게 되었음.
- 특히, 박물관은 일방향적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물관에서 관람객과의 참여·소통의 공간으로서 역할이 확장하고 있음. 보존과 전시라는 전통적 영역에서 나아가 다양한 체험·경험을 제공하는 일상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진입하고 있음. 복합화된 박물관의 기획과 운영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박물관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 할 수 있음.

■ 박물관 3.0 시대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해의 필요성

- 박물관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박물관 활동의 확장을 도모하는 요소로서 과학기술은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한 이후, 테크놀로지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실험적인 행보는 ‘박물관 3.0 시대(Museum 3.0)’로의 도약을 가능케 하고 있음(이보

아, 2018). 이는 온라인을 통해 일방향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보다 흥미를 느끼며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을 활성화하고,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스마트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즉,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박물관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물리적 공간의 재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사용성이 낮은 전시 콘텐츠는 사용자 보다는 기술 중심의 접근으로 궁극적인 전시 커뮤니케이션 목적 및 사용자 니즈를 간과함을 시사함. 그러나 지역사회는 예기치 않은 신종바이러스의 출현 등 사회적으로 비대면이 불가피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몰입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가상 문화공간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음. 따라서 낮은 사용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시를 무리하게 재현하기 보다는 다양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유연한 인터랙션과 전시의 흥미와 안목을 넓혀주는 새로운 체험을 동시에 제공해야 함(정승진·김소연, 2020). 보다 심층적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3. 박물관 사회적 역할 변화

1) ICOM 박물관 정의 개정 논의

■ 민주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으로의 박물관 정의 개정 논의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박물관 정의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남. 2015년부터 ICOM에서 새로운 박물관 정의를 수정하기 위한 논의가 실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16년 밀라노 회의에서 역할 변화를 공감하고 새로운 박물관 정의의 개선 검토가 공식화됨.
- 2017년 국제박물관 정의, 전망과 가능성위원회(MDPP)가 공식 창설됨. 이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이 구성되고, 결의 제안 및 상정의 권한이 발생함. 그러나 창설 이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의 박물관 정의를 기준으로 단어 및 문구 분석 진행, 설문조사를 통한 새로운 정의 핵심과제 도출 등의 사전적 과정이 이루어짐.
- 새로운 정의를 향한 박물관에 대한 새 목표와 가치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의를 선정하면서 합의하기 위해 전 세계의 ICOM 협의회에 각각 새로운 박물관의 정의를 제안 공모함. 대부분 국가가 제안한 새로운 박물관 정의는 사회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나,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다수였음. 2019년 4월에 수합된 전

세계 ICOM 회원국의 발제 정의 가운데 제트 샌달의 정의가 우선 선정됨.

- 2019년 6월 MDPP 회의에서 제트 샌달의 정의를 최종 채택하고, 제139차 ICOM 보드멤버 의회에서 박물관의 대안적 정의를 확정하였음. 2019년 9월 제25차 교토 국제박물관대회에서 ICOM의 정관에 삽입될 새로운 박물관 정의의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했음. 그러나 박물관의 정의 변화의 필요성 제기와 실천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변지혜, 2020).

〈표 25〉 박물관 정의

구분	내용
ICOM의 박물관 정의	- 박물관이란 교육 및 연구와 향유를 위해 인류사회의 유형 및 무형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하고 소통하여 전시하는 사회와 사회의 개발에 공헌하는 공중에 개방된 비영리의 영구적인 기관이다
박물관 정의 개정안	- 박물관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대화를 위한 민주적이고 다층적인 공간 이다. 현재의 갈등과 도전을 인정하고 해결하며,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유산(artifact)과 표본(specimen)을 소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기억을 보호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접근을 보장 한다. 박물관은 이익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박물관은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다양한 공동체를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맺으며 수집, 보존, 연구, 해석, 전시하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 세계 평등에 기여한다

2) 동시대 박물관 역할 변화 검토

■ 신박물관학 대두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모색

-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맞물려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신 박물관학은(The New Museology. Vergo, 1989)'은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본격적으로 촉발함. 기존의 근대 박물관이 지향하는 유물론에 입각하여 소장품 수집과 보존,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던 박물관 기능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짐.
- 박물관이 더 이상 역사학과 고고학의 발현 장(場)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현상 안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매개체로서 그 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박물관의 존재 가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Fyfe, 2006)이 이야기되고 있음. 즉, 소위 엘리트 계층을 위한 폐쇄된 문화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하나의 열린 공간을 지향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음.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서의 '포용적 가치'의 확대

-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 포용적 박물관 정책은 국가적 정책으로서 의의를 넘어서 박물관이 현재의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함께 발전해나가고 삶과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박물관학의 논의를 현실 담론으로 이끄는 데에 기여함. 영국에서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완충 개념으로 활용된 ‘포용적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신박물관학에서 논의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의 결합을 통하여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김현경, 2017).

- 포용적 박물관은 포용성의 개념에 따라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와 연결될 수 있으며,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음. 사회적 문제를 문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박물관 역할을 통해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김현경, 2017).

2. 국공립박물관 및 체육 관련 박물관 현황 검토

2.1. 국공립박물관 현황 검토

1) 국공립박물관 분포현황

■ 전국에 산재해있는 국공립박물관

-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총 437개의 국공립박물관이 전국에 산재해있음. 국립박물관은 서울(15개), 충남(7개), 경기(5개), 전북(4개), 공립박물관은 경기(49개), 강원·경남(46개), 전남(41개) 순이며, 세부적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6〉 국공립 박물관 분포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국립박물관	15	2	1	0	2	0	0	1	5	3	2	7	4	2	3	3	1	51
공립박물관	19	11	7	16	3	4	9	2	49	46	25	27	25	41	40	46	16	386
계	34	13	8	16	5	4	9	3	54	49	27	34	29	43	43	49	17	437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총람

2) 전문테마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현황

■ 다양한 테마 중심의 국립박물관

- 박물관의 개념과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어가는 패러다임 속에서 전문 테마²⁾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다양한 테마 및 주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보다 쉽게 흥미를 느끼며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7〉 전문테마 중심의 국립박물관 현황

구분	명칭	등록일	소재지	비고
1	국립현대박물관	1993.03.25.	경상북도 포항	
2	육군박물관	2001.03.19.	서울	
3	국립관세박물관	2001.03.19.	서울	
4	해군사관학교박물관	2001.07.28.	경상남도 창원	
5	국립조세박물관	2005.06.30.	세종	
6	지도박물관	2007.02.09.	경기 수원	
7	국립해양박물관	2012.05.21.	부산	
8	국립경찰박물관	2012.11.14.	서울	
9	공군박물관	2012.12.05.	충청북도 청주	
10	국립한글박물관	2013.10.18.	서울	

2)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문테마박물관은 기존 종합박물관 및 전문박물관 분류가 아닌 테마 및 주제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연구원이 재구성하였음을 밝힘.

구분	명칭	등록일	소재지	비고
11	공연예술박물관	2014.12.29.	서울	
12	국립태권도박물관	2014.12.29.	전라북도 무주	
13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2015.02.16.	경기 포천	
14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2015.05.01.	서울	
15	국회 헌정기념관	2015.09.15.	서울	
16	한국영화박물관	2015.09.15.	서울	
17	전사박물관	2015.09.17.	전라북도 익산	
18	국립산악박물관	2015.11.03.	강원 속초	
1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16.07.11.	경상북도 상주	
2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16.07.11.	부산	
2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	2016.10.20.	충청남도 서천	
22	충무공이순신기념관	2017.08.02	충청남도 아산	
23	국토발전전시관	2017.11.02	서울	
24	국립고궁박물관	2017.12.14	서울	
25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017.12.14	경기 여주	
2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2017.12.14	전라남도 목포	
27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2018.02.28	경기 파주	
28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2018.05.31	서울	2층
29	국립여성사전시관	2018.06.28	경기 고양	
30	우정박물관	2019.04.30	충청남도 천안	
31	국립기상박물관	2020.11.30	서울	
32	강원경찰박물관	미등록	강원 춘천	
3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미등록	충청남도 태안	
34	칠백의총관리소(기념관)	미등록	충청남도 금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참조 연구원 재구성

2.2. 체육 관련 박물관 현황 검토

1) 체육 관련 박물관 분포 현황

■ 체육이 지닌 가치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

- 일제강점기부터 체육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민족의 긍지와 희망을 심어주던 매개체임. 이후 한국전쟁과 IMF를 거치면서도 민족공동체로서의 결속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옴. 88올림픽대회를 포함한 4대 메가스포츠 이벤트 모두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스포츠강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게 됨(홍인국, 2018).
- 그러나 체육이 지닌 정신적·문화적 가치에 비해 국내 설립된 체육박물관은 다양화되지 못하였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상황임. 특히, 국립의 경우 국립산악박물관

관과 국립태권도박물관, 국립체육박물관(2024년 개관 예정) 세 곳뿐인 상황임. 이 중에서도 태권도는 국기(國技)에 해당하는 고유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위상을 확보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28〉 국내 스포츠 관련 박물관 현황

구분	명칭	운영주체	소재지	비고
대회	서울올림픽기념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국립체육박물관 (‘24 건립예정)
	서울올림픽전시관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	
	한국체육박물관	대한체육회	서울	
학교 인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배재대학교	서울	
	손기정 기념관	손기정기념사업회	서울	
	무도·체육전시관	용인대학교	경기 용인	
	선승관	경희대학교	경기 수원	
종목	국립공원 산악박물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풋볼 팬타지움	대한축구협회	서울	
	탁구기념관	서울대학교	서울	
	태권도 기념관	국기원	서울	
	핸드볼 명예의 전당	대한핸드볼협회	서울	
	세계 골프 역사박물관	(주)슈페리어	서울	
	골프박물관	대한골프협회	경기 파주	
	수원월드컵경기장 축구박물관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경기 수원	
	국립산악박물관	산림청	강원 속초	
	대관령 스키역사관	개인	강원 평창	
	자이언츠 박물관	롯데	부산	
	이글스 사료관	한화	대전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한국야구위원회	부산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진흥재단	전북 무주	
	한국야구 명예전당	서귀포시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산악박물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제주	

출처: 홍인국(2018), 국내외 체육박물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국립체육박물관의 방향성 모색

제3절 환경분석 시사점

-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둘러싼 거시환경, 태권도 정책 및 유관기관, 전북 및 무주군 환경, 박물관 정책 및 동향, 국공립박물관 및 체육관련 박물관 현황 등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파악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이를 토대로 시사점과 향후 전략과제 적용 방안을 도출함.

〈표 29〉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둘러싼 환경분석 시사점

구분	주요 이슈	시사점 및 전략과제 적용 방안
외부 환경	거시환경 - 문화의 사회적 역할 증대 및 접근성 강화 대두 - 지속가능한 사회의 새로운 동력 필요 - 개인과 사회의 회복탄력성 중요성 증대 - 코로나19로 인한 기술환경의 급격한 전환 가속화	- 시민의 문화적 삶과 문화예술 활동의 매개자로서 박물관 기능의 확대 전환 - 외부환경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는 박물관 운영의 명확한 기초 및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성 확보 노력 필요 -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발굴 및 확대 등 새로운 시대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박물관의 유연한 전략 필요
	태권도 정책 및 유관기관 - 태권도의 다양한 활용전략 강조 - 일상 속 태권도 향유의 중요성 대두 - 국기 태권도로서의 위상 및 역할 강조 - 각 기관별 고유기능 확립 및 긴밀한 협력 체계 필요	- 일방향적인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역할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북 및 무주군 환경 - 역사문화 및 체험관광 육성 강조 - 지역 브랜드로서 태권도의 도시 무주의 지역 정체성 확립 필요 - 높은 노령인구의 비율 -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 - 무주 지역 내 문화시설간의 연계 기반조성 초기단계	- 문화교류 허브로서 박물관 브랜드 가치 창출의 역할 필요 -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 연계, 협력하는 박물관 기능 확대 - 다양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기능 확대 필요
박물관 환경	박물관 정책 및 동향 - 내실있는 운영방안을 통한 전문성 강조 - 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회적 역할 대두 - 포용적 가치의 확대 - 일상 속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화 - 기술환경에 따른 전시환경매체의 변화	- 보존, 연구, 교육, 소통 등의 박물관 고유기능의 전문화 및 확대 - 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른 사회포용적 가치 실천의 요구에 부응하는 박물관 역할 모색 -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 필요 - 제약 없는 온라인 프로그램 마련 필요
	국공립박물관 및 체육 관련 박물관 - 국공립박물관의 양적 확대 지속 - 다양한 전문테마 중심의 박물관 활성화 - 체육의 지닌 정신·문화적 가치를 담아내는 박물관 운영 절실	- 국립박물관으로서의 내실화 기반 구축 필요 - 세계에서 유일한 태권도박물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필요

III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현황 분석

- 제1절 국립태권도박물관 내부 운영현황 분석
- 제2절 국립태권도박물관과 국공립박물관 현황 비교분석
- 제3절 박물관 주요관계자 의견수렴
- 제4절 현황 분석 시사점

제1절 국립태권도박물관 내부현황 분석

1. 국립태권도박물관 비전영역 분석

1.1. 박물관 연혁 및 전개과정 이슈

1) 국립태권도박물관 주요 연혁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2004년 태권도원 조성 장소가 무주로 결정된 이래, 전시·비지터센터부터 전문국립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며 변화해왔음.

[그림 9] 국립태권도박물관 추진 흐름



■ 세계 유일 태권도 박물관 출발(2014~2015)

-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태권도 성지 조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태권도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고, 2004년 17개 지자체가 신청하여 무주군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정됨.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원 조성의 일환으로서 전시·비지터센터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건축되었음. 2006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시·비지터센터는 태권도원 홍보, 입장티켓 발부 및 판매, 주변관광지 안내 공간으로서 티켓 판매소, 홍보실, 관리운영실, 홍보영상실, 홍보전시실, 뮤지엄샵, 카페·식음료시설, 은행, 편의점, 편의시설 등의 세부 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한국개발연구원, 2008).

- 국기 태권도의 이미지 신장과 태권도 역사 전문성 제고를 고려하여 준공 이후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4년 4월에 개관함. 박물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태권도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인프라로서 우선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진 사례라 할 수 있음. 태권도원 총 면적은 2,314천㎡이며, 도전의 장(체험 공간), 도약의 장(수련 공간), 도달의 장(상징 공간)으로 구성되어있음. 이중 태권도박물관은 도전의 장(체험공간)에 위치하고 있음.
- 박물관 개관 이후 2014년 12월에 세계에서 유일한 태권도 전문박물관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됨. 국립한글박물관에 이어 태권도를 포함한 한국 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전문 박물관으로의 역할을 시작함.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널리 알리고 창출하는 랜드마크로 인식되기 시작함.
-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조직체계 구성을 위해 제1대 서봉준 관장이 취임 되었으며, 트리아트 포토존 조성을 통해 박물관 내의 공간 조성을 시도하는 등 박물관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 태권도원 연계 문화 활동 운영, 소극적 박물관 활동(2016~2018)

- 2014~2015년이 세계 유일 태권도 박물관으로서 출발을 본격화한 시기라면 2016~2018년은 태권도원과 연계한 문화 활동을 운영하고, 소극적인 박물관 활동을 진행하였음. 태권도원과 연계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태권도원 목요상설 문화마당 운영(2016)에 해당함.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립태권도박물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나타냄.
- 이후 2017년 영상장비 유지보수, 전시해설, 박물관 활동지 홍보 본격화,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는 활동을 이어오며, 보다 효과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특히, 2018년 박물관 1층에 세계태권도연맹 역사관을 조성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설립, 발전과정과 국제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으며, 1973년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년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의 모습을 전시함.

■ 박물관 평가 미인증 등 운영 기반 허약(2019~2020)

- 2019~2020년은 앞서 박물관 소극적 활동의 영향으로 박물관 평가 미인증 등 운영 기반이 허약해진 결과를 만들어낸 시기임. 2019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약제 해설 및 시즌 체험·이벤트,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진행했으나 전반적인 박물관의 인력 부족 부족으로 고객센터가 저하됨. 동시에 라키비움 구축 추진 및 제2수장고 조성 등으로 박물관 공간 운영의 다변화를 꾀하며 변화를 시도하기도 함.

- 2019년부터 새로운 박물관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2020년 진행한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미인증되는 결과로 이어짐.

■ 박물관 활동영역별 활성화 노력(2021)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2021년부터 박물관 활동영역별 활성화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인공지능과 거대자료(빅데이터), 로봇공학,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시 안내 로봇 ‘큐아이’을 비치하여 국내외 방문객이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환경을 접목했으며, 다양한 대상별 교육 다각화 및 주말·공휴일 1일 4회 해설체험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함. 이뿐만 아니라 유물 및 자료 등록 관리체계 구축 노력을 통해 박물관 활동영역별 내실화를 꾀함.

■ 박물관 전문화를 위한 전환기 준비(2022)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2022년부터 박물관 전문화를 본격 추진하였음.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은 첫 학예사 출신 전문가의 영입으로 국립태권도박물관은 본격적인 전환기에 돌입하였음. 또한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고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를 출범함.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박물관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연구와 전시에 주력하고자 하는 계획과 관통하는 부분임.
- 박물관 조사연구 인력 확보 및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2023년에 진행될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대비하여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단계임.

2) 국립태권도박물관 전개과정 이슈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정체성: 태권도원을 구성하는 인프라로서 출발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원을 구성하는 인프라로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음. 전시·비지터센터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국내외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으로 개관하였으며, 태권도진흥재단의 소속이라는 형태를 취함. 따라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은 단일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움.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맞는 방식과 체계를 다듬어 보다 구체적인 정체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전문박물관으로서의 기능 개선을 통한 내실화 강화 요구

- 2020년 실시한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점수 미달로 박물관 사업의 개선이 대두됨.
- 평가인증제를 구성하는 지표 중 재정관리, 자료 활용, (지역/유관기관) 상생협력 관련 분야의 평가가 하위권에 해당함에 따라 박물관 전담인력 배치와 전시에 집중된

예산구조의 개선, 조사연구, 교육, 소장품 관리 등 효율적 예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태권도 관련 단체 및 기관, 체육 관련 박물관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의견이 있었음.

〈표 30〉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평가 영역	지표명	지표설명	평균 점수	기관 점수	하위 영역
설립목적의 달성도 (15)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	- 설립목적에 따른 비전 수립 및 과제 설정, 주요업무 공유 -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 운영규정 제정 및 규정에 따른 적용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3.47	81.67	
	기관장 전문역량	- 관장의 권한과 업무성과, 관장의 목표 달성도 - 관장 전문성, 관장 근무경력 - 박물관 운영의 구성원 이해 및 참여	85.99	54.67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절성 (25)	조직 및 인력 관리	- 박물관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 전문인력 확보 노력 및 성과 - 성과평가 체계 및 환류, 직무역량 강화 교육	82.36	74.38	
	시설 관리	- 공공문화시설로서 운영을 위한 공간 적절성 -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확보 예산	91.08	85.56	
	재정 관리	- 사업별 예산과 배정, 집행의 적절성 -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확보 예산	71.60	46.50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	자료 수집	-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소장품 수집 - 소장품 확보 실적	82.51	71.40	
	자료 관리	- 소장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율 - 소장품 관리, 보존, 복원, 소장품 보존처리 실적	77.70	89.29	
	자료 활용	- 소장품 연구 및 성과 공유를 위한 활동, 연구 실적 - 소장품 접근성 확장을 위한 노력, 공개 및 공유 실적	66.43	28.13	●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30)	전시	- 상설전시 환경 및 구성 - 전시이해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관람객 증대 - 박물관 특성, 문화다양성 등 고려한 특별전시 기획 - 개최 실적 및 전시성과	80.37	69.17	
	교육	- 설립목적 이행을 위한 교육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교육시설 운영 - 대상에 부합하는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참가자 실적 -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확대 노력	81.93	51.67	
	관람객 정책	- 기관 활동에 대한 홍보 적극성, 홍보(소통) 실적 - 관람객 관리 및 분석, 만족도 개선을 위한 노력	76.69	80.00	
공적 책임 (10)	법적, 정책적 책임준수	-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관련 법규 준수, 법정 교육 이수 -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이해 및 이행	88.35	65.00	
	상생협력	- 유관기관 협력망 활성화, 해외박물관 교류협력 - 지역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 협업 및 지역민 참여 유도 - 자원봉사자 활동을 위한 지원, 자원봉사 운영	81.15	37.14	●

※ 하위영역은 기관 점수 중 낮은 세 개 분야를 의미함

출처: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서

1.2. 비전 및 추진방향 검토

1)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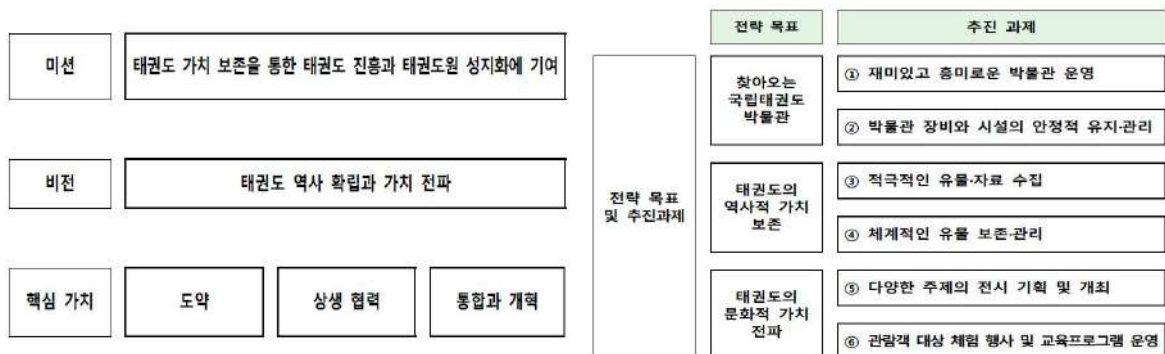
■ 태권도 관련 유물 및 자료의 보존·계승·관리와 체험의 구심점을 지향하는 박물관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 관련 유물 및 자료의 보존·계승·관리와 태권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구심점의 두 가지 취지로 설립 및 운영됨.
- 태권도와 관련된 역사 자료와 유물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종주국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연구·전달함으로써 태권도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태권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인과 태권도인들의 통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태권도 역사 전시를 통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태권도 역사 확립과 가치 전파’라는 비전하에 경영전략 체계 수립

- ‘도약’, ‘상생 협력’, ‘통합과 개혁’을 주요 가치로 설정하고, ‘찾아오는 국립태권도 박물관’, ‘태권도의 역사적 가치 보존’,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전파’라는 3개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예정임.
 -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재미있고 흥미로운 박물관 운영, ② 박물관 장비와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③ 적극적인 유물·자료 수집, ④ 체계적인 유물 보존·관리, ⑤ 다양한 주제의 전시 기획 및 개최, ⑥ 관람객 대상 체험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음.

[그림 10] 2022년도 박물관 경영전략체계도



출처: 2022년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계획서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복합적인 정체성

- 연혁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원을 구성하는 인프라로서 건 축되었지만 박물관으로 개관하며 국립박물관이자 전문테마박물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그러나 동시에 태권도진흥재단 내 소속되어있는 구조를 띠고 있어 박물관의 규모와 위상에 비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 받지 못한 상태임.

-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근거로 태권도원 조성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성지화라는 미션을 설정하고 있으며,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태권도 문화교류의 중심에 비전을 두고 있음. 도약, 상생협력, 통합과 개혁이라는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3대 전략에 따른 9대 과제를 제시하였음.

〈표 31〉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영전략체계도

구분	내용		
미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성지화		
비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태권도 문화교류		
핵심가치	도약	상생협력	통합과 개혁
전략 및 과제	① 태권도 문화적 가치 창출	누구나 참여하는 태권도	
		국기 태권도 위상 제고	
		문화공간으로 활기찬 태권도원	
	②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협업 네트워크 강화	
		태권도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태권도 한류 확산	
	③ 지속가능 경영 실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의적 성장	
		신뢰받는 경영체계 구축	
		안전한 공공인프라 구축	

출처: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 이러한 한계점은 박물관 평가인증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임.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이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제시한 경영전략의 과제와도 연계되는 것으로 향후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의 근거라 할 수 있음. 다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태권도진흥재단과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과 추진과정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음.

■ 국립박물관 및 전문테마박물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시도

-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은 개관 8주년을 맞아 전문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첫 학예사 출신 전문가를 관장으로 영입하여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
- 연 2회 정기적으로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전시·자료 수집 등에 대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위촉함. 박물관 운영 및 전시, 태권도 및 자료 수집 분야로 구분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 경영전략체계,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박물관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의 주제 및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함.

2) 대외적 인지도 및 위상

■ 지역 내 박물관으로서의 인지도 및 위상 미흡

-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지역 내 박물관으로서의 대내외적인 활동과 연계지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며, 이는 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함. 지정학적인 위치가 박물관의 인지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태권도원에 비해서도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 박물관 패러다임 및 정책 기초 정책 기조의 변화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경향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만큼 박물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무주군-전라북도, 국내외 등으로 위상을 수립하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함.

1.3. 대외협력 및 교류

■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 대상 문화향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도

- 무주 지역사 연구 및 문화 관련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무주군, 무주문화원과 2021년 4월 ‘무주지역 문화기반 시설 협의체’를 구성함.
 -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곤충박물관, 김환태문학관, 무주문화원, 태권도진흥재단 박물관 담당자 등이 포함됨.
- 정기 회의를 통해 무주군민의 문화 체험 기회 확대 및 공동 연구, 교육 등 정기적·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발족하였으나, 소속 기관의 담당자 변경 등으로 활동이 지속되지 못함.
- 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언급되었던 지역상생 및 협력에 대한 박물관 측의 활동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함. 또한,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전라북도 내 박물관/미술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전라북도 박물관미술관협의회 회원관으로 소속됨. 보다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통해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존재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11]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사업영역



출처 :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홈페이지

1.4. 박물관 이용객 관리

■ 코로나로 인한 관람객 수 감소 및 태권도원 방문객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는 2020년 코로나로 휴관 및 거리두기 관람 등으로 줄어든 반면, 태권도원 방문객은 코로나로 인해 감소하긴 했으나 박물관 방문객 대비 많은 수를 기록함.
-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태권도원 방문객도 박물관을 관람하도록 하는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가 필요함.

〈표 32〉 박물관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시·해설	2,886	2,170	2,363	407	1,544
교육 프로그램	350	750	790	441	2,000

출처: 2020-2022년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계획서

〈표 33〉 태권도원 내외국인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관광지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태권도원	내국인	152,495	231,634	267,451	309,679	299,163	284,509	67,519	136,006
	외국인	13,429	20,836	16,796	26,869	28,483	31,871	142	699
	합계	165,924	252,470	284,247	336,548	327,646	316,380	67,661	136,705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 자체적인 만족도 조사 실시로 방문객 의견 수렴 진행

- 매년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2021년은 실시하지 않음.
- 전시 유익성과 이용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며,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 중 85점 정도의 만족도를 획득했으나,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에 해당됨.

〈표 34〉 박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84.27	84.42	86.17	미 실시	미 실시	84.95

출처: 2020-2022년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계획서

-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관람객 리스트가 수집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임. 실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이용객 설문조사를

시도한 바 있으나 표본 부족으로 인해 결과 활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한계점을 나타냄.

1.5. 홍보·마케팅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박물관 정보 제공 및 소통 활동 저조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 박물관 소셜미디어 공식계정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이 없거나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많음.
-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유튜브 등 많은 박물관들이 시도하고 있는 홍보·마케팅 수단을 도입하여 다양한 방문객 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박물관 전시 및 행사 안내 등의 연계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12] 태권도박물관 및 태권도원 온라인 홍보 관리현황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



태권도원 카카오채널 이벤트(우)

2.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영역 분석

■ 개관 이후 지속, 중단, 신설된 다양한 박물관 사업

- 박물관은 2014년 개관 이래로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개관 이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사업은 기획 및 특별전시이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박물관 관람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시행하며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확인함.
- 반면, 상설전시의 경우, 개관 이래 동일한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어 재관람객 유치, 다양한 관람객 층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박물관의 주요 신설 사업으로 라키비움 구축이 있으며, 2019년부터 이를 위한 예산 편성, 담당 인력 배치 등 사업을 추진함.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소장품 관리, 전시 시설 점검 및 관리, 수장고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박물관은 새로운 시도를 함.

〈표 35〉 박물관 사업영역별 진행상황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설전시	◆							
기획/특별전시	●	●	●	●	●	●	●	●
교육/체험	●				●	●	●	
문화·이벤트		●	●	●	●			
수장고 구축							■	
소장품 관리	▲						▲	
시설 관리			▲	▲				
조사·연구								■
라키비움					■	●	●	●
대외협력					●		●	
홍보마케팅			●					
관람객 관리			●	●	●	●	●	
평가인증제						●		

※ 참고 : ● 지속 사업, ▲ 간헐적 시행 사업, ◆ 개관이후 동일 사업, ■ 신설 사업

출처: 박물관 내부자료

2.1. 소장품 관리

■ 태권도 관련 서적, 메달, 트로피, 도복 등 소장품 및 유물 보유

- 도서, 문서, 기록물, 시청각 자료, 유물 등의 소장품을 보관 및 전시하며, 구입과 수증 등을 통해 수집되고, 그 중 기증유물이 소장품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21년 1월 기준 박물관에서 보유 중인 유물은 5,456건, 총 9,820점으로 포스터, 증명서, 올림픽 기념품, 복식, 도서 등이 주를 이룸.
- 무예도보통지 4권 ‘권법’편을 비롯해 태권도 9대관과 관련된 증서, 올림픽 메달, 트로피, 도복 등 17,665점의 유물을 보유함.
 - 소장유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실시 : 총 838점 등록
 - 도서 및 시청각 자료 등록 및 목록화: 총 1,410권/점 등록
 - 태권도 유물·자료 수집 및 적절한 유물보존환경 조성을 통한 유물의 체계적 보존처리 실시 : 총 179점 기증

〈표 36〉 박물관 유물현황

(2021.02.22. 기준)

구분	기증	구입	복제	임시보관	총계	비고
건	5,279	3	22	185	5,489	등록자료 : 3,143점 미등록자료 : 6,911점
점	9,639	26	25	364	10,054	

출처: 박물관 내부자료

〈표 37〉 박물관 등록자료 유형

(2021.02.22. 기준)

구분	포스터	페넌트	증명서	기념품	복식	도서	태권도	총계
점	591	620	333	281	71	405	842	3,143

출처: 박물관 내부자료

[그림 13] 기증받은 메달



출처 : 전북일보(<https://www.jjan.kr/article/20191107695755>)

-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유물, 자료 등은 소장품 등록 작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환경 조성 등의 노력을 함.
- 지속적으로 박물관 정체성에 맞는 태권도 관련 유물 구입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국내외 가치 있는 태권도 유물 및 자료에 대한 기증을 받음. 수집 중점 대상을 선정하여 전시 주제에 맞고, 기존 전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수집 중점 대상은 1940~60년대 9대관 관련 자료, 대한태수도협회 관련 자료, 태권도대회 성과물 등이 포함됨.

2.2. 조사·연구

■ 시작단계의 태권도 조사·연구

- 2022년부터 조사·연구 예산을 수립하고 담당 학예사를 채용하는 등 본격적인 태권도 조사·연구 사업을 시작함.
- 첫 학술 연구는 2005년 태권도진흥재단 창립과 2014년 태권도원 개원 이후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태권도진흥재단 발자취」 자료집 발간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수행할 계획임.
 - 재단의 창립 의의, 태권도원 유치 및 개원 관련 자료 정리, 현재까지의 태권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발굴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또한, 2022년 상반기 「태권도 교본 시대별 비교 분석」 학술연구를 통해 시대별 태권도 관련 문헌, 학술논문 등을 분석하여 태권도 용어의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태권도 교본의 연대기를 비교분석할 계획임.
 - 당수도, 태수도, 태권도교본 등 다양한 시대별 자료를 분석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태권도 교본의 역사적 근거를 검증하고자 함.

■ 기존 도서 및 시청각 자료 체계화 시도

-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태권도 주제의 도서, CD, 비디오, 문서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등의 관리 작업을 수행함. 기존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등록 및 목록화 작업과 태권도 관련 신간 도서 구매 등 소장 자료의 체계화를 추진하고자 함.

■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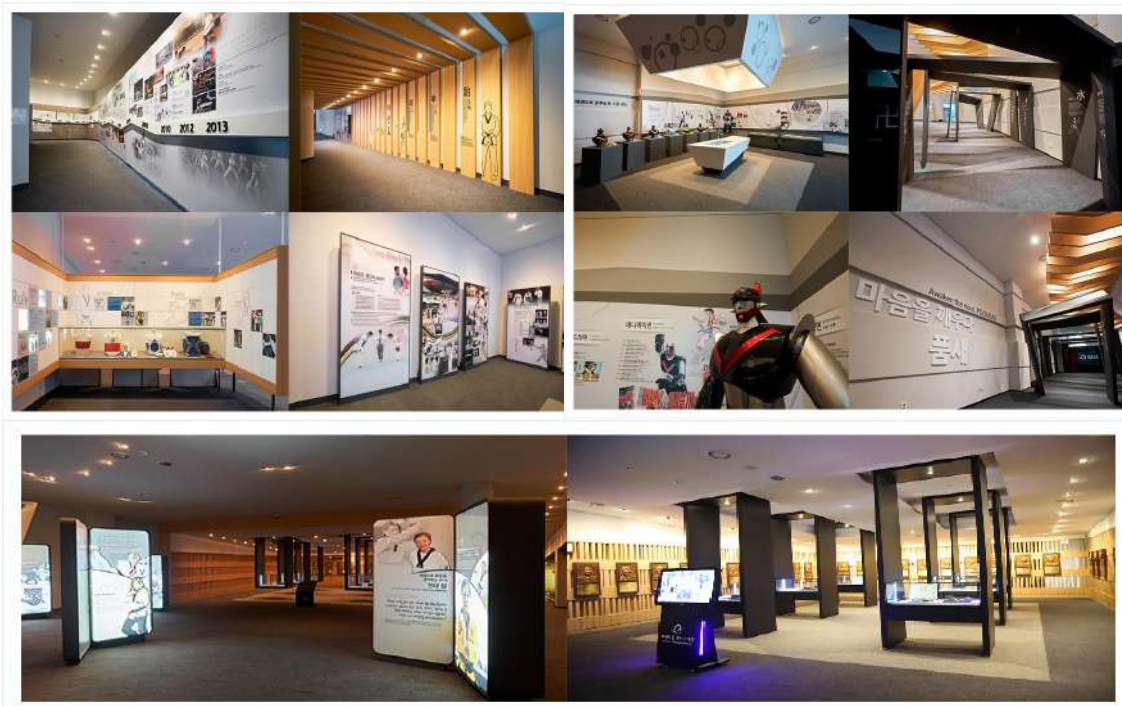
- 박물관은 개관 이후 별도의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아직 없음. 이에 따라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당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도 함.
- 라키비움 구축을 박물관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이를 위한 개별 자료 수집 및 조사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조사연구와는 성격이 다름.
- 또한, 라키비움과 관련하여 박물관 마스터플랜 및 라키비움 연구를 진행한바 있으나, 박물관으로써의 일부 기능에 대한 발전방안 및 사업 도출에 관련된 연구임. 박물관 전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연구 기능이 추가되어야 함.

2.3. 전시

■ 태권도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는 3개 실로 구성된 상설전시

- 1전시실은 ‘태권도의 이해’를 주제로 태권도의 근간, 변화, 세계화 등에 대한 소장품을 전시함.
- 2전시실은 ‘몸, 마음 그리고 삶의 변화’를 주제로 태권도의 동작, 수련과정을 통한 정신적 가치, 태권도인의 이야기 등을 소개함. 또한, 영상실이 위치해있어 태권도 히어로즈(태권 V) 3D 애니메이션을 상영함.
 - 영상 관람객은 2018년 22,775명, 2019년 22,289명, 2020년 5,653명, 2021년 1,102명으로 코로나로 인한 운영기간 및 상영 횟수 축소에도 박물관 및 태권도원 방문객이 많이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남.
- 3전시실은 ‘세계인과 함께 꿈꾸는 태권도’를 주제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태권도인을 소개하고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함.
- 모든 전시는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VR 콘텐츠로 제공하여 비대면 전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 14] 국립태권도박물관 1~3전시실 내부 현황



출처 : 국립태권도박물관 홈페이지

■ 태권도와 확장된 주제로 연 1회 정기적인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개최

- 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 등 태권도와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고 있음.

- 기획전시는 태권도를 메인 주제로 하는 전시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태권도의 위상, 무주와 태권도, 무형문화재와 태권도 등을 다룸.
- 특별전시는 태권도를 주제로 다른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와 협업한 작업 결과물을 전시함.

〈표 38〉 박물관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개최 세부내용

연도	전시구분	전시명	내용
2015년	특별전시	김소선 작가 호랑이 민화 전시회	- 태권도원 개원식 기념 - 민화 속 호랑이가 태권도를 하는 모습 - 무주의 자연과 태권도 이미지를 친근하게 표현
2016년	기획전시	태권도, 세계와 마주하다	- 광복 이후 태권도의 체계화·정립화 과정 조명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WTF·태권도진흥재단의 성립 과정 소개 - 태권도의 국내·외 경기 관련 유물 전시
	특별전시	열명의 색으로 만나는 태권도	- 태권도와 한글의 멋스러움을 널리 알리고자 함 - 태권도 품새 속 10개의 단어를 이용하여 10명의 작가가 각 4점, 총 40점의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
2017년	특별전시	Harmony of Arts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념 - 태권도에서 얻은 영감과 반추상적인 화법으로 표현된 아크릴화 전시
2018년	기획전시	태권도원과 무주, 그 특별한 이야기	- 제 2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관련 - 태권도원이 조성된 무주군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 - 태권도원의 건립 과정과 더불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사진과 영상
	기획전시	공유共有, 그 가치를 가슴에 새기다	- 미공개 유물과 전시 기회가 드물었던 유물 소개 - 도복·메달·태권도 관련 서적 등 다양한 기증유물을 소개하여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기증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2019- 2020년	기획전시	태권도, 겨루기와 성장하다	- 태권도가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을 국내·외 대표적인 겨루기 대회를 통해 조명 - 국내·외 주요 대회 메달과 상장, 기념품 등 - 온라인전시 서비스 제공
2020년	특별전시	우표 속 태권도의 흔적을 찾아서	- 2021년 도쿄올림픽 기념 특별전시 - 구입 및 기증을 통해 입수된 우표 중 올림픽 혹은 태권도와 관련된 소장품 전시 - 처음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서울올림픽부터 리우올림픽까지 발행된 우표들을 재편집해 전시 구성

연도	전시구분	전시명	내용
2021년	기획전시	무형문화재와 무예, 그 특별한 만남을 담다	- 2016년 전북 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전북 겨루기 태권도'를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인 택견과 활쏘기에 등에 관한 전시 - 무예가 가지는 문화재로서의 가치 조명
	특별전시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의 오늘과 내일을 그리다	- 창립 60주년 맞이한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기획
2022년	기획전시	백담에서 만난 부처님	- 만해기념관과 고려불교미술연구소의 교류 및 협력으로 진행 - 님의 침묵 초판본, 기증작품 천수천안, 칠성탱화 등 불교문화 관련 작품 총 33점 전시

출처: 2020-2022년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계획서

■ 지역연계 사진전시 개최

- 태권도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위치한 무주와 전라북도 지역과 연계한 테마 및 관련 문화예술인의 전시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함.
- 2019년, 〈아름다운 전북, 전북의 명소 사진전〉
 - 전북 사진공모전 당선작 전시
- 2020년, 〈시(詩)로 물드는 무주 사계〉
 -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와 무주사진가협회 자료를 활용한 작품 전시
 - 지역사회 연계 활동 추진

[그림 15] 박물관 내 사진전시 공간



2.4. 교육·체험 및 문화행사

1) 박물관 프로그램

■ 어린이 및 가족 방문객 대상 교육·체험·문화행사 운영

- 어린이(초등)·학교·청소년·가족 주 타겟층으로 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음. 전시 유물을 즐겁게 탐구,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교육과정 연계 및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함.

〈표 39〉 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용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2020년	로꾸꺼~ 태랑이랑 놀자	- 어린이 대상 동화구연프로그램 - 우리 문화와 태권도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기법(동화구연)을 활용한 체험 교육활동	유치원, 초등 저학년
	흥미진진, 태권도박물관 즐기기	- 주말 가족 체험프로그램	초등 동반 10가족
	교실로 온(ON) 우리는 태권도박물관 탐험대	- 학교 참여 창의체험프로그램 - 박물관 소장자료를 활용한 태권도 역사문화 이해학습 및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 단체
2021년	태권! 팔죽할머니를 부탁해	- 누리과정 연계 어린이교육프로그램	유치원, 초등 저학년
	달빛 아래 박물관 산책	- 박물관 야간개장 프로그램	성인
	신바람 태권! 박물관 한바퀴	- 상설전시 연계체험 프로그램	자녀동반 10가족
	우리 가족 박물관 한바퀴!	- 상설전시 자율관람 프로그램	자녀동반 20가족
	방과 후 태권! 박물관 체육시간	- 돌봄시설 희망나눔 프로그램	돌봄시설 단체
	청소년 진로탐색 체험프로그램	- 문화유산으로서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도	중·고등
2022년	비단 위에 그리는 연꽃	- 특별전시 연계 가족체험 프로그램	초등 동반 7가족
	박물관에 숨은 태권도를 찾아라!	- 어린이 단체 교육 프로그램	유치원, 초등 저학년
	흥미진진, 박물관 즐기기	- 상설기획 전시 주제와 연계	
	박물관미술관주간	- 주말 가족 교육프로그램	자녀동반 10가족
	문화나눔프로그램	- 태권도 체험기회 확대 및 문화서비스 제공	돌봄시설 연계
	태권도 수련생(청소년) 대상 체험프로그램	- 태권도 역사문화 탐구학습 및 퀴즈풀이 활동	태권도 수련 단체
	국제태권도사범 자격연수과정(WTA) 연계 박물관 산책	- 큐레이터 해설과 전통문화체험	국기원(WTA) 자격연수 연계
	지역사회 연계 협업프로그램 (시범운영)	-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업 - 청소년 문화유산지킴이로서 지 - 역의 문화유산 홍보, 해설 지원 및 봉사활동 시간 인정	초,중
	진로탐색 체험프로그램	- 공교육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 재단 및 박물관, 유관기관의 역할과 기능 소개 - 체육 분야 진로탐색 교육자료 제공	청소년

출처: 2020~2022년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계획서

■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대회 연계 프로그램 진행

- 2021년 국제태권도사범 자격연수과정(WTA) 연계 박물관 큐레이터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태권도 수련생 대상 학습 및 퀴즈풀이 활동을 실시함. 또한, 2022년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임.
-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전국체육대회 등 태권도 관련 행사개최 기간 중 애니메이션 상영과 체험 이벤트를 운영함.

■ 계절별 체험 이벤트 운영

- 봄, 가을 여행주간과 연계하거나, 여름, 겨울 방학기간에 맞춰 (상시) '태권! 부채 만들기', (주말) '태권! "꿈" 메달 만들기'를 운영함.

■ 지역 연계 협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민 대상 문화행사 실시

- 지역 문화예술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무주의 역사와 문화, 인물, 생태 등 다양한 분야별 기관의 하는 일을 현장 체험 교육활동을 운영함.
- 또한, 태권도원 개관 후 2016년에는 태권도원 홍보 차원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태권도원 목요상설 문화마당을 7월~9월 두 달간 매주 목요일 개최함.
 - 설천면 주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예술단체 공연을 진행하며 태권도원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2) 태권도원 프로그램

■ 태권도 관람, 체험, 수련, 시설 탐방 등 다양한 태권도원 프로그램 운영

- 태권도원은 태권도 시범 및 영상 공연, 격파 및 발차기 체험, VR·AR 접목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개별적으로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쉽게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일부 체험실은 유료로 운영되며, 이용시간 및 상영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음.

[그림 16] 태권도원 체험 및 수련 프로그램



출처 : 태권도원 홈페이지

〈표 40〉 태권도원 관람·체험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명 및 세부내용
관람· 체험	상설 태권도공연	- 「내 앞의 잠든 거인을 깨워라!」 - 태권도 기술과 국악 타악을 융복합한 시범공연 - 매일 11시, 14시 공연
	상설 체험 프로그램	- 도전! 으랏차차 태권도 기왓장 격파 (기본 동작 학습 및 격파) - ‘태권도 발차기’를 배우는 ‘미트 팡팡’ (기본 발차기 타격)
	태권도 체험실 (13종)	- 모션인식장치 이용 태권도 기본동작, 겨루기, 태권체조 체험 - 입장권 별도 유료 운영
	VR·AR 체험실 (4종)	- 가상 겨루기, 격파 체험 - 태권도원 투어 및 미션수행 체험
	영상공연실	- 태권도 애니메이션 “타이온과 태권 히어로즈” 상영 - 일 2회 무료 상영 (코로나로 운영중지)

- 또한, 태권도원은 체험형, 수련형, 활동형, 학습형 테마에 맞춰 세부 콘텐츠를 기획함. 주로 당일보다 1박 2일, 2박 3일 등 단체를 대상으로 숙박과 함께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세부 콘텐츠는 단순히 태권도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태권도를 국악, 체조 및 체육활동과 접목시키고 서예 등 한국 문화체험을 포함함. 또한, 태권도원 내 등산로를 탐방하거나 주변에서 수련 활동 등을 하며 태권도원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함.

〈표 41〉 태권도원 수련·체험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유형	콘텐츠명 및 세부내용
수련· 체험	체험형 (9종)	- 발차기 - 서예체험 - 일일국가대표 - 전자호구 체험(규칙, 전자호구 사용) - 태권도 기본자세 - 태권북 (태권도 타악퍼포먼스) - 태권트램폴린 - 힐링 태권체조 AT체험(Athlete Training)
	수련형 (7종)	- 겨루기 - 격파 - 자기방어 - 전통무예 수련 - 태권도 수련명상 - 태권힐링 테라피 - 품새
	활동형 (6종)	- 걸어서태권도원 (주요시설 탐방) - 공동체놀이 (팀별 미션 수행) - 레크레이션 - 체인지로트레킹(등산로 코스 트레킹) - 태권어드벤처 (태권도관련 미션 수행) - 태권티어링 (태권도 퀴즈)
	학습형 (3종)	- 리더십 실천마인드컨트롤 - 태권도원 특임 지도자 특강

■ 태권도 관련 진로체험, 수련 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회 제공

- 태권도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를 지원하거나 체험 콘텐츠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와 태권도 관련 진로탐색을 진행함.

〈표 42〉 태권도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유형	프로그램명 및 세부내용
진로체험	교육기부 진로체험	- 중학생 대상 교육기부 인증 진로체험 프로그램 - 강사지원 유형 - 태권도 직업군 이해, 태권도 기본기술, 자기방어 등 콘텐츠 운영
	진로체험버스	- 농산어촌, 구도심 등 문화체육활동 여건이 열악한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태권도원 진로체험	- 초·중·고등학생 대상 태권도 기관 견학, 직업군 체험 등 태권도 진로체험 프로그램 - 콘텐츠 비용 무료 - 걸어서태권도원, 태권도 직업군의 이해, 전자호구체험 운영

- 또한, 태권도원에서는 국가인증제도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인 ‘태권도원 청소년 인성 캠프’를 운영함. 자체적으로 기획한 수련·체험 프로그램 콘텐츠를 초, 중, 고등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제공함.
- 예절, 리더십, 공동체의식 등 인성행동을 체험하고, 개인별 인성행동 목표를 설정하여 향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성함양의 장을 마련함.

〈표 43〉 태권도원 청소년 인성캠프 세부내용

구분	대상	운영 세부내용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 ‘태권도원 청소년 인성캠프’	초등	- 1박 2일 숙박형, 60~100명 대상 - 입소식, 힐링태권체조, 태권어드벤처, 퇴소식 및 시범공연 관람
	중등	- 2박 3일 숙박형, 60~500명 대상 - 입소식, 태권도기본자세, 힐링태권체조, 태권어드벤처, 공동창의 및 발표, 웃음한마당(축제), 퇴소식 및 시범공연 관람
	고등	- 2박 3일 숙박형, 60~100명 대상 - 입소식, 태권도기본자세, 힐링태권체조, 태권어드벤처, 공동창의 및 발표, 웃음한마당(축제), 퇴소식 및 시범공연 관람

[그림 17] 태권도원 진로체험 및 청소년 인성캠프



2.5. 공간 및 시설

1) 박물관 입구

■ 태권도원 초입에 위치함에도 박물관 안내 및 자유로운 이용에 한계

- 태권도원 내 다양한 시설 중 일부에 해당되는 박물관은 단독으로 안내 및 홍보되기 보다, 태권도원만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박물관은 출입구를 지나 태권도원 매표소, 주차장 근처에 위치함. 박물관 이용료는 무료임에도 매표소에서 상설체험 콘텐츠 이용, 상설시범공연 관람 등이 가능한 입장권을 구매해야 함.

[그림 18] 태권도원 내 박물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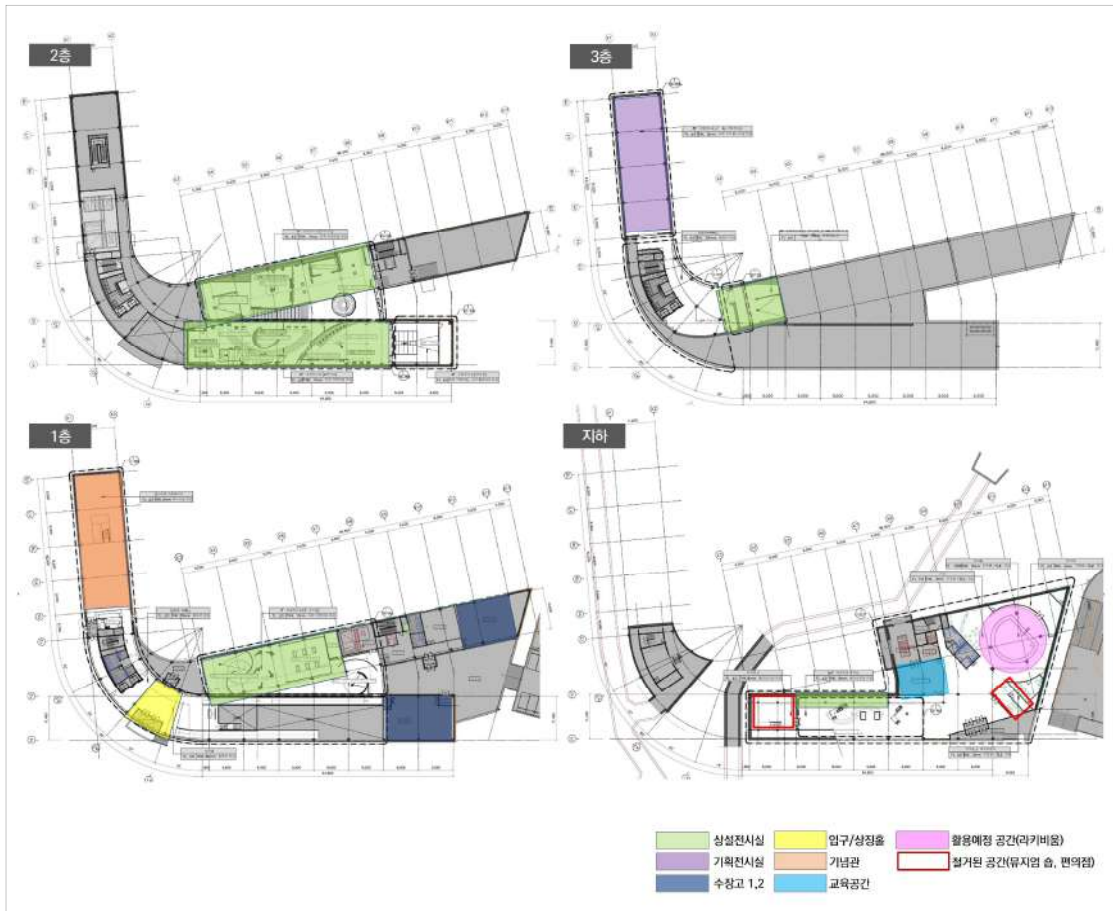


[그림 19] 태권도원 야외 안내 및 차량 진입 출입구 매표소



출처 : 장애인문화관광센터

[그림 21] 국립태권도박물관 도면 - 공간 활용 현황(2022년 6월)



출처: 박물관 내부자료. 연구진 재구성.

3) 전시실

■ 슬로프 구조 및 불편한 관람 동선으로 전시공간의 비효율적 운영

- 상설전시실은 3층에서부터 시작되어 1층으로 내려오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슬로프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벽면을 따라 전시가 구성되어 있거나, 나선형 구조물 등 통과하여 관람하고 다시 돌아서 나오는 방식으로 전시 및 영상매체를 구성함. 또한, 기둥 등 건축 구조상 관람 동선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한 경우가 있음.

[그림 22] 전시실 구성 및 연결 구조



4) 교육 및 체험공간

■ 박물관 규모대비 작은 규모의 학습실

- 전체적으로 전시를 위한 공간이 여유있게 마련되어 있으나, 전시관람 외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은 학습실 1개만 있음. 이 또한, 1층 로비 아래 반 지하이며, 기계실 옆에 위치해 있어 학습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 박물관 내 활용되지 않는 공간을 적극 검토하거나, 박물관 야외 공간을 활용하여 많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태권도원 내 다른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박물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공간 활용을 확장해야 함.

[그림 23] 학습실 공간



■ 계획수립이 필요한 미활용 공간 산재

- 코로나로 인해 박물관 운영이 제한적이고 방문객이 감소하여 박물관 내 뮤지엄샵 운영을 중단함. 이 공간은 1층 로비 반층 아래에 위치하여 다른 박물관 출입구와도 연결되는 곳으로 박물관을 인지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함.
- 사진전이 개최된 공간 뒤편으로 과거 휴게공간(수유실) 등이 위치한 공간도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되어 있음. 또한, 역사관 내부 일부 공간, 통로 휴식 공간 등 박물관 내 다양한 공간에서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려해야함.

[그림 24] 박물관 내 미활용 공간



5) 시설

■ 개관 이후 사용 중인 영상 장비 및 관람 시설의 노후화

- 상설전시실에는 프로젝터, TV, 터치패널, 영상플레이어 등 다양한 영상장비가 비치되어 있지만, 2013년 준공 이후 교체 없이 사용 중임.
-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유지하고 있으나, 다양하고 최신의 전시 방식을 보여주도록 기기 업데이트 및 신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함.

[그림 25] 전시실 내 터치식 영상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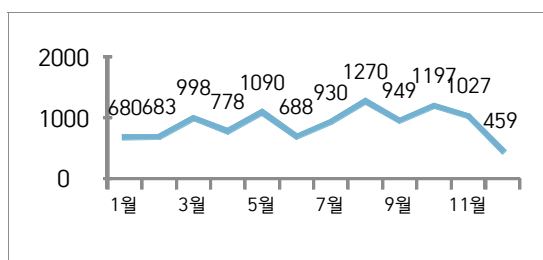


■ AI 로봇 도슨트 서비스 구축

- 2021년부터 AI 로봇 큐아이를 비치해 관람객에게 전시 해설 및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다국어(한/영/중/일) 전시 해설 및 이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전시 관람 환경을 조성함.
- 특히, 큐아이는 자율주행으로 안내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부족한 박물관 도슨트 및 안내 인력 대체제로의 가능성을 보여줌.
-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배치 및 관람객 응대 인력 확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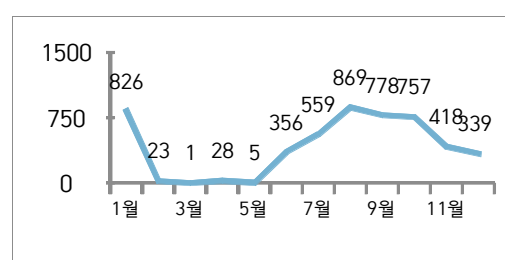
[그림 26] 2021년 AI 로봇 이용서비스 통계

인공지능 대화서비스 월별 이용통계
(누적 : 10,749건)



출처 : 박물관 내부자료

문화해설 서비스 월별 이용통계
(누적 : 4,959건)



3. 국립태권도박물관 조직영역 분석

3.1. 조직 및 업무체계

■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직속 부서 개념의 박물관

- 박물관은 태권도진흥재단 직제규정 상 사무총장 직속임. 태권도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는 박물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며, 2022년 1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1급 정학예사 자격을 갖춘 현 관장이 취임하여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박물관 업무에 있어 박물관 전시 기획 및 운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업무는 사무총장이 전결권을 갖는 구조임. 하지만 그 외 학술연구 사업,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박물관 전시 기획 및 운영 세부 계획 및 시행 등은 박물관장에게 전결권이 있어 독립적인 사업 수행능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7] 태권도진흥재단 조직



출처 : 태권도진흥재단 홈페이지

■ 박물관 업무를 포함한 공통적인 재단 업무

-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운영관리 및 학술연구 업무를 담당함.
 - 태권도 역사 보존을 통한 계승 사업 관련 업무, 유물 수집 및 관리, 유물 및 자료 기증자 예우, 태권도 및 무예 학술연구 기획 및 자료집 발간, 태권도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박물관 자료실 운영 관리, 박물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박물관 전시 해설 등이 포함됨.
- 하지만, 박물관 업무 외에도 태권도진흥재단 업무 협업 및 재단 사업 협조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함.

3.2. 인력운영 및 업무분장

■ 학예업무 담당 중간관리 및 전반적인 학예 인력 부족

- 현재 전시/소장품/교육/연구 등 업무별 담당 학예사는 1명으로 업무 내용에 비해 배정된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박물관 업무 외 태권도진흥재단 업무 협업 및 재단 사업 협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구조 상 인력을 보충해야함.
- 특히 학예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개념의 중간 관리직급이 없어 관장과 학예사 사이에서 의사결정 및 중간 조율을 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 필요함.

〈표 45〉 박물관 정원 및 현원

	계			실장·본부장 (1~급)	실장·부장 (4급 이상)	부서원				
	계	정규	무기			정규직				무기
						차장	과장	대리	주임/사원	
정원	8(1)	5(1)	3	(1)	-	-	1	1	3	3
현원	6(1)	4(1)	2	(1)	-	-	1 (육아휴직)	1	2	2 (육아휴직1)

출처: 국립태권도박물관 직제규정 시행세칙(2022.04.07.) 및 내부 파악자료(2022.08.18.)

〈표 46〉 박물관 조직 및 업무 현황

분야	세부분야	담당업무	인력 구성		
			임기제	정규직	계약직
총괄		- 국립태권도박물관 업무 총괄	1		
행정	중장기/평가/ 연구	- 예산수립 및 사업계획, 박물관 중장기 사업 기획 -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기관경영평가 등 평가지표 관리 - 규정 관련 업무 -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 태권도진흥재단 발자취 발간		4 (육아휴직)	
	박물관 일반운영	- 박물관 전시해설 운영 - 박물관 영상장비 유지관리 및 전시실 관리 - 박물관 웹사이트 운영·관리		1	1 (육아휴직)
학예	라키비움	- 라키비움 사업 총괄 및 사업 지원 - 박물관 홍보·행사		1	4 (퇴사)
	교육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태권도 단체 소장자료 목록화 사업 지원		4 (퇴사)	
	소장품 관리	- 박물관 소장품 관리, 박물관 수장고·자료실 운영		1	
	전시	- 박물관 전시(상설·특별) 및 박물관 서무		1	
	조사·연구	- 박물관 관련 조사·연구 - 박물관 전시·교육·소장품관리 지원		1	
총 인원			1명	7명	2명

출처: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결과보고서 및 직제규정

■ 휴직 및 퇴사로 인한 절대적인 박물관 인력 부족

- 2022년 8월 18일 현재 기준, 관장 제외 박물관 인력은 육아휴직 인력 제외 총 5명임. 현재 학예연구사(2급 정학예사) 및 기간제 박물관 운영 보조인력 채용 모집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박물관 정원 내 인력을 확보할 계획임.

■ 업무에 따른 직급체계 운영

- 현재 박물관 인력의 직급체계는 재단 직제규정에 명시된 대로 과장, 대리, 주임/사원 등으로 구분됨. 학예, 행정 등 담당업무에 따른 박물관 직급체계의 반영이 필요함.

■ 재단 자회사를 통한 박물관 일반 운영 구조

- 박물관은 태권도진흥재단 산하로 박물관 소속 행정 및 학예인력은 재단 직원임. 하지만 박물관 운영 관리는 재단 자회사인 태권도원운영관리(주)에서 담당 인력을 채용 및 관리함.
 - 재단 외 박물관 인력 채용 및 운영을 별도 조직에서 담당하는 점은 향후 박물관 시스템 내로 이관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소속의 상근 시설관리 인력 부재

- 현재 태권도진흥재단 내 태권도원 관리하는 시설관리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박물관 소속으로 한정되어 상시 근무하는 시설관리 인력은 없음. 이에 박물관 행사 및 별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재단 내 타 부서의 업무협조를 요청해야 함.

■ 정기적인 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집 한계

- 박물관 및 태권도원 행사가 있을 경우, 1365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지만 무주군 내에서 인력을 모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원거리에서 모집해야하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자 대상 5명 내외를 선발하여 주 1~2회 근무하게끔 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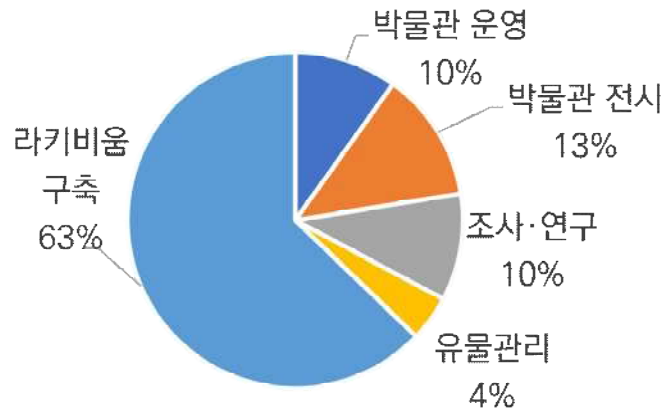
3.3. 예산

■ 한시적으로 라키비움 구축에 편중된 예산 집행

- 박물관 예산 중 박물관 주요 사업인 라키비움 구축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는 전시 구축 및 운영 관련 항목이 많음.
- 유물관리를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 및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시 주제 보완 및 업데이트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태권도 박물관은 조사·연구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 평가인증 과정에서 낮은 평가와 지적을 받음. 이에 2022년 조사·연구 관련 예산을 확보함.
 - 사업별 적절한 예산 배정 및 집행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됨
- 2020년과 2022년의 경우, 라키비움 구축 관련 사업 예산 중 연장기금으로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많은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28] 2022년도 박물관 사업별 예산 비율



〈표 47〉 박물관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22 증감율
태권도 진흥 기반 조성	박물관 운영	129,200	129,200	120,000	158,000	24%
	전시	127,300	262,300	120,000	200,000	40%
	태권도 조사·연구	-	-	-	104,000	-
	태권도 관련 유물관리	51,500	51,500	68,000	70,000	3%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액 사업	30,000	80,000	-	-	-
태권도 교육·연구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500,000	660,000	500,000	1,000,000	50%
국제체육 교류 지원	남북 태권도 교류	-	150,000	-	-	-
총계		838,000	1,333,000	808,000	1,592,000	49%

출처 : 2019-2022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계획서

제2절 국립태권도박물관과 국공립박물관 현황 비교분석

1. 비교분석 개요

- 현 국립태권도박물관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21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내 국공립박물관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함.
 - 문화기반시설 운영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데이터로 기준시점은 2021.1.1.임.
- 전체 국공립박물관 중 국립태권도박물관과 비슷한 공간 규모(면적)를 보유한 박물관을 선별하였고, 그 중에서 기념관 및 전시관은 제외함. 그 결과, 총 23개 박물관이 비교분석에 활용됨.
 - 국립박물관 13개(태권도박물관 포함), 공립박물관 10개로 구성
- 박물관의 공간 및 관람객 현황, 소장품 및 박물관 활동 현황, 인력 현황을 비교하며 앞으로 국립태권도박물관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정리함.

2. 비교분석 결과

■ 상대적으로 준수한 수준의 전시실 규모 대비 현저히 부족한 교육실과 편의시설

- 박물관 공간은 상설 및 기획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자료실 등 박물관 주요 기능적 공간의 규모를 살펴봄.
- 상설전시실의 경우, 별도의 기획전시실이 별도로 없는 무주곤충박물관이 가장 넓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립전주박물관이 3,450㎡로 넓은 규모를 보유함. 국립태권도박물관은 1,939㎡로 10번째로 넓은 규모의 상설전시실을 보유함.
- 기획전시실은 국립대구박물관(1,037㎡), 국립한글박물관(950㎡)이 큰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태권도박물관은 9번째로 넓은 규모이나 국립한글박물관의 절반정도임.
- 수장고는 2022년 조성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제2수장고 면적이 포함되지 않아 225㎡로 집계되었고, 이는 18번째로 작은 규모에 해당됨. 다른 박물관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 국립박물관이 큰 규모를 보유함.
 - 제2수장고 면적 201.91㎡가 합산될 경우, 총 수장고 면적은 426.91㎡로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 다음인 15번째 규모에 해당됨.
-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한 공간인 교육실은 23개 박물관 중 20번째로 상당히 작은 규모의 교육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됨. 가장 넓은 교육실을 보유한 국립부여박물관(1,335㎡)은 어린이박물관내 세미나실(컨벤션홀)에서 최대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 21번째로 작은 교육실을 보유한 국악박물관은 전시해설 프로그램은 전시실에서 진행하고, 그 외 교육 프로그램은 국악원 내 국악연수관과 공연연습장 등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국립태권도박물관은 문화상품점(박물관 기념품 숍)과 매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은 6개 박물관 중 하나임. 모두 보유한 박물관은 13개, 문화상품점만 보유한 곳은 16개로 파악됨.
- 국립태권도박물관 내 기념품 숍과 매점(편의점)과 존재했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박물관 휴관 등으로 2022년 편의시설이 철거되었음. 그러나 박물관이 위치한 태권도원 내 가까운 시설 안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안내와 정보제공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임.

■ 중간 수준의 연/일 관람객 현황 보유

- 연 관람인원과 일 관람인원은 모두 전북에 위치한 국립익산박물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각 417,527명과 1,979명). 국립태권도박물관은 10번째, 11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국립나주박물관을 제외하고 지역 국립박물관 다음으로 관람객이 많음.
- 다만, 관람객 현황은 태권도박물관 관람객뿐만 아니라 태권도원 방문객과 합쳐져 카운트된 결과이므로 향후 박물관 자체적인 관람객 현황 체크 및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울 1개(국립 한글), 충청도 2개(국립 부여, 국립 공주), 경상도 2개(국립 대구, 국립 진주, 국립 등대), 전라도 2개(국립 익산, 국립 전주) 박물관이 태권도박물관보다 현저히 많은 관람객을 보유함.

■ 적은 소장품 수 및 낮은 유물관리시스템 등록 현황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전체 소장품 및 소장자료의 수가 전체 23개 박물관 중 19번째로 10,029점을 보유함. 이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이나 무주곤충박물관과 비슷함.
- 또한, 유물관리시스템 등록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 국립박물관은 100% 등록되어 있으나, 국립태권도박물관은 3,143개가 등록되어 등록율이 31%로 낮은 편에 속함.

■ 적은 수의 체험 및 강좌 프로그램 운영

- 정기적으로 2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정기 체험이 있는 지역의 국립박물관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국립박물관 중 고양어린이박물관은 23개의 정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국립태권도박물관은 비정기체험이나 강좌, 답사 등 다른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학예인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인력 부족

- 전시, 조사연구, 소장품 관리, 교육 등 박물관의 고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학예

인력이 국립태권도박물관에는 총 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7명 이상 보유한 지역 국립박물관 대비 절반 이하의 규모임.

- 일부 국립박물관은 비정규직 학예인력도 평균 20명 채용하여 운영함.

- 학예인력뿐만 아니라, 일반직 인력도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적은 수를 나타냈으며,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타 국립지방박물관 대비 현저히 적은 박물관 운영 예산

- <표 4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21년 기준 태권도박물관 운영 예산 총액은 1,592,000천원이며, 라키비움 예산 1,000,000천원을 제하면 전체 박물관 운영 예산은 592,000천원임을 감안했을 때 타 국립지방박물관 대비 국립태권도박물관 예산은 매우 현저히 적은 수준임.
- <표 51>에서 제시된 8개 국립지방박물관 항목별 예산 현황과 태권도박물관 예산 현황 비교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정확한 액수로 규모와 차액 분석이 어려우나, 박물관의 고유활동 영역별 예산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태권도박물관의 예산 규모가 박물관 활동 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비한 규모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박물관 예산 각목명세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예산지출항목 즉, ‘유물 수집, 보존 및 학술조사 연구’,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및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 등 박물관의 주요활동 영역별 예산의 확보 방안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표 48〉 국공립박물관 비교 분석 1. 공간 및 관람객 현황

박물관명	등록연월	공간 규모 (㎡)					편의시설 여부		연개관일 및 관람인원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교육실	자료실	문화상품점	매점	연개관	연관람인원	일관람인원
국립한글박물관	2013.10.18	1,240	950	969	378	220	○	○	175	104,348	596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2015.05.01	718	300	244	98	487	x	x	134	14,180	106
국립등대박물관	1993.03.25	2,481	148	507	180	118	x	x	206	77,795	377
국립산악박물관	2015.11.03	539	481	194	113	39	x	x	204	35,150	172
국립공주박물관	2016.03.16	1,605	560	4,564	419	60	○	○	219	114,225	522
국립대구박물관	2012.12.05	1,607	1,037	3,216	648	32	○	○	216	277,887	1,287
국립부여박물관	2012.12.05	1,929	404	1,287	1,335	82	○	x	219	141,836	648
국립나주박물관	2013.10.18	2,746	360	2,517	626	83	○	○	226	36,818	163
국립진주박물관	2016.03.16	1,281	787	1,197	361	76	○	○	176	100,903	573
국립제주박물관	2013.10.18	1,639	327	1,113	702	108	○	○	208	83,724	403
국립익산박물관	2019.03.07	2,639	357	1,512	67	134	○	x	211	417,527	1,979
국립전주박물관	2016.03.16	3,450	327	1,376	477	375	○	x	230	94,982	413
국립태권도박물관	2014.12.29.	1,939	443	225	102	202	x	x	188	67,776	361
무주곤충박물관	2017.03.20	3,525	-	128	-	-	x	x	226	59,894	265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	2004.06.01	2,667	183	476	425	152	○	○	310	51,303	165
서울생활사박물관	2020.11.03	1,956	272	480	280	-	○	○	162	25,531	158
부산영화체험박물관	2017.08.23	2,228	448	199	323	-	○	○	243	28,542	117
고양어린이박물관	2016.11.30	1,767	181	115	352	32	x	x	124	44,246	357
경기도박물관	1992.11.23	1,935	523	588	760	185	○	○	93	8,044	86
경기도자박물관	2003.02.28	1,411	324	361	163	146	○	○	159	10,554	66
수원박물관	2008.12.16	1,356	327	743	351	135	○	○	211	12,432	59
한국만화박물관	2008.07.16	1,782	317	242	577	816	x	○	138	33,555	243
강원도 DMZ박물관	2009.07.07	2,144	705	192	1,169	-	○	○	116	62,890	542

〈표 49〉 국공립박물관 비교 분석 2. 소장품 및 활동 현황

박물관명	소장품 수		자료·도서실 소장자료	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유물	상설전시 자료	지정 문화재	횟수 (연 회수)		운영 프로그램				
	건	점					상설전시교체	기획/특별전	총계	강좌	정기체험	비정기체험	답사
국립한글박물관	24,606	75,089	25,142	3,521	462	○	4회	4회	17	1	15	1	-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6,288	27,622	도서 23,953 비도서 53,120 특수자료 15,000	27,658	193	○	1회	1회	10	10	-	-	-
국립등대박물관	20,320	20,320	3,722	3,913	416	x	x	x	11	1	5	4	1
국립산악박물관	5,448	14,947	3,228	15,049	183	x	1회/5년	2회	24	2	14	7	1
국립공주박물관	98,847	276,403	28,000	276,403	5,972	○	x	2회	22	4	10	8	-
국립대구박물관	227,859	309,961	13,735	309,961	1,818	○	12회	5회	5	1	2	2	-
국립부여박물관	63,145	85,266	27,593	85,266	11,364	○	5회	2회	16	5	7	4	-
국립나주박물관	22,836	29,415	9,250	29,415	1,407	○	4회	2회	23	1	22	-	-
국립진주박물관	90,260	109,580	29,000	109,580	916	○	3회	2회	41	5	19	16	1
국립제주박물관	27,148	46,764	27,730	46,764	1,004	○	비정기적	3회	26	4	4	17	1
국립익산박물관	22,176	24,429	10,353	24,429	2,623	○	4회	3회	5	2	-	3	-
국립전주박물관	65,354	79,279	33,042	79,268	2,154	○	26회	2회	2	2	-	-	-
국립태권도박물관	5,467	10,029	10,427	3,143	402	x	2회	2회	2	-	2	-	-
무주곤충박물관	-	9,700	-	1,200	8,500	x	1회	x	1	-	1	-	-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	48,530	48,530	8,000	8,609	2,937	○	10회	4회	15	1	9	4	1
서울생활사박물관	3,927	10,587	-	2,492	1,381	x	1회	2회	11	1	9	-	1
부산영화체험박물관	86,967	91,968	-	-	18	x	x	2회	4	1	2	1	-
고양어린이박물관	108	57	-	157	-	x	x	1회	37	-	23	14	-
경기도박물관	13,013	18,505	29,155	18,505	3,696	○	2회	3회	14	2	9	3	-
경기도자박물관	3,940	3,940	6,229	3,940	208	○	2회	2회	45	24	6	12	3
수원박물관	30,743	38,735	50,590	38,735	667	○	1회	2회	7	3	2	2	-
한국만화박물관	23,596	169,977	299,492	134,073	246	○	1회	5회	6	2	2	2	-
강원도 DMZ박물관	-	6,787	-	6,530	1,100	x	1회	2회	3	-	3	-	-

〈표 50〉 국공립박물관 비교 분석 3. 인력 현황

박물관명	학예인력					일반인력				자원봉사자
	학예직 총원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공무원	비정규직	일반 공무원	일반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국립한글박물관	18	4	14	-	29	22	22	-	-	68
국립국악박물관	3	1	2	1	2	1	1	-	-	-
국립등대박물관	3	-	3	-	-	-	11	-	4	-
국립산악박물관	7	-	7	-	-	8	8	-	-	6
국립공주박물관	8	2	6	-	34	20	-	25	-	14
국립대구박물관	9	1	8	1	40	15	-	27	-	-
국립부여박물관	8	2	6	1	23	13	-	24	-	3
국립나주박물관	7	2	5	1	19	15	-	29	-	2
국립진주박물관	6	1	5	1	20	13	-	25	-	28
국립제주박물관	7	2	5	2	12	15	-	20	-	39
국립익산박물관	6	2	4	1	6	14	-	22	-	-
국립전주박물관	10	3	7	1	21	19	-	30	-	22
국립태권도박물관	2	-	2	-	-	-	5	1	-	-
2022년 8월 현재	3	1(관장)	2	-	-	-	2	-	-	-
무주곤충박물관	-	-	-	1	-	-	5	4	-	4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	5	1	4	-	-	8	-	8	-	-
서울생활사박물관	4	1	3	2	2	3	29	8	-	12
부산영화체험박물관	1	-	1	-	4	-	18	-	3	36
고양어린이박물관	-	-	-	-	15	-	-	15	-	1055
경기도박물관	11	-	11	-	-	-	31	9	-	-
경기도자박물관	6	-	6	-	11	-	10	3	-	392
수원박물관	3	-	3	7	9	10	-	4	-	55
한국만화박물관	3	-	3	-	-	10	1	1	3	15
강원도 DMZ박물관	2	1	1	-	-	7	-	-	-	-

〈표 51〉 2021년 국립지방박물관 예산세출 비교 - 박물관 활동 중심

단위: 천원

박물관명	일반수용비	1) 유물수집보존	2) 전시/문화교육	3) 시설관리	브랜드육성/협력망*	브랜드 육성	스마트박물관	협력망 강화
국립전주박물관	512,761	217,000	295,761	0	362,516	263,015	86,701	12,800
국립부여박물관	337,930	48,675	188,756	100,499	152,000	118,000	30,000	4,000
국립대구박물관	491,513	110,447	349,194	31,872	605,000	465,000	60,000	80,000
국립제주박물관	372,651	40,928	211,725	119,998	605,000	465,000	60,000	80,000
국립진주박물관	392,356	79,532	231,450	81,374	605,000	465,000	60,000	80,000
국립공주박물관	627,021	26,021	297,000	304,000	490,000	381,000	20,000	89,000
국립나주박물관	162,662	36,597	83,517	42,548	542,000	382,000	75,000	85,000
국립익산박물관	298,149	25,000	122,889	150,230	576,000	406,000	90,000	80,000
박물관명	일반운영비	1) 유물수집보존	2) 전시/문화교육	3) 시설관리				
국립전주박물관	60,000	0	60,000	0				
국립부여박물관	360,000	0	360,000	0				
국립대구박물관	586,000	36,810	525,221	23,969				
국립제주박물관	350,000	15,657	334,343	0				
국립진주박물관	575,900	238,400	174,000	163,500				
국립공주박물관	538,000	11,000	30,000	15,000				
국립나주박물관	183,400	92,000	91,400	0				
국립익산박물관	168,000	50,000	109,000	9,000				

1) 유물 수집, 보존 및 학술조사 연구: 소장품 관리, 보존처리 및 학술보고서 발간 등

2) 전시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상설전시 운영, 특별전시 개최, 어린이박물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행사, 박물관 협력체계 강화 등

3) 시설관리: 안전교육 등의 직무교육, 모니터링 등

* 〈지방박물관 브랜드 육성 및 협력망 강화〉(일반수용비 내 p.101): 1) 브랜드 육성(기획전시 운영, 운송/학술조사 운영), 2) 스마트박물관 구축(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운영), 3) 협력망 강화(공동행사 운영 등)

출처: 2021년도 국립박물관 예산 각목명세서.

제3절 박물관 관계자 의견수렴

1. 의견수렴 개요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

- 국립태권도박물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함. 참여자 간 자유로운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비구조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관계자 의견수렴은 심층 인터뷰와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어, 원활한 의견수렴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직급별로 인터뷰 그룹을 조직하여 추진하였음.
 - 관장 인터뷰는 목표, 기능, 구조로 질문을 구성하여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파악하도록 하였음.
 - 학예 및 행정 담당자 FGI에서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의 기존 현안과 이슈를 수집하고, 향후 박물관의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함.

〈표 52〉 관계자 의견수렴 개요

구분	내용	세부내용	
심층 인터뷰	조사대상	6/21일(화)	국립태권도박물관 관장
	조사내용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 국립태권도박물관 목표(비전) 관련 주요 이슈 - 국립태권도박물관 구조(조직) 관련 주요 이슈	
담당자 FGI	조사대상	6/22(수)	국립태권도박물관 학예 및 행정 담당자
	조사내용	- 연구 추진 방향 및 세부 연구 내용 공유 -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둘러싼 기존 현안 및 이슈 수집 - 향후 박물관 제안사항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서면의견	조사대상	8/8(월) ~8/13(토)	국립태권도박물관 임직원
	조사내용	- 1차 중장기 과제(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 - 과제 우선순위, 박물관 활동영역별 방향 및 과제 관련 의견 - 조직 구조, 지역 연계 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2. 박물관 임직원 의견수렴

2.1. 관장 심층인터뷰

1) 국립태권도박물관 목표(비전)

■ 국립 및 전문테마박물관으로서의 전문성

- 인터뷰 결과, 박물관 설립 목적과 소장 유물, 태권도 분야에서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 등을 바탕으로 박물관의 방향성 및 정체성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국기(國技) 태권도의 특성을 살린 조사연구와 전시로 미래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태권도의 인문과학적인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지향하는 국립 및 전문테마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음.
- 태권도 역사 확립과 가치 전파라는 비전을 갖고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는 조사연구,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되는 상호연계성이 부재한 상황임. 각 영역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여 태권도 역사와 문화의 중심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슈가 확인됨.

- 취임 당시 개인적으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구체적인 목표는 ‘국기(國技) 태권도의 인문과학적 연구와 전시로 태권도 현재와 미래를 제시한다’에 해당함. 인문과학적인 태권도의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태권도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전시, 조사연구, 책자 발간,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 국제적인 마케팅을 통한 포지셔닝

- 태권도라는 메인 테마를 국내로만 한정 짓는 것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외의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인지도 및 존재감 향상을 위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됨.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위상은 국립한글박물관과 같은 레벨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국제적인 브랜드 ‘한글’과 ‘태권도’는 세계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며 또한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임. 지금 태권도박물관의 외관상 규모는 국립한글박물관과 같은 크기이나 예산, 조직과 체계는 그에 비해 미비함. 이러한 방향이 중장기 발전의 표본으로 설정될 필요성이 있음.

- 태권도라는 메인 테마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마케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특별전의 경우,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태권도 주제를 선정해야 하며,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 시민의 문화적 향유와 밀접한 공간으로서 무주에서 나아가 전라북도의 역사와 문화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박물관으로서의 지역 내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무주군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 박물관으로 위상이 공고해지는 것이 필요함.
-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소통과 참여, 협업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위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지금까지의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이 취약한 상황임. 대외협력을 통해 사회적 인지도를 확장하고, 넓은 맥락에서의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 무주군에 국한하기보다는 전라북도 무주군이라는 특성에 입각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지금까지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와 소통이 활발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하고, 전시도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함.

■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넓은 맥락에서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이지만 대외적인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됨. 국립태권도박물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고, 방문하기에 물리적인 접근성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이는 방문하더라도 재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됨. 국립태권도박물관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통합적으로 브랜딩하여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도시인 전주에서도 박물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도시는 대전이지만 지정학적인 위치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함. 방문하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하며, 자차로만 가능한 상황임.

- 현재 박물관만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단체는 없는 상황임. 무주군 내에서도 태권도원 이정표는 있으나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없는 상황임.

- 박물관은 무료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원 입장료(성인기준 4,000원)를 내야 해야 하는 상황임. 태권도원과 연계되는 박물관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 국립태권도박물관 기능(사업) 관련 주요 이슈

■ 소장유물 기증

- 국립박물관으로서 유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지만 기증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기본방향에 맞는 기증 유물수집과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유물 관리임. 유물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올해는 힘든 부분이 있었음. 내년에는 전국민적 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 1세대 태권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수집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방향에 해당함.
- 기증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그동안 한 번도 있던 적이 없어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예산을 확보하여 기증자 예우에 대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영역의 방향성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조사연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태임을 파악함. 이는 평가인증제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며,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유기적인 프로세스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를 위한 정량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조사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됨.
-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한 기획전시가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기획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전시 이후 관련하여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박물관의 주요 관람객인 자녀 동반 성인가족을 비롯하여 보다 폭넓은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여러 대상들 중에 특히,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함.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이는 기존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창의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보다 박물관을 일상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브랜딩하는 것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성이 있음.

- 목표(비전) 수행은 사업(전시, 조사연구, 책자 발간, 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조사연구 보고서의 경우, 연 1회 발간 정도가 필요하며, 특별전의 경우, 연 3회 정도 개최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함. 특히, 평가인증제에서도 중요한 지적 사항인만큼 조사연구의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태권도 도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흥미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요구되는 상황임.
-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캠핑과 교육의 접목도 있을 수 있음.

■ 공간 활용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경우, 물리적인 위치의 접근성 제약 및 유물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즐거운 공간으로의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 전체적인 전시공간의 구조를 변경하여, 유물구입과 전시가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를 위해 공간 리모델링과 관련한 예산 수립을 신청해놓은 상태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물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은 라키비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음. 이를 통해 기존 박물관의 고유 기능에서 확장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기대 요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키비움을 통해 보다 즐거운 공간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지만 태권도원 체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도서관과 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운영 및 방문객 감소로 인해 편의시설이 유희공간화 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문화공간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방안의 공간 활용 운영이 필요함.

- 전시공간을 보다 재밌는 공간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공간 같은 경우, 32억 정도의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임. 시스템이 노후화된 것이 많고, 전시 관련된 인물이 너무 없다는 평가 및 지적을 많이 받아왔음. 이런 부분까지 모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으나 전시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필요함. 이를 위해 태권도 역사 유물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조사연구 사업을 작년 2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1-2개 진행을 한 상태임. 유물구입, 특별전, 기획전, 상설전시의 큰 연결 흐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임. 규모가 커서 실제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부라도 반영이 된다면 타당성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 태권도의 역사가 대외적인 이미지에 비해 다소 짧다 보니 실질적으로 유물이 잘 없는 상황임. 이것은 박물관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 자체가 빈약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래서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박물관으로서의 공간 구성이 필요한 상황임.
- 라키비움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종합적인 기능을 하기를 기대함. 세 가지의 기능을 공간 섹션으로 구분하는 의견을 갖고 있음. 박물관 규모는 매우 크지만 이에 비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편임. 박물관이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태권도원 내 체험관이 많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상황이 생김. 따라서 더욱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며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어린이(교육청 관련 교육 대상)뿐만이 아닌 일반 관람객들도 편하게 와서 접근하며,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이 되어야 함. 태권도원 숙박객들이 보다 쉽게 밤 시간대에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함(무인 시스템 구축 등).

- 방문객 수가 회복되는 경우, 편의시설은 다시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박물관 내 편의시설을 다시 확충하는 계획은 현재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소 되었던 방문객 수가 다시 회복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뮤지엄샵 경우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전시 공간 등)을 고민 중에 있음. 따라서 라키비움이 제대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국립태권도박물관 구조(조직)관련 이슈

■ 조직구성 방향성

- 재단 내에서 국립박물관에 알맞은 조직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박물관 조직에 맞는 직급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무지의 위치 선정 또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독립기관으로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확인함. 이에 따른 조직 재구성과 박물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인증제에서도 언급된 내용들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임. 문화체육관광부 직영으로 운영된다면 현재 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방향이 옳을지에 대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존재함.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사무실 위치가 박물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업무 대응 및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더 유용한 방향으로의 제시가 필요함.
- 대외적으로 문서를 발급할 시, 태권도진흥재단으로 나가고 있음. 박물관 명칭으로 공식적인 문서가 보내지는 것이 맞을 듯함. 박물관 관련 직급 또한 신뢰도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현재는 주임, 대리, 과장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박물관 인력 확보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각 영역당 1명인 상태로 추가 채용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태권도진흥재단 내에 소속되어있는 구조로 인해 업무 관련한 추진 프로세스에 있어 번거로움이 다소 존재하고 있음.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력 채용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함.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립기관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박물관 인력을 확대 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자원봉사 같은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박물관 변화 및 기술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업무 중복 및 사전 조율, 협조 요청에 대해 번거로움이 존재함.
- 평가인증제 상에서 조사연구 사업의 빈약성이 중요하게 지적됨에 따라 관련 인력 채용을 진행한 상황이며, 하반기에는 전시 기능 강화 측면에서 대리급 학예사를 1명 더 채용할 예정임. 전시의 횟수보다는 질적인 깊이가 중요한 상황임.
- 현재 재단 자체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인력 충원은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나 하반기 1명 외에는 충원 계획이 추가적으로 없는 상태임. 현재 박물관은 현장, 학예, 행정 파트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임.
- 박물관 자원봉사의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이용하여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 관광객 및 관련 대회가 있을 경우 무주군 관광 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음. 현재 박물관 자원봉사는 인근 주민 및 봉사 실적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들이 주로 신청하며, 학교 졸업 및 취업 시 유리하게 작용되어 대학생 위주로 호응도가 있음. 박물관 위치상 접근이 어려운 지역인 것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국립태권도박물관이 확인만 해주는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음.

2.2. 박물관 직원 FGI

1) 국립태권도박물관 기능(사업)

■ 기존 전시 운영 방식 및 향후 변화 계획

- 상설, 기획 전시 등 전시업무를 담당함. 상설 전시에 대한 유물 교체 및 기증 유물을 검토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함. 유물 컨디션에 따라 교체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기획, 특별전시는 주제에 따라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기획하는 경우가 있음. (예: 태권도 유관기관 연계 전시)
- 과거 연간 기획전시 1회, 특별전시 1~2회 진행되었으나 현 관장 취임 이후 방향성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기획, 특별전시 모두 현 기획전시 공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전시실 구조로 인한 한정적 전시

- 박물관 소장품의 한계로 현 전시실 규모에 맞는 큰 기획전시를 구성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함.
- 또한, 라운드 구조, 슬로프 등 공간구조적 한계로 전시를 기획하는데 제약사항이 생김. 사각형 구조와 이동공간만 슬로프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장품의 배치 및 관람동선 등이 편리하고 전시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됨. 실제로, 슬로프 경사면에 각 파이프를 설치하여 공간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간조성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시업무의 확장 한계

- 담당자 1명이 전시 기획 업무를 맡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5년 계획은 어려움. 현재 주어진 업무를 처리해나가는 수준임. 또한, 태권도에 대한 이해도가 전문가에 비해 낮은 상태에서 현재와 앞으로의 태권도 관련 전시 주제를

기획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함.

- 타 국립박물관의 경우, 학예인력 외에 실장 직급에서 큰 차원에서 학예 관련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현 박물관에서 실장급 인력 충원은 어려워보임.

■ 시작단계의 박물관 연구 업무

-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전시는 조사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을 전시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현재 박물관은 조사연구 기능이 없었음.
- 올해부터 주도적인 조사연구를 착수했으며, 현재 태권도 교본 역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임. 이 연구 결과를 기획전시까지 연계시킬 예정임.

■ 박물관 업무 구조 상 인증평가 한계 발생

- 다른 박물관과 다르게 태권도진흥재단 산하 부서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조 또는 담당해야하는 재단업무도 발생함. 또한, 부서 내 학예업무 분담으로 교육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가 미비할 수 밖에 없었음.
- 박물관 운영의 평균 예산은 3억으로 지방 공립박물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낮은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점이 발생함.
- 미인증을 계기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에 따라 앞으로 박물관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환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내·외부 보조인력 확보의 어려움

- 무주 내 학교나 학생 수는 많지 않고,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프로그램 운영이 제약적이었음. 이에 영상 배포 등 다양화를 시도하였고, 일부 긍정적인 호응도 얻음.
- 그러나 보조인력 확보 어려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박물관 내부 인력이 업무 상황에 따라 서로 도와야하는 상황이 발생함.
- 교육 강사 수급과 관련하여 무주군 내 인력 모집이 어려워서 대부분 원거리 인력이 참여함. 작년에 대전 태권도 사범의 참여도 시도했으나, 지속적인 참여는 어려움.

■ 한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

- 박물관의 위치를 뒤늦게 확인하고 교육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음.
- 참여자 유형은 태권도를 좋아하거나 관심있는 초등자녀 동반 가족이 많고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프로그램이 한정됨. 또한,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프로그램 참여율이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등생 위주로 구성됨.
- 교육 프로그램은 공교육, 누리과정 연계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안정화를 시도함. 이에 유치원, 학교, 방학 진로체험 등 진행 예정임.

■ 교육 프로그램 대상 연령층 다양화 필요

- 재단 내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태권도사범 파견 사업 등 태권도 콘텐츠 사업 등 연계하는 방안이 있음. 2021년 문화나눔 사업으로 재단 내 콘텐츠운영부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되기엔 한계가 있음.

■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재단 내 타부서 업무협조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

- 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중고등학교 태권도사범 파견 사업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보고자 했으나, 일정 상 어려웠음. 향후 태권도 수련 콘텐츠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으나, 담당자와의 업무 협조 등 어려움이 발생함.
- 박물관 교육과 태권도 콘텐츠를 융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하나 생각했으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 등 모든 과정을 혼자 담당하여 한계가 발생함.

■ 소장품 관리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 수립 및 명확한 기준 필요

- 현재 수장고 유물과 자료실 아카이브를 담당함.
- 태권도는 근현대 스포츠로 일반적으로 박물관 유물에 해당되는 자료는 극소수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유물과 자료의 경계가 모호하게 존재함.
- 이러한 모호성은 소장품에 대한 기본 토대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함. 박물관은 소장품 분류체계, 중장기 수집 정책 및 계획, 소장품 구입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음. 연도별로 소장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비효율적이라 판단됨.
- 소장품(유물, 자료)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함. 현재 박물관은 소장품으로 분류된 팸플렛은 수장고와 자료실에 흩어져 관리되어 있음.
- 또한, 소장품 등록 실적이 재단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이에 대한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필수업무로 진행되지만, 현 박물관 사업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됨.

■ 박물관 공간 운영 관련

- 전시실 리노베이션 : 2018년 기획전시실을 개편함. 사실 전시 종료 후 내부 보수를 안한채로 계속 전시를 이어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전시 전 보수가 필요함.
- 전시공간 외 교육 공간 : 현 학습실은 고객센터실을 개조하여 운영 중이고 반지하 개념이라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현재 공간 내 유휴공간은 활용 계획이 있어서 교육실로 활용이 어려움. 현재 WTA 역사관 계단 위 2층 야외테라스가 있지만, 용도변경이 안되어서 리모델링이 어려움.
- 1층 뮤지엄 샵 공간이 비어있지만 17개 시도협회 홍보관 조성 관련 요청이 들어온 상태임. (확정 아님)

2.3 박물관 임직원 서면의견

1)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방향에 따른 전략과제 및 우선과제

■ 박물관 일반 운영 인력 충원 및 안정화 필요

- 담당자의 부족으로 인해 1명의 직원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일반 운영 업무 지원을 하면서 실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반 운영 업무로 인해 박물관 부서원들이 모두 주6일 근무를 시행중임. 주말·공휴일 근무 이후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부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증가 및 박물관 고유 업무 수행 불가
- 박물관 예산 한도 및 인건비의 상승,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우려로 인해 3개월 미만으로 일부 성수기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
- 지속적으로 재단에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업무에 대해 박물관 부서 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담당자 증원 및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 현재 박물관 일반 운영을 자회사에 일임하여 안내·해설 및 전시실 개관·폐관, 3D 영상 상영, 전시영상장비 관리, 관람객 서비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자회사는 태권도원 운영·관리하며 고객센터(안내데스크), 매표소, 모노레일 등 전반적 운영을 담당함.

■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등 박물관 조직 지원 시급

- 인력 부족으로 야기되는 업무 과중에 따른 목적 달성의 어려움을 인력의 보충으로 해결해야하나 재단의 채용 기능인력 부족으로 근시일에 해소되기 어려움.
- 따라서 예산의 증액을 통해 사업 형태의 과업(용역 등) 실행이 필요함. 단, 예산 증액 또한 여의치 않을 시, 박물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대학원 등) 등 내실화 지원이 필요함.

■ 소장품 관리 정상화를 위한 인력 및 업무체계 구축 필요

- 소장품의 정보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았고, 수장고에 격납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인력 문제와 연결됨.
 - 기존 국립박물관의 경우, 소장품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연구원(계약직)이 박물관의 규모나 소장유물의 수에 따라 많을 때는 10명 이상 보통 3-5명 정도임. 하지만 국립태권도박물관의 경우, 담당 직원 한 두 명이 소장품과 기록물을 관리하는 실정임.
 - 실제적인 소장품 또는 수장고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기본적인 상설전시 소장품 교체 업무나 특별전에 필요한 소장품을 검색하는 것도 어려움. 막 시작된 조사·연구 업무도 보통의 박물관에서는 소장품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지만 외부(태권도계에서 먼저 제안)로부터 들어오는 아이টে็ม으로 시작함.

- 라키비움 사업을 통해 기존에 소장품과 기록물로 이원화되었던 관리를 일원화 시키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통합 등록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장고를 관리할 수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현재 상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함.
- 현 상황에 맞게 전시, 교육 사업의 추진은 축소 또는 유지를 기본으로 두고, 소장품 관리 정상화에 중점적으로 역량 집중 필요함. 향후 정상화에서 고도화로 단계별 전환 기대 가능함.
 - 기존 박물관의 소장품은 유물(학예사)과 자료(기록물관리 전문요원)로 이원화되어 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소요 및 업무 경계가 모호한 상황임.
 - 따라서 소장품 관리 정상화는 소장품 관리 팀제로 구성하여 소장품 통합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아울러, 현재 박물관은 소장품의 분류체계 및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명확한 업무구분과 실행 매뉴얼 구축이 필요함.

■ 박물관 인력 부족 및 재단 업무와의 중복으로 선택과 집중 필요

- 재단 내 타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박물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태권도 조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진흥사업부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과 관련해서 콘텐츠운영부가 진행하는 부분도 있음.
- 재단 대외협력실에서 재단 SNS, 유튜브 공식 계정을 이용하여 홍보를 담당함. 박물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단과 중복된 업무를 진행하는 건 무리임.
- 현시점에서 중복되는 업무는 타 부서로 이관하고, 현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전시, 소장품 관리, 라키비움)에 한해서 집중 필요함.

2)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방향에 따른 단계별 전략과제

■ 단기 : 박물관 업무 체계화 집중

- (인력)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박물관 인력 충원
- (업무체계) 재단 내에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사업 분야 및 방향성 수립 및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이후 사업 규모 확장 추진
- (소장품) 태권도 관련 유물자료의 정리 및 분류, 유물 교체
 - 태권도 유관 단체 및 기관, 원로 사범 소장 유물자료의 수집
 - 태권도 원로사범 및 관계자 구술 기록 자료 녹취 및 수집
- (시설) 전시실 정비 및 박물관 시설 개선

■ 중기 : 심화 연구 및 소장자료 다양화 추진

- 소장중인 태권도 관련 유물 자료 심화 연구 및 자료 공개
- 지식자원 스펙트럼 확장. 태권도에 국한된 소장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문화, 스포츠 등)의 지식자원을 소장할 수 있도록 외연 확장

■ 장기 : 통합적 관점의 활동을 통한 박물관 정체성 확보

- 태권도 관련 지식자원의 총합적 집적화 및 연구
 - 근현대 지식자원이며 유한한 태권도 지식자원은 근시일에 소진될 것. 따라서 태권도 단체, 국내·외 태권도 수련인구(1억명 추산), 스포츠·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넓혀진 분야를 대상으로 태권도 및 문화의 허브 역할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수집여건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 기반 마련.
- 태권도의 정통성이나 역사성과 같은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개인의 기억으로서의 태권도를 기억할 수 있는 창구'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세계유일의 태권도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3)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지역사회 연계 방안

■ 지리적 위치 및 고령화 인구로 한계 → 현 소아·청소년 대상 교육 유지 최선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지리적 위치상 일반 이용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재단 내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태권스테이 등)에 참가 및 비대면 온라인 전시관 등을 운영한다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태권도원에 방문하는 이용객은 박물관에 대부분 방문하며 전시 관람을 하기 때문에 내부 콘텐츠 강화에 중점을 주는 것이 필요
- 인구 고령화는 문화 향유 인구의 감소에 영향을 줌. 현재 박물관 지역연계는 교육에 중점적으로 연계된 사업이 대부분이며 특히 소아·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소아·청소년 대상 교육 사업은 현상 유지
- 무주읍에서 30분 가량 걸리는 이곳 까지 찾아올지 의문이며, 근본적으로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지도 확실치 않음. 박물관에서 수요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방법인데 이 방안은 인원 부족의 문제 때문에 당장에 해결 할 수 없는 부분
- 무주군에는 김환태문학관과 최북미술관이 무주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인독서 교실, 문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1회당 최대 인원 15명 이내,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2020년 이후로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

4)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조직 구조

■ 박물관 고유 업무 강화 및 담당 인력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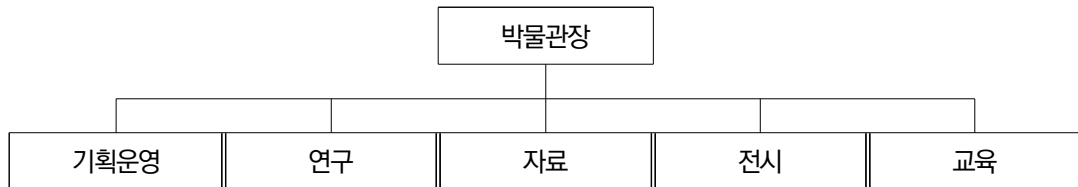
- 일반 운영 업무를 자회사에 일임(안내·해설 및 전시실 개관·폐관, 3D영상 상영, 전시영상장비 관리, 관람객 서비스 관리 등)하여 박물관 고유 업무 위주로 업무를 재분장함.
- 박물관 고유 업무(전시, 조사연구, 소장품, 교육 등) 담당자의 증원이 필요함. 또한, 실제 박물관 규모에 맞게 인력을 정비해야함.

- 박물관 유물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연구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소장품 관리 업무의 특성상 팀 단위로 구성
 - 국립박물관과 유사한 정도 경력을 갖추고 있는 연구원 2-3명 구성 적합

■ 기능에 따른 조직 체계화

- 박물관 고유 기능에 맞춰 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아래 그림은 직원 제안 내용)
 - 기획운영: 기획, 행정, 박물관 운영
 - 연구: 소장품 연구, 학술교류 등
 - 자료: 소장품 수집, 보존, 등록 업무
 - 전시: 상설, 기획, 특별 등 각종 전시 사업
 - 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그림 29] 조직체계 관련 제안 내용



5) 기타 의견

-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교육·자료의 사업들을 살펴보고 그에 준하는 비중으로 중장기 방향을 수립해야 함.
- 근본적으로 태권도진흥재단 내에서 ‘국립태권도박물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수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함.
- 건물 규모에 비해 활용되어지는 공간이 매우 적음. 박물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3.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 의견수렴

■ 현재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비전 및 방향성 제시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무주는 초고령화로 접어든 지역임에 따라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박물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름. 시민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비전에 포함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박물관 현황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한 점에는 공감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서 지역 및 시민 연계 방안에는 공감도가 다소 떨어짐. 현재 무주군은 50대 이상이 13,000명 이상으로 지역을 연계하고 이를 박물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장)

■ 인력 충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구조적 접근으로의 해결 필요성 인지

-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이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인력 채용으로만 해결될 사항은 아니며, 전반적인 조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음. 이를 위해 유사한 규모의 국공립박물관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충원 필요성에 동의하며, 조직 정비를 통한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함. 또한, 박물관 홍보 담당 직원이 없어 현재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점도 사실임.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장)
- 조직 문제는 내부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함.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 문화기반시설 총량 상 비슷한 관리 면적을 보유한 국공립박물관의 학예인력 인원, 보유 소장품, 운영 예산을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조직 및 인력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계획 수립해야함. (국립태권도박물관 대리)

■ 태권도원과 연계한 상생 방안 고려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과 태권도원은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져있음. 따라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적 방향을 수립할 시, 태권도원과 연계한 상생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태권도원 유료 입장권으로 인한 박물관 접근성 극복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온라인/비대면 전시 활성화방안을 실제 추진할 경우, 태권도원 전체 방문객 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음.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국립태권도박물관 대리)
- 현재 박물관 내 홍보담당 인력은 없지만 최근 재단 SNS 팔로워가 20만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만큼 박물관도 연계하여 공동으로 홍보하고, 추후 단독 홍보계정 전환을 제안함.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장)

■ 태권도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중장기 방향성 수립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방향성을 수립에서 태권도 전문가가 바라보는 박물관의 모습과 역할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이는 유물 수집이라는 박물관의 고유 기능과도 연결되는 부분임.

- 박물관 임직원 및 박물관 전문가만이 아니라 태권도 관련 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해 태권도인이 바라보는 박물관의 모습을 담아야 함.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 박물관 중장기 계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은 유물수집에 대한 계획이라 생각됨. 이 부분에 대한 태권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보고서에 담아내야 함. (태권도진흥재단 기획조정실장)

제4절 현황 분석 시사점

-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현황,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파악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이를 토대로 시사점과 향후 전략과제 적용 방안을 도출함.

〈표 53〉 국립태권도박물관 운영현황 분석 시사점

구분	주요 이슈	시사점 및 전략과제 적용 방안
목표 (비전)	비전 및 추진방향	- 지역사회 연계활동 및 사업 추진 - 국제적인 브랜드 활용 마케팅 필요 -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 박물관 내실화를 위한 기반 마련 중요
	대외협력 및 교류	- 전북, 무주 내 문화기반시설 협의체 구성 및 회원관 등록 - 협력 활동은 기획에서 중단 - 무주 내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 (교육/체험) 기획 및 운영
	이용객 관리	- 정기적인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시행 - 관람객 및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메일링 리스트 미집계 - 박물관 관람객 메일링 리스트 확보 - 홈페이지 회원 대상 뉴스레터(이메일) 발송
	홍보·마케팅	- 박물관 홈페이지 외 공식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 체계 부재 - 박물관 소식지 등 홍보 활동 전무 - 박물관 자체 홍보 인력 부재(태권도원 담당) - 태권도원 SNS 연계 및 분리 홍보 - 박물관 서포터즈 임명 및 홍보 활동
기능 (사업)	소장품	- 기증을 통한 유물 수집 - 유물관리시스템 미등록 자료 다수 - 분류체계, 기증절차 부재 - 소장품 관리 인력 부족 - 소장품 관리체계 수립 - 기증 유물에 대한 절차, 기준 정립 - 기증자 예우 수칙 마련 - 소장품 등록 및 온라인 DB화
	조사·연구	- 2022년 첫 박물관 자체 연구 시행 - 태권도진흥재단 내 태권도 관련 연구 수행 - 라키비움 사업의 일환으로 자료 수집 및 정리 사업 운영 - 외부 태권도 및 관련분야 전문가, 기관 연계 조사연구 활성화 - 조사연구 결과 활용 전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전시	- 개관 이후 동일한 상설 전시 구성 - 정기적인 기획 및 특별전시 개최 - 태권도와 문화예술 접목 주제 시도 - 지역연계 사진전 시도 - 상설전시실 개편에 따른 구성 및 방식 변화 시도 - 참여형, 체험형 전시 콘텐츠 도입 - 타 박물관, 연구기관 연계 교류전, 순회전 개최
	교육·체험 및 문화행사	- 어린이/학생대상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가족단위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돌봄시설 연계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 태권도원 태권도 수련생, 사범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 정기적인 체험 프로그램 미운영 - 온라인 교육 및 강좌 미개발 - 이벤트성 문화행사 미운영 - 다양한 연령층 대상 프로그램 기획 - 태권도인 대상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 운영 - 방학기간 한정 이색 프로그램 기획 - 태권도 외 스포츠 연계 이벤트 개최
	공간 및 시설	- 외부 박물관 홍보 및 안내 부족 - 넓은 규모 대비 미활용 공간 다수 존재 - 박물관, 태권도원 외관 내 안내판 설치 - 유휴공간 활용 체험공간, 편의시설 도

구분		주요 이슈	시사점 및 전략과제 적용 방안
		- 비효율적 전시실 동선 및 공간 활용 - 단순 휴식공간 존재하나 편의시설 미비 - 열악한 교육 공간 및 자율 체험 공간 부재	- 입 - 심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자유로운 휴식 및 놀이 공간 마련
구조 (조직)	조직 및 업무체계	- 재단 사무총장 직속 부서 개념의 박물관 - 재단 소속으로 재단 업무 병행 및 중복, 협조 요청 업무 발생	- 독립적인 박물관 수행 업무 분야 파악
	인력운영 및 업무분장	- 절대적 박물관 인력 부족 - 비정규직 학예인력 미활용 - 학예업무에 대한 중간관리체계 미운영 - 박물관 전담 시설관리 인력 부재 - 정기적 자원봉사자 모집 한계	- 장기적으로 조직 분리 및 인력 충원 - 중간관리(실/과) 체계 도입 - 외부 전문가 연계 협력 방안 모색
	예산	- 전년대비 낮은 증감율의 예산 -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라키비움 관련 예산 편중	- 지원사업 공모, 박물관 후원제 도입 등을 통한 자원 마련

IV

벤치마킹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1절 벤치마킹 사례조사

제2절 전문가 의견수렴

1. 사례조사 개요

- 국립태권도박물관 내부현황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참고할만한 국내·외 박물관 운영 사례를 검토함.
- 사례조사의 구분은 국내 체육박물관, 전문테마박물관, 국외 국기박물관에 해당함.
- 국내 체육박물관으로는 국내 등산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국립산악박물관과 2024년 개관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박물관 브랜딩을 구축하고 있는 국립체육박물관을 분석함.
- 전문테마박물관으로는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문화(한글, 국악)를 전문테마로 설정하고 있는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을 검토함.
- 국외 국기박물관은 박물관의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응해야 할 박물관의 역할을 융합하고 있는 미국 국립야구박물관 명예의 전당, 영국 국립축구 박물관, 영국 MCC 박물관, 스위스 FIFA 세계축구박물관을 살펴봄.

〈표 54〉 국내·외 사례조사 개요

구분	박물관명
국내 체육박물관	1) 국립산악박물관 2) 국립체육박물관
전문테마박물관	3) 국립한글박물관 4)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국외 국기박물관	5) 미국 국립야구박물관 명예의 전당 (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 and Museum) 6) 영국 국립축구박물관(National Football Museum) 7) 영국 MCC 박물관(The Marylebone Cricket Club Museum) 8) 스위스 FIFA 세계축구박물관(FIFA World Football Museum)

2. 국내 체육 관련 및 전문테마 박물관

2.1. 국내 체육 관련 박물관

1) 국립산악박물관

■ 국내 등산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방향성 수립

- 산림청은 세계적인 산악강국인 우리나라 등산 역사·문화와 등반 기록 등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산악문화의 대중화와 등산문화의 창달을 목적으로 2014년 속초시에 국립산악박물관을 개관함.
- 2015년 1종 전문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되었고, 등산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함. 총 3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설전시관 3개, 기획전시관 1개, 영상실, 상징조형물, 북카페, 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상설전시관은 ‘등반의 역사’, ‘산악 인물실’, ‘산악문화실’로 구성되어있으며, 시대별 등산장비의 변천과 산악 단체의 태동 및 해외 산악 원정 등반기, 산악인이 전하는 산에 대한 메시지와 영상, 실제 사용하던 유물, 산에 얹힌 설화와 산과 관련된 미술, 문학 등의 한국 전통 산악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포함함.
- 기획전시관에서는 ‘백두대간에 살어리랏다’, ‘영혼의 땅 마나슬루, 빛나는 산 가서 브룸’, ‘속초의 설악’, ‘한국산악회展_나와 산 하나가 되다’, ‘오! 축복받은 히말라야’ 등의 다양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네트워크의 저변을 확장하고 있음.

■ 체험실을 중심으로 산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국립산악박물관 체험실은 크게 산악교실, 고산체험실, 산악체험실 총 3개로 구성되어있으며, 보다 흥미롭고 역동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 산악교실에서는 산악안전, 등산과학, 산악문화, 산악역사 등에 대하여 산행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체험 교육이 실시됨.
- 고산체험실에서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백두산, 한라산, 몽블랑, 정상 등 저산소·저온도의 고산환경을 제공하여 인체변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으며, VR 체험을 통해 고상등반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음.
- 산악체험실에서는 박물관 관람객들이 스포츠클라이밍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실내 암벽 등반장이 마련되어있음.

[그림 30] 국립산악박물관의 체험 프로그램



출처 : 국립산악박물관 홈페이지

■ 산악 관련 조사연구 및 학술 관련 사업 실시

- 국립산악박물관은 개관 초기부터 전시 외에도 조사와 연구를 박물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파악하였음. 국립박물관의 위상에 걸맞게 자료 수집과 고증을 기반으로 국내 산악 발전에 기여한 산악인의 역사를 발굴하고 알리겠다는 방향을 수립함.
- 이러한 계획 방향성은 2020년 ‘사람, 산을 오르다: 산악인 구술조사보고서’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짐. 2016년부터 매년 산악교육·학술, 고산 등반·산악문화 등 4개 분야 각각 4명의 원로산악인을 선택해 구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해당함.
- 또한 학술 세미나와 학술지 발간 등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2018년 국립산악박물관 개관 4주년을 기념하며 ‘88 로체-다올라기리 I 봉, 한국 초등 30년을 돌아보다’를 개최하여 로체와 다올라기리에서의 한국 원정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국산악사 연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또한 2020년 ‘한국 근대 등산사 재조명’이라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한국 근대 등산 역사의 학술적 연구를 심화시키기도 함.
- 또한 2019년부터 매년 1회 ‘산악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 중에 있음. 등산사, 등산의 사회현상, 등산의 효과, 등산 행정, 산악관광, 등산교육, 산악문학, 고산등반, 환경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의 학술연구를 통해 산악 역사와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관련 연구자의 확대 등을 도모하는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음.

■ 학예 인력 확보 및 운영의 중요성 인식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립산악박물관은 산악 관련 조사연구 및 학술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개관 초부터 학예 인력 확보 및 운영을 중요한 업무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조직은 학예연구실과 운영지원실로 구분됨.

[그림 31] 국립산악박물관의 조직도



출처 : 국립산악박물관 홈페이지

2) 국립체육박물관

■ 체육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방향성 수립

- 국립체육박물관은 우리나라 체육의 뿌리와 정신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느꼈던 감동의 순간 등을 체험함으로써, 체육이 가지는 본질을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2024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건립될 예정임.
- ‘체육의 가치와 문화가 소통하고 성장하는 HUB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① 체육유물 체계적 관리, ② 대한민국 체육역사 전승 ③ 체육문화 향유라는 세 가지의 역할을 확립하였음.

[그림 32] 국립체육박물관의 기능과 역할



출처 : 국립산악박물관 홈페이지

■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적용한 전시 추진

- 국립체육박물관은 ‘대한민국 체육의 기억, 도전과 환희, 감동의 이야기’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시관 주제를 설정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1관은 ‘만남과 기억’으로 체육과의 만남, 기억의 방을 표방함. 2관은 ‘도전과 환희’로 도전의 방, 환희의 방, 영상존으로 구성될 예정임. 3관은 ‘영웅과 눈물’로 기획전시 공간, 히든 챔피언, 명예의 전당, 해피 메이커 구성 계획을 수립함. 4관은 ‘우리가 만드는 체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하자! 유소년 체험존, VR체험존을 마련하고자 함.

■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박물관으로서의 기증 시스템 강조

- 국립체육박물관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짓습니다’라는 모토 하에 기증 유물의 수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기증 대상 및 기증 유물 종류뿐만 아니라 기증자 예우의 원칙 또한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증 시스템을 구축함.

〈표 55〉 국립체육박물관의 기증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기증 대상	- 고조선~조선시대: 활 쓰기, 수박 등 무사(武士)체육과 씨름 등 민속 체육활동 유물 및 자료 - 조선개화기~한국전쟁: 근대 스포츠 도입 및 대한체육구락부 등 체육단체 관련 유물 및 자료, 반일저항 스포츠 활동, 근대 스포츠 도입과 발달에 관련된 유물 및 자료, 6.25전쟁 속에서 피어난 체육활동과 성장에 관련한 유물 및 자료 - 1953년~현대: 각종 국제대회를 통한 국위선양 모습 관련 유물 및 기록자료, 국내 각종 대회 및 프로스포츠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성장과 발전 모습, 그 노력을 담은 유물 및 자료, 학교, 생활체육과 관련 된 유물 및 자료
기증 절차	- 기증 신청, 접수, 심의, 결과 통보의 순서로 진행
기증자 예우	- 기념품 및 기증증서 수여 - 향후 개관 시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증자명 게시 및 기증유물자료집 발간 예정

출처: 국립체육박물관 홈페이지

- 기증유물을 통해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33주년 기념, 기증유물 특별전’을 2021년 9월 17일~2021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전시를 개최한 바 있음. 관람객에게 기증 유물을 3D, 스토리 영상 등을 통해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국립체육박물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증받은 유물에 대한 스토리를 제공하고 있음. 유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억, 사건, 장소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관람객들은 유물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 운영을 통한 박물관의 개방성 도모

- 국립체육박물관은 어디에서 세워질까요, 국립체육박물관에 어울리지 않은 기증품은 무엇일까요, 1988 응답하라! 서울올림픽 그 영광을 넘어 미래로 향해 등의 이벤트, 생활체육 공모전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박물관을 이미지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음.

2.2. 전문테마박물관

1) 국립한글박물관

■ 한글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목표 수립

-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4년 개관하였음. 한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글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실험하는 전시 공간인 동시에 어린이들이 한글의 원리를 쉽게 체험하고, 한글을 익히고 싶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문화의 놀이터를 지향함.
-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자료가 축적되고 전승되는 장, 한글에 대한 체험적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 한글문화가 재창조되고 확산되는 장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가치는 소통(한글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나누고 공감), 창조(한글의 창조적 가치 개발), 연계와 확산(다른 분야의 연계를 위한 연계와 촉진) 세 가치를 설정하고 있음.

〈표 56〉 국립한글박물관 체계도

구분	내용		
목표	- 한글자료가 축적되고 전승되는 장 - 한글에 대한 체험적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 - 한글문화가 재창조되고 확산되는 장		
임무	한글과 한글 문화의 가치의 보존, 확산, 재창조		
가치	소통	창조	연계와 확산
	한글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나누고 공감	한글의 창조적 가치 개발	한글문화의 확산을 위한 연계와 촉진
기능	- 한글문화 확대를 위한 연구		
	- 한글문화 자원 조사수집보존관리		
	- 한글문화를 토대로 한 전시		
	- 소통과 공감의 한글문화 교육		

출처: 국립태권도박물관 홈페이지

- 이 같은 목표와 미션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은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 기획운영과로 구성되어있음.

[그림 33] 국립한글박물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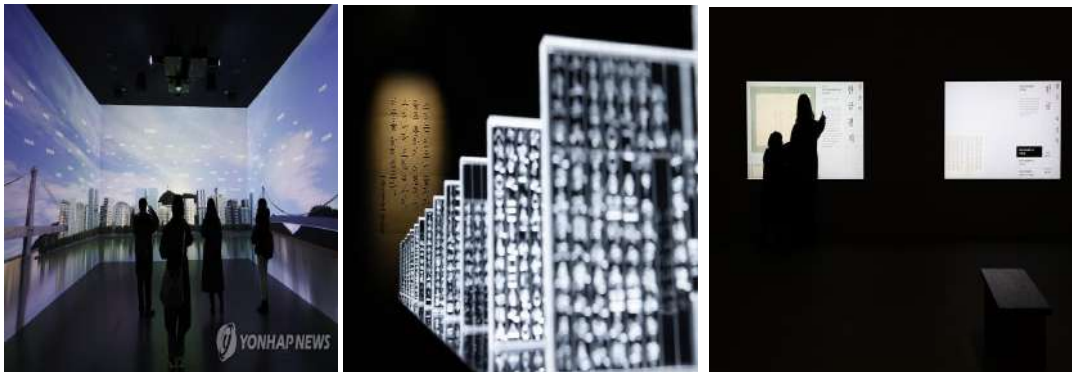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

■ ICT 기술을 활용한 한글 역사의 체험 기반 전시 추진 및 관람 환경 개선

- 국립한글박물관의 상설 전시실은 전면적인 개편을 거쳐 훈민정음 머리말의 문장에 따라 총 7개의 공간으로 전시가 구성되어있음. 실감영상, 인터랙티브, 투명 디스플레이 영상 등 다양한 ICT 미디어를 활용하여 전시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관람객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또한 개관 이후 7년 동안 노후화된 전시 공간 및 로비 공간 등을 개선하여 전체적인 관람의 질을 높임.

[그림 34] 국립한글박물관 상설 전시 환경



출처 : 연합뉴스(2022. 01. 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글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국립한글박물관 3층은 기획전시실과 함께 한글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음. 한글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한글이 가진 힘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 공간임. 총 3부로 1) 우리동네 한바퀴, 2) 친구야! 한글놀이터에서 놀래?, 3) 꿈꾸는 나의 방으로 구성되어있음. 현재 온라인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총 체험 시간은 50분에 해당함.

■ 한글도서관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장 마련

-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이 지닌 문자적 가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한글도서관을 구축하였음. 문자 언어 관련 전문 도서를 중점적으로 수집 및 비치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어린이, 인문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와 영상·음향 매체 자료들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도록 함.

■ 연령별·세대별·상황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국립한글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연령층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한글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연령별·세대별·상황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부모자녀 동반, 계기성 교육, 방학, 전시연계, 유아학교, 성인, 전문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다양한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운영 성과 구축

-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가시적인 운영성으로 이어졌음. 2020년 기준 운영에 있어 실집행액과 그에 따른 성과는 아래와 같음.

〈표 57〉 국립한글박물관 2020년 결산개요 및 사업성과

구분	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사업성과
한글박물관 운영	9,185	- 한글과 한글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기획특별전 개최 및운영(4회), 지역순회전시(1회) 개최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3,785	- 한글·문자·소장자료 관련 연구 및 학술대회 운영을 통한 한글문화융성 기반 구축(학술대회 1회 개최, 온라인 강좌 12회 개최, 소장자료 총서 2종 발간, 훈민정음 및 한글문화 관련 연구서 5종 발간 등)
박물관 전시	1,299	- 훈민정음 및 한글문화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한글 가치 공유·확산(총 120회, 26,058명 참여)
한글문화 연구 및 교육	1,073	- 한글과 한글문화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자료 조사, 수집, 보존(지정문화재급 한글자료 16,788점 구입, 219점 수증, 아카이브 자료 1,943건 수집 등)
한글문화자원 확충	3,028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서비스 확대(온라인 전시 및 교육 콘텐츠 제공, 온라인 문화행사 개최 등),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1회)
		- 한글 창의산업 아이디어 공모전(1회), 세계 한국어 말하기 대회(1회) 개최

출처: 국립한글박물관(2021), 2020년 한글박물관 결산개요

2)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 국악의 역사와 문화를 증진하고 향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방향성

-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박물관으로 1995년 개관하였음. 국립국악원은 ‘국악으로 세계 속 신한류 확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악의 영역 및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른 3대 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조직 구조는 기획운영단, 국악연구실, 소속국악원, 국악연주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비전하에서 국악박물관 또한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옴.

[그림 35] 국립국악원 조직도



〈표 58〉 국립국악원 비전

구분	내용
비전	국악으로 세계 속 신한류 확산
목표	국악의 영역 확장 및 공공성 강화
전략	- 전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개발 - 전국에서, 일상에 국악의 향유 - 국악의 대국민 활용 가치 증대
추진과제	- 국악의 정통성 강화를 위한 공연작품 개발 -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춘 공연환경 구축 - 신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 진출 확대 - 관객 개발 및 공연서비스 품질 개선 - 지속 가능한 국악교육 기반 조성 - 국악, 일상으로의 확산 - 국악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 국악학 연구 기반 강화 및 한민족음악 연구 - 현장 중심의 국악기 연구·개발 및 국악디지털 콘텐츠 역량 강화 - 전시·체험 활성화 및 국악자료 활용 증대

출처: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 보는 전시에서 듣고, 느끼는 전시로의 전환

- 국악박물관은 교육 연수동 건물을 활용해 개관하여 박물관 공간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개편을 통해 2019년 재개관하였음. ‘더 가까운 음악, 더 깊은 이해, 더 즐거운 놀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재개관은 보는 전시에서 듣고, 느끼는 전시로 전환하였음을 밝힘.
- 개편된 상설전시는 총 7개관으로 구성됨. 국악뜰, 소리품, 악기실, 문헌실, 아카이브실, 명인실, 체험실을 통해 참여형 공간 성격을 강화하였음.
- 관람객들이 원형공간에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실제 터치스크린을 통해 세종실록악보와 시용향악보를 직접 넘겨볼 수 있는 경험 등을 제공하여 실제 전시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함. 또한 악기, 악보, 악서, 복식 유물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리까지 체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람객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의 폭을 확대하였음.

[그림 36] 국악박물관 상설 전시



출처 : 국악박물관 홈페이지

■ 기존 자료실을 개방형 라키비움으로 전환

- 국악박물관 재개관 당시, 가장 중점적으로 개편 방안을 모색한 것은 라키비움에 해당함. 2020년 기존 자료실을 새롭게 재편하여 ‘공간이음’이라는 라키비움 공간을 구축함. 국악 자료와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북한음악자료실 구성을 통해 전문성을 더하였음.

■ 국악 관련 기획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추진

- 국악박물관 재개관에 맞추어 전시 연계 특강을 개최하여 박물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 6주간의 전시 연계 특강을 통해 국악박물관에서 공개하는 소리, 악기, 악보, 악서, 음반 속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또한 라키비움 북한음악자료실을 기념하며 북한민족음악 기획전을 연계하기도 하였음.

■ 국제 교류협력 확장을 통한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

- 국악박물관은 2018년 온라인 악기박물관 네트워크 MIMO(Musical Instrument Museums Online)에 가입하였음. 네트워크를 통해 국악자료의 개방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전시 및 학술교류를 나아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음.

3. 국외 국기 관련 및 참고 사례조사

1) 미국 국립야구박물관 명예의 전당(National Baseball Hall of Fame and Museum)

■ 다양한 유형의 방대한 자료로 구성된 아카이브

- 야구의 발상지인 뉴욕 쿠퍼스타운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18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야구 역사 관련 필름, 신문 스크랩, 당시 야구 기념품, 사진 등을 전시함. 박물관 옆에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295명 선수 동판을 전시하고 있음.
- 박물관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명예의 전당과 체험 코너, 2층에는 19세기~현재까지의 미국 야구, 유명선수 기념 코너, 3층에는 팬, 유명 선수 및 우승팀 관련 내용을 전시하고 있음.

[그림 37] 국립야구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 전시



출처 : 미국 국립야구박물관 홈페이지

- 주요 전시 콘텐츠는 야구 관련 역사, 야구 선수, 야구 팬 등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스포츠, 대중문화로서의 야구에 대한 기록, 선수 개인의 기록과 역사, 팬들의 입장에서 기억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됨.
- 야구 역사를 보여주는 유니폼, 야구방망이뿐만 아니라 300만 개 이상의 문서자료, 책과 잡지, 스크랩북, 원고 등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250만 장 이상의 사진과 16,000시간 이상의 오디오영상 매체를 보관하고 있음.
- 야구팬들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최고의 야구 선수, 코치, 부모님, 동료선수 등 자신만의 야구 영웅을 기념할 수 있는 소장품을 기부하거나, 기존 소유한 소장품을 온라인 아카이브로 보존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안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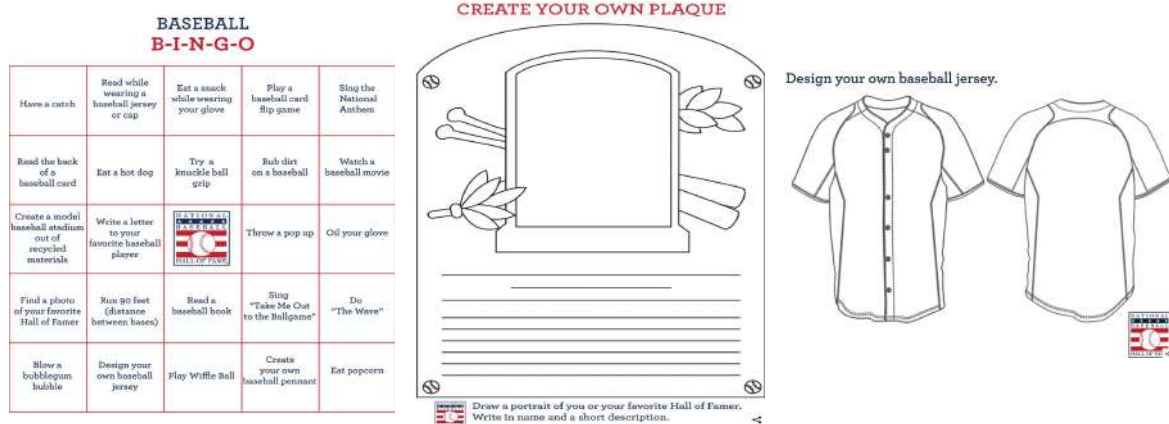
[그림 38] 아카이브를 위한 기부 프로그램



■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활동지 및 교육자료 제공

- 박물관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외에 야구 관련 빙고, 단어 찾기, 나만의 명판 꾸미기, 저지/모자/운동화 디자인하기 등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지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함. 완성 사진을 이메일로 제공 시, 박물관 교육부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함.

[그림 39] 국립야구박물관 제공 활동지



- 또한, 학년별(2-4학년, 5-8학년, 9-12학년) 야구 관련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함. 과학, 혁신, 지리, 대중문화, 여성사, 인권사, 문화다양성, 선수 파악 등 주제를 세분화하여 이에 해당되는 도서를 소개 및 추천함.

■ 연구센터 주도의 활동

- 지아마티 연구센터는 책, 정기간행물, 사진, 오디오영상 자료, 스크랩북, 통계자료, 야구팀 발행물 등 야구 역사 관련 방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 센터 방문은 비교적 자유로워 누구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또한, 센터는 어린이, 학생, 일반 야구 팬, 학자, 전문 작가, 기자 등의 질문과 요청에 응답하는 업무를 담당함.
- 뿐만 아니라, 선수, 작가, 역사학자 등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도 하고, 쿠퍼스타운 심포지움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미국 문화에서 야구의 영향에 대해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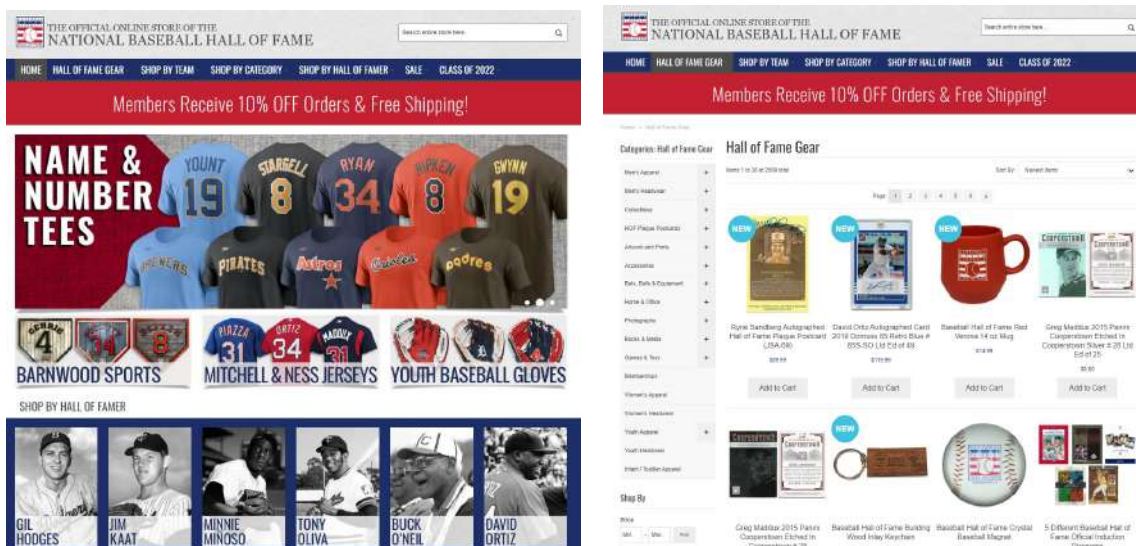
[그림 40] 연구센터 활동



■ 선수, 구단별 기념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뮤지엄샵 운영

- 미국 내 다양한 구단과 소속 선수와 관련된 굿즈, 야구 장비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샵을 별도 웹사이트에서 운영함.
- 은퇴한 선수부터 현역 선수 관련 유니폼, 글러브, 루키카드 등과 명예의 전당에 있는 선수 명판을 담은 엽서, 선수 사인이 담긴 보관용 엽서 등이 있음.

[그림 41] 뮤지엄샵 홈페이지



2) 영국 국립축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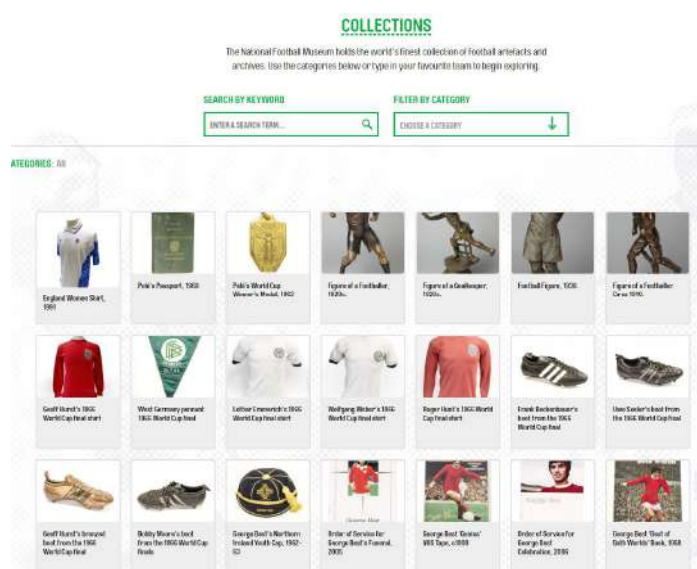
■ 축구팬을 위한 전시, 체험, 이벤트 공간 조성

- 맨체스터에 위치하며 축구 스타디움을 형상화한 출입구를 들어서면 1층 도네이션을 위한 특별전시 및 체험공간, 2층 상설 전시관, 3층 기획전시관, 4층 축구 체험관, 5층 이벤트 공간으로 박물관이 조성됨.
- 축구대회, 사건사례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문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안내하며, 3D 입체영상과 그래픽패널을 전시물로 정보 제공, 퀴즈 맞추기 코너 등을 마련함.
-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무료 입장이나 관람객의 자유 의지에 따라 기부가 가능함.

■ 축구와 관련된 모든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소장품 전시

- 유명 축구 선수 및 영국 축구팀과 관련된 소장유물 외에 축구와 관련된 예술작품, 장식품, 유니폼 및 운동장비, 메달 및 트로피, 사진 및 영상자료, 장난감 및 게임 등을 보유함.
- 소장품은 전세계 축구 게임의 초기 역사, 전통 유럽 축구 초기 발전사, 잉글랜드 현대 축구 게임 기원, 프로 축구게임 리그 및 발전사, 여성과 축구, 축구 운동 장비 발전사, 예술과 축구, 축구와 장난감 및 게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1200권이 넘는 축구연감과 192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축구 경기 및 리그 발전에 대한 내용의 책을 보유함.

[그림 42] 소장품 아카이브



출처 : 영국 국립축구박물관 홈페이지

■ 어린이 대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단순히 축구 경기에 대한 내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축구와 스포츠, 도시 역사, 과학 원리 등 다양한 주제를 연계시켜 학년별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보유함.
 - 각 프로그램은 1-2시간 내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5-60명의 어린이 및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됨.
 -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며,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그림 43] 미취학 및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커리큘럼



■ 박물관 자체 디자인 기념품 제작 및 온-오프라인 판매

- 박물관은 자체 디자인 에코백, 필기류, 열쇠고리, 공 등을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굿즈 개념으로 판매함. 또한, 트로피 모형의 열쇠고리, 미니어쳐 등을 판매하여 축구 팬들이 박물관 방문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제품은 박물관 내 기념품 샵 뿐만 아니라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함.

[그림 44] 박물관 자체 디자인 기념품



[그림 45] 뮤지엄샵 트로피 모형 기념품



출처 : 영국 국립축구박물관 홈페이지

3) 영국 MCC 박물관 (The Marylebone Cricket Club Museum)

- MCC 박물관(MCC Museum)은 매릴본 크리켓 클럽(MCC, Marylebone Cricket Club) 소유의 경기장 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박물관으로 1953년 개관하여 크리켓 관련 물품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음.
 - 박물관 소장품은 18세기 초 주요 스포츠로 자리매김시작한 크리켓의 역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수와 경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전문 스포츠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크리켓 클럽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함.
- 요크셔 출신의 크리켓 선수이자 경기장을 만든 사람인 토마스 로드(Thomas Lord)의 이름에서 유래됨. 현재 미들섹스 카운티 크리켓 클럽(Middlesex County Cricket Club), 영국과 웨일즈 크리켓 이사회(ECB, England and Wales Cricket Board), 유럽 크리켓 위원회(ECC, European Cricket Council)의 본부가 위치함.
- 박물관 외에 경기장과 관중석, 미디어 센터와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 경기장 옆 건물에는 로드 구장에서 경기했던 유명 크리켓 선수들의 초상이 남아있음. 테니스, 양궁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들이 펼쳐지는 곳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 양궁 경기가 이곳에서 치러짐.
- 박물관 내에는 1973년 개관한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크리켓 관련 도서 및 출판자료 등을 보관함. 소장자료는 현재 20,000권 이상의 자료가 있으며, 매년 400권씩 추가되고 있음. 전 세계차원의 경기 및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도서, 잡지, 팸플렛 등을 포함함.
- MCC 아카이브는 2006년에 조성된 공간으로 MCC에 대한 기관차원의 기록물을 보관함. 1825년 이래로 운영 중인 클럽의 기록, 점수 기록책, 서신, 멤버십 뿐만 아니라 크리켓 선수, 통계학자, 저자 및 수집가 등 개인 소장 자료도 관리함.

4) 스위스 FIFA 세계축구박물관

■ 전세계 축구 관련 기록을 담고 있는 상설전시

- 스위스 취리히 FIFA 본부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국제 축구협회와 관련 기구에 대한 소장품을 수집, 전시 및 보존하여 글로벌 스포츠 문화로써 축구를 보여줌.
 - 국제 축구협회 소속 국가 관련 1,000개 이상의 전시품과 4,000개 이상의 책과 자료, 1,400개 이상의 사진을 보유함.
- 전시품, 공예품뿐만 아니라 FIFA 토너먼트 대회 및 경기 등에 대한 사진 아카이브를 통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둠.

[그림 46] FIFA 세계축구박물관 상설전시실 및 체험공간



출처 : FIFA 세계축구박물관 홈페이지

■ 기획전시와 관련 주제의 전문가 초청 웨비나 진행

- 기획전시는 ‘기원: 축구의 선사시대’를 주제로 서로 다른 국가에서 축구 탄생 이전에 즐겼던 구기게임에 대해 소개함.
 - 2022년 6월 29일부터 매월 한번 중국의 구주, 일본의 케마리, 고대 공 게임, 메조 아메리칸 공 게임 등에 대한 라이브 웨비나를 진행함. 전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각 게임의 기원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을 계획함.

[그림 47] FIFA 세계축구박물관 특별전시 및 웨비나 행사



출처 : FIFA 세계축구박물관 홈페이지

■ 다국어 가이드 투어 서비스 운영

- 전문 투어 가이드가 전 세계 축구 관련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해설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 대상으로 제공함.
 - 요일을 구분하여 영어와 독일어로 진행되며 약 1시간 코스로 운영됨. 20명 이상 단체 방문객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로 투어를 구성하여 운영함.

■ 어린이 및 가족 대상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기획

- 박물관은 다양한 연령 및 국적의 어린이 및 학생에게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

- 함. 이는 스스로 박물관 전시내용을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 매체로 역할을 함.
- 또한, 방학동안 어린이 캠프를 운영하며 스포츠 운동을 하며 축구를 배우고, 축구라는 주제를 미술과 접목한 활동을 함.

〈표 59〉 어린이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세부내용

구분	내용	관련 사진
실험실	- 모든 연령대 방문객들이 쉬고, 그림을 그리고, 축구 관련 다양한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함	
키즈 트레일	- 4개 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된 소책자를 제공하고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함 - 8세 이상 어린이에게 상설 전시실에서 표시된 역에 들어 책자를 이용해 퍼즐, 그림, 게임을 즐길 수 있음 - 7세 이하 어린이 대상 미니 키즈 트레일을 제공하여 단계별 활동을 가능하게 함	
방학 프로그램	- 8세-12세 어린이 대상 FIFA 뮤지엄 어린이 캠프를 여름과 가을에 운영함 (2022 계획) - 4일 동안 다양한 주제로 축구 관련 활동을 함 - 각자의 축구 저지(유니폼)를 디자인 및 색칠하기, 고대 공 게임의 기원 탐구 및 각자의 공 만들기 활동, 팝업 전시회 개최	
만화 코너	- 축구가 기록된 신문, 잡지, 책을 비롯한 예술가 작품 등을 소개하는 공간이 조성됨 - 축구 관련 만화책 소개하고 읽을 수 있으며, 자신만의 축구 만화책을 만들고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음	

출처: FIFA 세계축구박물관 홈페이지

■ 스포츠 경기 관람할 수 있는 SPORTSBAR 1904

-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테니스, 야구, 사이클,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스포츠 바와 식당을 운영함.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가 있을 경우 연장 운영을 하는 등 스포츠 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함.

[그림 48] 스포츠바 1904



출처: FIFA 세계축구박물관 홈페이지

4. 사례조사 시사점

- 국립태권도박물관 증장기 발전방안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고할만한 국내체육박물관, 전문테마박물관, 국외 국기박물관 사례를 살펴봄. 이를 토대로 시사점과 벤치마킹 방안을 도출함.

〈표 60〉 박물관 사례조사 시사점 및 벤치마킹 포인트

박물관명	시사점	벤치마킹 포인트
국립산악박물관	- 산악 관련 조사연구 및 학술관련 사업을 통한 산악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 - 박물관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위한 학예인력 확보의 중요성 인식	- 태권도 관련 조사연구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술관련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학예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소장품, 조사연구, 전시의 유기적 연계 구조 확립 필요
국립체육박물관	- 일상 속에서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체육으로의 접근방식	- 일상과 분리된 과거의 태권도가 아닌 현재 일상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태권도로 자리잡기 위한 소통 및 홍보 활성화 필요
국립한글박물관	- ‘한글’이라는 전문테마를 활용한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정립	-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비전, 사업, 조직 방향성 필요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 라키비움을 통한 일반시민 대상 국악자료 접근성 향상 - 해외교류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시도	- 라키비움의 온라인, 오프라인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역할 수행
미국 국립야구박물관 명예의 전당	- 야구 관련 역사, 선수 및 팀, 팬을 주제로 다양한 아카이브 보유 및 지속적인 구축 - 온라인 활동지 및 교육자료 제공 - 아카이브 연계 프로그램 및 심포지엄 개최 - 온라인 뮤지엄샵에서 다양한 기억 회상 및 구매 가능	- 일반인, 전문 태권도인 등 구분하여 공통/심화 주제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소장품-전시 연계 포럼, 강연 기획 시도
영국 국립축구박물관	- 축구팬을 위한 전시, 체험, 이벤트 공간 조성 및 영상을 활용한 흥미로운 체험 구성 - 축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 및 다양한 분야의 자료 소장 - 축구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로 어린이 대상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 박물관 자체 디자인 기념품 제작 및 판매	- 태권도에서 확장된 주제로 전시 기획,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유로운 체험 및 놀이 공간 마련 -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다양화
영국 크리켓박물관	- 크리켓 역사 및 장비 등 전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크리켓 클럽 및 회원 등 개인 차원의 다양한 기록 및 자료 소장 - 방대한 도서관 자료 보유 및 지속적 업데이트	- 비전문가/개인 관점의 태권도 관련 기록 수집 및 연계 전시 기획 - 라키비움 및 온라인 DB를 통한 소장품 정리 및 업데이트 필요
스위스 FIFA 세계축구박물관	- 전세계 축구 관련 기록 및 자료 전시 - 기획전시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진행 - 다국어 가이드 투어 서비스 운영 - 어린이/가족 대상 교육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기획 - 스포츠 경기 관람 가능 공간 운영	- 국내외 태권도 관련 기록 수집 - 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관람객 타겟팅 활동 추진

제2절 전문가 의견수렴

1. 의견수렴 개요

- 문헌분석, 관계자 의견수렴, 사례조사를 통해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한 1차안이 도출됨. 이를 토대로 각 추진 전략에 대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으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박물관 임직원과 내용적 동의 과정을 거침.
- 수정된 1차안에 대해 태권도 및 박물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외부자적 관점의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검토함.
- 각 분야 전문가는 박물관 임직원의 추천 및 논의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일정 등 여건상 비대면 서면 자문을 실시함.
- 각 전문가에게 도출된 박물관 중장기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비롯하여 전체 전략과제를 배포하였으며, 박물관 목표(비전), 기능(사업), 구조(조직) 등의 영역과 관련된 세부 의견을 취합함.

〈표 61〉 전문가 의견수렴 개요

구분	내용	세부내용
태권도 전문가	조사기간 및 방식	8/8(월)~8/18(목), 비대면 서면 자문
	조사대상	- 김영선 연세대 태권도부 및 국제태권도부 지도사범·연세대학교 강사 - 송형석 국기원 인문과학 선임연구원 - 이종관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조사내용	- 연구 추진 방향 및 세부 연구 내용 공유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 국립태권도박물관 목표(비전)/기능(사업)/구조(조직) 관련 의견수렴
박물관 전문가	조사기간 및 방식	8/17(수)~8/23(화), 비대면 서면 자문
	조사대상	- 백령 경희대학교 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이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 과장 - 김소리 국립국어원 국악박물관 국악연구실 연구2계 계장
	조사내용	- 연구 추진 방향 및 세부 연구 내용 공유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 국립태권도박물관 목표(비전)/기능(사업)/구조(조직) 관련 의견수렴

2. 태권도 전문가 의견수렴

1)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방향과 정체성

■ 세계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을 메인테마로 박물관 정체성 구축

-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은 개관한 지 8년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인지도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세계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이라는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체성 구축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전문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국립박물관은 해당 테마의 특색있는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라는 소재를 보다 깊고 심층적으로 접근하되, 이를 현대화하여 동시대성을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풀어낼 필요성이 있음. 이는 태권도를 과거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상에 두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국가 주도 차원의 국내 및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박물관임. 따라서 태권도에 관해서 모든 영역에 깊이 파고들어 박물관 사업과 연결해야 함. 주로 태권도의 역사적 콘텐츠를 주로 다루겠지만 태권도를 대상으로 한 정신, 기술, 교육, 문화, 예술 관련 모든 영역을 연결 시키는 아이টে을 개발해야 함. 이를 위해 태권도 발전사나 태권도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가치 평가를 해서 전시 등 활용하는 업무를 지속하는 것과 동시에 태권도 소재 예술 작품 발굴 및 제작도 고려해야 함. 특히, 일반적인 예술 분야 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특이한 태권도 소재 예술 작품을 개발해서 전시하거나 홍보하면 큰 효과성을 거둘 수 있음. (연세대학교 태권도부 및 국제태권도부 지도사범·연세대학교 강사)
- 태권도는 하나의 독립 체계로서 타 체계들(스포츠, 교육, 경제, 정치, 예술, 대중매체, 종교 등)과의 구조적 연동을 통해 다양한 하위 체계들로 분화되었음. 따라서 그 결과로서 나타난 다양한 종류의 태권도 의미론(semantics)을 규명하고, 이를 자산화할 필요가 있음.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허브로서 기능해야 함.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인문과학 선임연구원)
- 태권도인 다수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존재 자체를 모르며, 알고 있는 경우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임. 보다 적극적으로 태권도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태권도의 역사의 유물 및 자료는 앞으로도 유형과 관계없이 수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또한 태권도 생성과정과 시대적 환경과 변화, 발전 등을 시대별로 태권도사를 정리하여 관람자의 이해를 쉽게 할 필요가 있음. 박물관은 흘러간 과거를 조명하는 역할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해야 함. 체험은 태권도원과 연수원에서 실제 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체험이 아닌 영상물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게 하여 수련 욕구를 고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2)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방향에 따른 전략과제 및 우선과제

■ 소장품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요한 경쟁력은 소장품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음. 소장품을 수집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장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장품을 활용한 다각도의 전시 및 연구, 교육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새로운 태권도 관련 유물의 수집도 중요하지만 이미 수집되어 수장고에 보관된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의미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인문과학 선임연구원)
- 태권도 발전사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소장품을 수집하고 가치 평가를 진행해서 전시 등으로 활용하는 업무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연세대학교 태권도부 및 국제태권도부 지도사범·연세대학교 강사)

■ 태권도 역사 및 콘텐츠에 대한 조사 연구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태권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조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때, 조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마케팅을 접목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연구나 유물 및 자료 수집이나 역사적 사료 고증에 한층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 태권도 역사를 다룬 영문 서적의 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외국 박물관을 방문해 보면 그 박물관이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책이 몇 권 간행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매년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영문 태권도사 서적의 발간은 태권도의 홍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임.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인문과학 선임연구원)

- 태권도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콘텐츠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보다 많은 대중들이 태권도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을 제고하고, 국립태권도박물관이 대외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태권도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콘텐츠는 영화, 음악 등 일반 대중문화에서 ‘태권도’를 소재로 한 저작물을 말함. 즉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음악, 문학 등 일반 대중문화 분야에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태권도를 소재로 흥미분위로 제작된 상업적 작품을 망라함. 작품 제목에 ‘태권’ 또는 ‘태권도’란 말을 들어가며 태권도의 특징을 담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소비되는 작품을 말함.
- 태권도의 현대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산출된 태권도 대중 작품들의 수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태권도 내부에서 제작한 기념품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작가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음. 그 자체가 흥미로울 뿐 아니라 태권도 위상을 상승시키고 태권도가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인식되는 홍보 효과도 막대할 것임(예, 로봇태권브이 애니메이션, 각시탈 만화).

- 태권도 홍보 자료물로서 소장과 전시를 위한 실용적인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태권도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국립태권도박물관이 확보해야 할 각 분야별 태권도 대중문화콘텐츠에 대한 조사와 가치평가가 중요함. 면밀히 조사 및 발굴하여 태권도 관점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자료집을 제작한 후 원본을 확보해야 함. (연세대학교 태권도부 및 국제태권도부 지도사범·연세대학교 강사)

■ 다양한 방식의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변화 시도 필요

-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박물관은 문자 중심의 전시 내용 전달에서 엔터테인먼트적인 효과를 통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영상매체를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복합적인 연출을 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동안 수집된 유물을 영상으로 시대별로 제작하여 살아있는 역사물로 제작하고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서 실전되어가는 역사를 복원하는 것과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음.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또한 직접 체험보다는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 추가적인 예산 확보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이 박물관의 고유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박물관이 지니는 위상 및 역할을 더욱더 공고히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기구의 재정적, 행정적, 법적 지원을 더욱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계들의 자기생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어야만 함. 상보적 관점을 고려하여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인문과학 선임연구원)

■ 태권도원 연계 및 태권도 관련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타겟팅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물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는 명확한 타겟팅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 광범위한 범위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태권도원 연계 및 태권도 관련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타겟팅이 필요함.

- 무주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은 공간적으로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박물관 관람만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주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타 박물관의 관점에서 우선 과제(방문객 증가: 공중의 포함 규모 상승 방안)를 설정할 경우에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지금까지 경우에서처럼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즉, 박물관 측은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박물관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기보다 태권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즉, 학교 태권도동아리나 일선 태권도장 등 태권도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단체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공중의 포함 규모를 상승시키는 데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연세대학교 태권도부 및 국제태권도부 지도사범·연세대학교 강사)

3) 박물관 활성화 및 역할 제고를 위한 문화기관 연계방안

■ 태권도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구축 필요

- 태권도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협업구조를 마련해야 함. 박물관을 중심으로 태권도 관련 조사연구 및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을 중심으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이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인지도 제고와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우선적으로 태권도 유관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국기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태권도 단체나 태권도인들의 무관심이 상존하는 한 박물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움. 먼저 태권도 각 단체 간의 협력이 우선해야만 박물관 중장기 발전 방향을 이룰 수 있음. 교육은 태권도연수원, 역사, 정신, 철학은 국기원연구소, 경기에 관한 것은 세계태권도연맹이나 대한태권도협회, 유물의 고증은 태권도전문가를 활용할 것을 권함.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 태권도 역사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

- 오늘날의 태권도 역사는 세계화라는 흐름에 따라 국가 간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거듭해왔음. 따라서 태권도 분야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함에 따라 태권도 역사의 담론을 교류·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태권도 기술은 심사제도와 경기제도의 정착을 통해 표준화되어 세계화에 어려움이 없지만, 태권도 정신은 아직 표준화되지 못해 세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태권도 정신이 아직 표준화되지 못한 이유는 태권도 역사의 불분명성 때문임. 기존의 태권도 역사 서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증거보다 주장이 많다는 점임. 태권도가 무주에서 기원했다는 역사 서술을 지양하고, 해방 이후 태권도가 세계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태권도의 특이성과 장점 등을 돋보일 수 있는 역사적 내용이 중요함. 이러한 점에서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풍부한 사료를 토대로 실증적인 태권도 역사를 정리하는데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됨.

-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역사 관련 학회와 함께 태권도 역사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 예상됨. 국내 규모 학술대회의 경우 참여자가 100인 내외는 족히 될 것이며, 국제 규모 학술대회의 경우 300명 정도로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음. 학술대회는 홍보 측면만이 아니라 태권도 역사 연구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인문과학 선임연구원)

4) 지역사회 내 박물관의 역할 및 향후 확장 가능성

■ 다각도의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 내 박물관 역할 정립 필요

-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향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국립태권도박물관이 태권도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역할의 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태권도원의 활동과 중복될 소지가 다분하여 자칫 같은 조직 내에서 역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박물관의 역할 및 향후 확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 이에 비해 무주 및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확장된 네트워크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지역사회 내 박물관으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접근성 및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타 다른 기관, 조직, 정책 등과 결합하면서 태권도의 융복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존속과 확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타 체계들과의 구조적 연동이 필수적임. 교육 가능한 대상을 어린이에서 성인, 노인, 유아 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확장 시켜 나가듯이,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자원을 개발하고, 다른 체계의 조직들(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기업 등의 경제조직, 학회나 학술단체 등의 학술조직)과 구조적으로 연동될 필요가 있음.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인문과학 선임연구원)

3. 박물관 전문가 의견수렴

1)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방향과 정체성

■ 박물관의 국내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전략 수립 필요

- 공통적으로 국립태권도박물관에 대한 현재 낮은 인지도를 지적하며, 국립박물관으로써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제안함.
- 인지도 제고에 앞서 낮은 인지도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지난 박물관 사업성과 파악하고 국립박물관으로써 여건 및 환경 구축이 우선시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가장 기본적인 인지도 제고 방안으로는 박물관 소식지 발송 및 SNS 운영을 통한 홍보사업 및 박물관 서포터즈 운영 등이 있음.

- 현실적으로는 태권도박물관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국립’에 걸맞은 역할이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는 우선 기본적인 인적 구성이 매우 열악하여 대외 홍보나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인근 지역 외에서는 방문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함.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국립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박물관 건립 준비과정에서 프로그램, 연구 등 계획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됨. 개관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6년 동안의 박물관 성과를 파악하고 이후 2023-2027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생각해야 함. (경희대학교 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박물관 소식지 및 SNS 운영 등이 당장 태권도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됨. 더불어 박물관 서포터즈 운영으로 박물관 인지도를 높이고 의견수렴도 필요함.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또한, 태권도가 한국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높은 글로벌 위상을 가진 만큼 외국인 관람객 및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및 홍보를 제안함.
 - 구체적으로 세종학당과 같은 문체부 산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문화로써의 태권도를 알리며 태권도박물관 연계 홍보 등이 가능함.
 - 또한, 온라인 해외전시, 문화원 연계 태권도 공연 등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세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박물관 설립의 당위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라는 주제가 명확하게 있어, 태권도의 진흥과 대중화,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은 명확함. 따라서 태권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함. (국악박물관 국악연구실 연구2계 계장)

- ‘김치(kimchi)’와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어 단어가 ‘태권도(taekwondo)’일 정도로 ‘태권도’ 자체의 위상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매우 높은 편임. 따라서 ‘태권도박물관’ 역시 이에 걸맞은 내용을 담아서 널리 홍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국립박물관으로서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됨.

- 명실 공히 ‘국립’ 박물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더 나아가 국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지자체 및 문체부, 문체부 산하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현재 한류 붐에 힘입어 전 세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문체부 산하 재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세종학당’ 과목 중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과목에서 ‘태권도’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여기에 ‘태권도 박물관’을 소개하는 내용을 교재에 간단하게라도 넣는다면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임.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장기적 관점의 단계별 박물관 업무 환경 및 사업 개선 방안 필요

- 현재 박물관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의 문제점은 박물관의 물리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일부 해결하거나 예비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제시됨.

-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접근권이 용이하지 않은 박물관들이 흔히 겪는 문제로 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혜택을 확대하여 예비 인력과 지역 내 활동가들과의 소통을 확장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경희대학교 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현재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라키비움’ 사업에 대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이와 더불어 당장 결과를 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과제를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우선 현 여건에서 수행가능 과제부터 파악 후, 단기-장기 순으로 단계를 구분한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 과제별 실행계획 및 구체적인 운영체계 또한 제안됨.

- 현재 인적/물적 구성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과제, 2~4년 내 단기적 실현 가능한 과제, 5년 이후 장기적 실현 가능한 과제가 단계별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중장기 계획 범위 이후 5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2023-2025/ 2025-2027로 구분하여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번 연구의 액션 플랜을 만들어 담당자, 예산,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운영체계 (기획-평가 및 환류)까지의 구조를 마련해야 함.
- 태권도에 대한 인문학적 동시대적 연구(해석)를 통해 새로운 서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상설전 개편과 연 2회 기획전을 3년(2023-2025)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이 과정에서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자료를 정리 하고 아카이빙 방법을 찾고 연계하여 라키비움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 (경희대학교 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 박물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주요 과제 및 우선순위 과제

① 소장품

■ 체계적인 정리-분류-활용 과정 필요

- 현재 박물관에서 기증 및 수집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언급됨. 특히, 국가문화유산 시스템 등록을 비롯하여 소장품을 온라인 DB화하고 이를 토대로 라키비움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이는 전시, 조사·연구 등 다양한 박물관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임.

- 기증 및 수집된 자료의 후 작업이 충실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자료에 대한 정리, 분류, 연구까지 잘 이어져 연구집 발간이나 전시 등 자료의 활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함. 라키비움 운영을 위해서는 자료의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화와 소장품 연구가 우선시되어야 함.
- 특히, 후 작업들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작업에는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자료 수집의 목적은 자료의 활용, 대국민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을 선정해야

함. 기존 수집된 자료의 연구, 디지털화 등을 통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함. (국악박물관 국악연구실 연구2계 계장)

- 박물관 등록 이후 소장품의 종합시스템 등록 여부는 박물관 평가 인증에 중요함. 따라서 국가문화유산 종합 시스템 등록 작업이 필요함. (경희대학교 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소장품 관리, 전시 개발과 아카이빙이 함께 진행될 때 설계가 가능함. 라키비움을 전시(아카이빙)로 혹은 자료로 분류하느냐를 시작으로 라키비움 전시 운영 방안 필요함.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② 전시

■ 태권도에서 확장된 주제의 전시 콘텐츠 개발

- 태권도 관련 소장품만으로 전시를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태권도를 활용 및 연계한 주제로 소장품을 수집하고 전시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제시됨. 또한, 박물관에서 수행한 조사·연구 주제 및 결과를 활용한 전시 등의 변화가 요구됨.

- ‘태권도’는 ‘한글’만큼이나 중요하고 매력적인 우리 문화 콘텐츠이고 국내외 인지도 역시 매우 높지만, 타 박물관처럼 유물 등이 중심이 되는 박물관으로 활성화되기는 사실상 어려움.
- 이런 관점에서 ‘한글박물관’은 가장 근접한 모델이 될 수 있음. ‘한글’은 우리 문화의 정수이지만 또한 매우 추상적인 소재임. 따라서 한글박물관은 중요 유물 전시보다는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확장성 있게 전시와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체험 시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조사와 연구를 기반으로 상설전 개편에 대한 준비와 특별전, 기획전과 함께 비대면 AR 전시, 전시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변화와 태권도 관련 서사가 필요함. (경희대학교 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③ 교육·체험

■ 박물관만의 교육 방향성 확보 필요

- 박물관이 위치한 태권도원 내 다른 체험시설과의 차별점을 가질 수 있도록 박물관으로써의 교육 방향을 확립이 제기됨. 주변에 단순 태권도 체험이 가능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박물관 교육을 접목시켜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함.

- ‘단순 체험’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담론, 내용과 방법, 강사 수급,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경희대학교 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현재 박물관 프로그램과 지역 태권도 학원과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박물관으로서의 교육 지향점과 방향, 전략(체계적 접근) 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대상 다양화에 따른 교육 내용 구체화 필요

- 박물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대상을 아우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일반인, 유아동, 학생, 시니어, 외국인 등이 포함됨.

- 또한,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화가 요구되어지며, 대상별 중점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됨.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성인, 어르신, 외국인까지 모든 연령과 집단을 대상으로 제시되어야 함. 그리고 각 대상별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도는 제시되어야 함.
- 한글박물관에서는 전국 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초·중고 학급 단체 교육을 접수받아 진행하며 활성화되어있음. 또한, 외국인 및 재외 동포 대상 교육은 유관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외교부), 각 대학 어학당, 국립국어원, 세종학당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생을 유치하고 있음.
- ‘태권도’는 확장 가능성이 매우 많으며, 다양한 주제별 교육 대상 맞춤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역사는 모든 연령층에게 가능하고 태권도 관련 고문헌은 성인이나 태권도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고, 세계 태권도나 현대적 변주는 고등학생 이상, 성인 및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태권도와 보편적인 주제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일반적으로 국립박물관은 더불어 시대 보편적인 주제를 활용한 접근을 통해 사람들의 공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태권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확장이 요구되어짐.

- 국립박물관은 해당 주제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모두가 동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내용을 담아야 함.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이슈는 가변적이며 모두가 동감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립 기관이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태권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다양한 확장과 변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비대면 운영

- 기존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대상도 아동 및 초등학생에 집중되었던 만큼 이들의 교육과정을 연계한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기존 박물관에서도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전문가 의견에서 제안된 새로운 방법은 교육청과 연계한 학기 중 프로그램임.
- 우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는 박물관 소장품 전시-조사연구 등을 활용한 것으로 기존 연구내용을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함.
- 또한, 대면과 비대면 실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개발하여 박물관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태권도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 단체로 수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용: 태권도 역사, 기본 품새 등) 이를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기 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내용과 교구재로 대면 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초등 저학년은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 태권도는 ‘국기’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학교에서 채택하기 쉬우며, 비대면으로 진행 시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지역의 학교가 참여할 수 있음.

- 관련 강사 프로그램을 연구, 진행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연구가 우선되어야함. 자료가 충분하고 연구가 용이한 주제를 먼저 선정하여 연구 영역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획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효과적일 것임.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동시 제공 중요

- 접근성 극복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동시에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실시간 교육, 교육 동영상, 영상 강좌 등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다양한 대상별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영상 강좌를 개설하여 유튜브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시간상의 제약이 없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우면서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큰 방식임. 더불어 현장 참여 교육이 어려운 타 지역이나 국외 대상자를 고려하여 교육 영상과 이에 필요한 교구재, 활동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 또한 비대면 교육이 일반화된 현재에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 형태임.

- 비대면/온라인 교육 콘텐츠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태권도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비대면 콘텐츠 개발임. 줌이나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강의뿐 아니라,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영상 강좌 제작 및 배포 등이 모두 비대면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음. (한글박물관 교육연구과 과장)

3) 박물관 활성화 및 역할 제고를 위한 문화기관 및 지역 연계방안

■ 지역사회 내 박물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확장 기반 마련

-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무주)과 속한 태권도원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박물관 관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음. 특히,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유입시키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안됨.

-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박물관의 독자적인 프로그램보다 박물관이 속해 있는 태권도원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함. 숙박, 체험, 교육 등 태권도원에 방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물관도 관람할 수 있게 할 프로그램이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태권도 상설 교육 프로그램 등 태권도나 우리 문화를 주제로 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함. 특히, 지역사회 주민들을 방문객으로 먼저 유입시켜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방문하는 계기가 될 것임. (국악박물관 국악연구실 연구2계 계장)

- 또한, 박물관이 직접 지역주민 및 지역 내 기관, 시설 등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역할 및 입지 마련이 제시됨.

- 수요자를 박물관으로 유입하는 것이 어렵다면 거꾸로 박물관의 콘텐츠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국립국악원 2차 소속기관인 지방국악원이 남원, 진도, 부산에 위치하며 지방국악원은 관람객 유치가 어려움. 이에 트럭을 개조하여 무대처럼 만들어 '찾아가는 국악무대'라는 사업을 시행함.
- 또한, 지역의 문화향유 소외계층(보육원, 양로원, 병원 등)을 찾아가 소규모로 공연하는 사업을 추진함. (국악박물관 국악연구실 연구2계 계장)

■ 스포츠 분야 및 관련분야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태권도 관련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태권도에서 확장된 유사 분야 및 타 분야의 연구 기관 및 인력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박물관 활성화가 제안됨.

- 태권도 관련 대학, 연구소를 비롯해 몸, 움직임, 유도 등 다양한 영역과의 접점을 찾아야 함. 태권도, 국선도, 유도 등 국내 유사 수련, 권법등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활동이 필요함. 올림픽 기념관 및 체육 분야 박물관을 비롯한 유사 콘텐츠를 연구·전시기관과의 협업 구조를 마련이 필요함.
- 태권도뿐만 아니라, 음식 (몸), 수양과 명상 (정신), 복장과 의례를 포함한 인문학적 요소와 서예 등 전통 문화 관련 박물관과 문화원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교류전등이 가능함. (경희대학교 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4. 의견수렴 시사점

〈표 62〉 전문가 의견수렴 시사점

구분		주요 이슈	시사점 및 전략과제 적용 방안
박물관 중장기 방향성 및 정체성		- 인지도 제고 우선 - 국립박물관으로써의 위상 확립 요구 - 글로벌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태권도원 연계 및 태권도 관련 대상 전략적인 타겟팅 필요 - 태권도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구축 필요 - 박물관 사업 평가관리 및 환류방안 모색 필요	- 온라인 홍보 및 소통 체계 활성화 - 박물관 관람객 관리 및 뉴스레터 발송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박물관 평가관리 체계 및 환류 수행
전략과제 및 우선과제	소장품	-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유물등록 및 온라인 DB화를 기반으로 한 라키비움 사업 추진 필요	- 소장품 수집, 분류, 관리체계 구축 - 홈페이지 내 소장품 온라인 DB화
	전시	- 태권도 역사 및 콘텐츠 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전시 활용 - 태권도에서 확장된 주제의 전시 콘텐츠 개발	- 소장품 관리, 조사연구와 연계한 전시 콘텐츠 기획 - 상설전시 개편 - 온라인 전시 활성화
	조사·연구	-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태권도 역사 연구 심화 - 유관기관, 전문가 활용한 연구 활성화 - 타 분야 연계를 통한 연구 확장	- 단계별(단·중·장기) 조사연구계획 수립 -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
	교육·체험	- 교육 대상 다양화 -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변화 시도 필요 - 박물관만의 교육 방향성 확보 필요 - 태권도와 보편적인 주제를 담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비대면 운영 -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동시 제공 중요	- 일반시민/지역주민/태권도 전문가 등 대상별 프로그램 구성 - 일반적 주제~심화 주제 등 다양화 -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구상 및 제공
예산		- 박물관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후원, 공모사업 등 자원 다각화 확보
구조 및 조직		- 기존 인력 전문성 강화 - 지역인력 참여 방안 모색 - 예비학예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 단계별 박물관 업무 환경 및 사업 개선 방안 필요	- 조직 정비 및 업무 조정 - 박물관 인력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중장기 관점의 전문인력 충원
지역연계 방안		- 지역주민, 기관 연계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박물관 역할 정립 필요	- 찾아가는 박물관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문화기반시설 연계 사업 추진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전략과제

제1절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방향 및 비전 도출

제2절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전략과제

제1절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방향 및 비전 도출

1.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방향 도출을 위한 진단

1.1. 국립태권도박물관 현 단계 진단

- 중장기 방향성 도출을 위해 앞서 살펴본 거시환경 분석, 박물관 정책 및 동향 검토, 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태권도 및 박물관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내부적 강점(Strength) 및 약점(Weakness), 외부적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 요인을 분석하여 박물관의 현 단계를 진단함.

[그림 49] 국립태권도박물관 SWOT 분석

• 국내 유일 태권도 전문박물관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 • 태권도역사관, 라키비움 구축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 • 전문 박물관장 취임으로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체제 가동 • 학예사, 기록물관리사 등 전문인력 보유 •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 기술 도입 • 태권도 관련 풍부한 소장유물/자료 보유 • 개관 이래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 2017년 이래 꾸준한 관람객 만족도조사 진행으로 수요 파악 • 넓은 박물관 외부공간과 큰 규모의 전시관 보유 • 중장기 방안 수립으로 통한 박물관 운영 전문화 준비	• 박물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 부재 •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 점수미달로 인증 실패 • 박물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부족 • 수평적, 업무단위 조직체계 및 인력 부족 • 상설전시 콘텐츠의 노후화 • 부재했던 박물관 조사·연구 기능은 이제 시작단계 •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으로 접근성 취약 • 태권도원과의 차별되는 박물관 프로그램 부족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상생 협력 미비 •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로 한정된 관람객 • 단발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위주 • 온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 부진 • 코로나19 이후 관람객의 감소로 편의시설 없어짐
• 생활문화, 삶의 질 중심의 시민 가치관 변화 • 자유헌년제 확대, 주4일제 도입으로 인한 여가시간 확대 • 생활SOC를 통한 일상의 문화공간 조성 확대 • 태권도 미래발전전략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 박물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역할의 강조 • 융복합 관광문화도시 무주군의 위한 지속적 정책 • 태권도사관학교 등 태권도전문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	• 코로나19로 인한 관람환경 및 관람행태의 변화 • 문화예술 향유, 체험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요구 •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의 등장으로 박물관 대체재 증가 • 도 내 경쟁력 있는 타 박물관으로의 관람객 유출 • 무주군민들의 낮은 문화예술경험 및 프로그램 불만족

1.2. SWOT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도출

■ SO(강화전략): 태권도 진흥 및 향유의 허브로써 박물관 전문성 강화

- 국내 유일 태권도박물관이자 국립박물관으로 태권도 진흥과 향유를 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공고화
- 태권도 및 체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로 태권도박물관의 전문성 강화

■ ST(극복전략):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 발굴로 다각적, 양질의 프로그램 활성화

- 태권도박물관 고유의 창의적 콘텐츠의 발굴 및 적극적 자원 활용으로 박물관 프로그램 다각화
- 전시 외 교육·체험에 한정된 프로그램을 탈피,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 활성화

■ WO(보완전략):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일상의 박물관 실천

- 박물관의 전시, 조사연구, 대외협력, 시민소통 등 박물관 활동과 기능의 다양성과 전문성 담보를 통한 박물관 위상 강화
- 시민과 소통하는 박물관 활동을 위한 다각적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마케팅을 통해 가까운 일상의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 WT(방어전략): 환경변화,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국립박물관 역할 수행

- 시민의 일상과 연결되는 일상의 박물관, 참여의 박물관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실질적 전략 수립
-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박물관, 시민과 호흡하는 일상박물관, 태권도문화를 확산하는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역할 구체화

2.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방향 및 비전 설정

2.1.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방향

1 국내 유일 태권도박물관으로서 역할 정립 및 인지도 제고 노력

- 국기(國技) 태권도는 ‘한글’, ‘김치’와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진 한국문화 중의 하나임. 국내 유일 태권도박물관으로서 태권도의 역사와 가치를 정립하고 널리 확산하는 태권도 허브(hub)이자 향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태권도박물관은 부족한 운영 기반 및 지리적 위치로 인해 박물관의 존재 자체나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태권도 유관기관이나 태권도인³⁾, 대중들의 관심과 인식 확대를 위해 박물관의 역할 정립 및 대중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태권도 진흥 및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박물관 대상(target) 확대

- 현재 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 체험을 위해 태권도원을 방문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 단위 관람객에 대상이 한정되어있음. 태권도 진흥 및 대중화, 더 널리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내 태권도인을 비롯한 대상의 다양화(연령, 계층, 국적 등)를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박물관의 주요 대상층(타겟)을 전 세계 태권도인으로 확대 설정하고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국외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박물관 활동을 통해 태권도의 대중화, 세계화 기반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3 태권도의 인문학적 가치 해석·연결을 통한 콘텐츠 확장성 강화

-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에 관한 폭넓은 탐구와 조명, 태권도 콘텐츠의 창의적인 활용과 다양한 분야, 장르와의 다각적 연결을 통해 태권도의 콘텐츠 차별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태권도에 내재된 인문학적 가치 - 몸/신체(음식, 움직임), 정신(수양과 명상), 의식과 태도(복장과 의례) - 등을 한국 전통문화와 연결하는 등 다양한 해석과 연결을 통해 태권도 콘텐츠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단순 체험이 아닌 박물관에서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제공 등을 통해 태권도박물관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인을 태권도 분야 종사자, 태권도 전문가/신진연구자 및 태권도에 관심이 있는 생활체육인/일반대중으로 정의함.

4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한 박물관 전문성 및 활동 고도화

- 현재 태권도박물관의 여건으로는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태권도의 역사와 가치 정립 및 확산을 위해서는 태권도와 관계된 여러기관, 인력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태권도의 역사와 가치 정립이라는 중요한 목적 외에도 박물관의 주요한 활동인 태권도 소장품 관리, 조사연구, 전시, 교육 등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함.
- 태권도 및 국선도, 유도 등의 체육 분야, 지역문화기관, 해외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 분야와 장르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해야 할 것임.

5 박물관 운영 내실화, 전문화를 위한 필수적인 운영체계 구축

- 현재 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진흥재단의 부서에 해당하는 조직체계, 부족한 전문인력과 예산으로 원활한 박물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매우 허약한 실정임. 국내 유일한 태권도박물관, 특히 국립박물관이 가지는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재단의 재인식이 중요할 것이며, 그에 걸맞은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태권도박물관은 매우 저조한 점수로 미인증된 경험이 있는바, 대국민 문화서비스를 수행하는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탄탄한 운영 기반, 가장 필수적인 전문인력 및 실질적인 활동 예산 확보를 위한 매우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와 실천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을 달성, 박물관의 위상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임.

6 박물관 여건을 고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 구축

- 앞서 박물관 내부현황 분석 결과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태권도박물관은 필수적인 박물관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중장기 과제들을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음.
- 그러므로 더욱이 박물관의 기존의 운영방식과 업무체계를 탈피하고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인력 재배치, 예산을 효율적 분배와 집행을 통해 단계적인 변화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과제와 세부과제의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기반으로 박물관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단계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2.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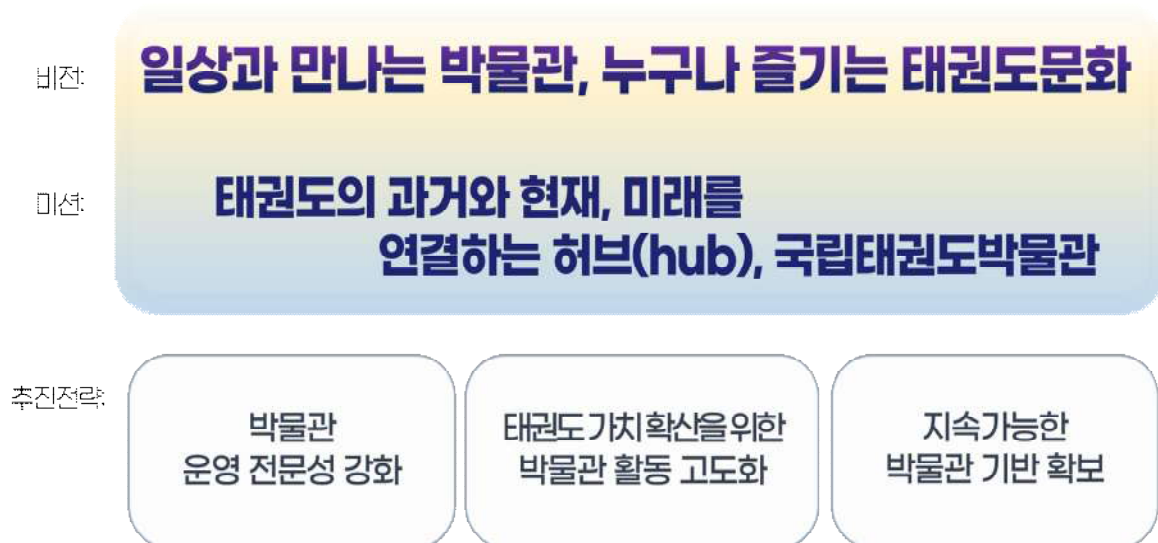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미션

- 위와 같은 중장기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비전과 미션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비전(안): **일상과 만나는 박물관, 누구나 즐기는 태권도문화**
 - 국내 유일 태권도박물관이자 국립박물관으로서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박물관으로의 새로운 전환과 변화를 내포
 - 국기(國技) 태권도의 진흥 및 더 넓게 만나는 태권도의 대중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박물관의 방향성과 역할을 의미
- 미션(안): **태권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허브, 국립태권도박물관**
 - 태권도의 역사와 가치를 정립, 확산하는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의 궁극적인 변화 상(像)을 제시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전략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중장기 추진전략은 태권도박물관의 향후 실질적 변화와 발전을 담은 전략목표에 해당됨.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전략은 1)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 2) 태권도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활동 고도화, 3) 지속가능한 박물관 기반 확보이며, 추진전략 영역별 전략과제와 세부과제를 수립함.

[그림 50]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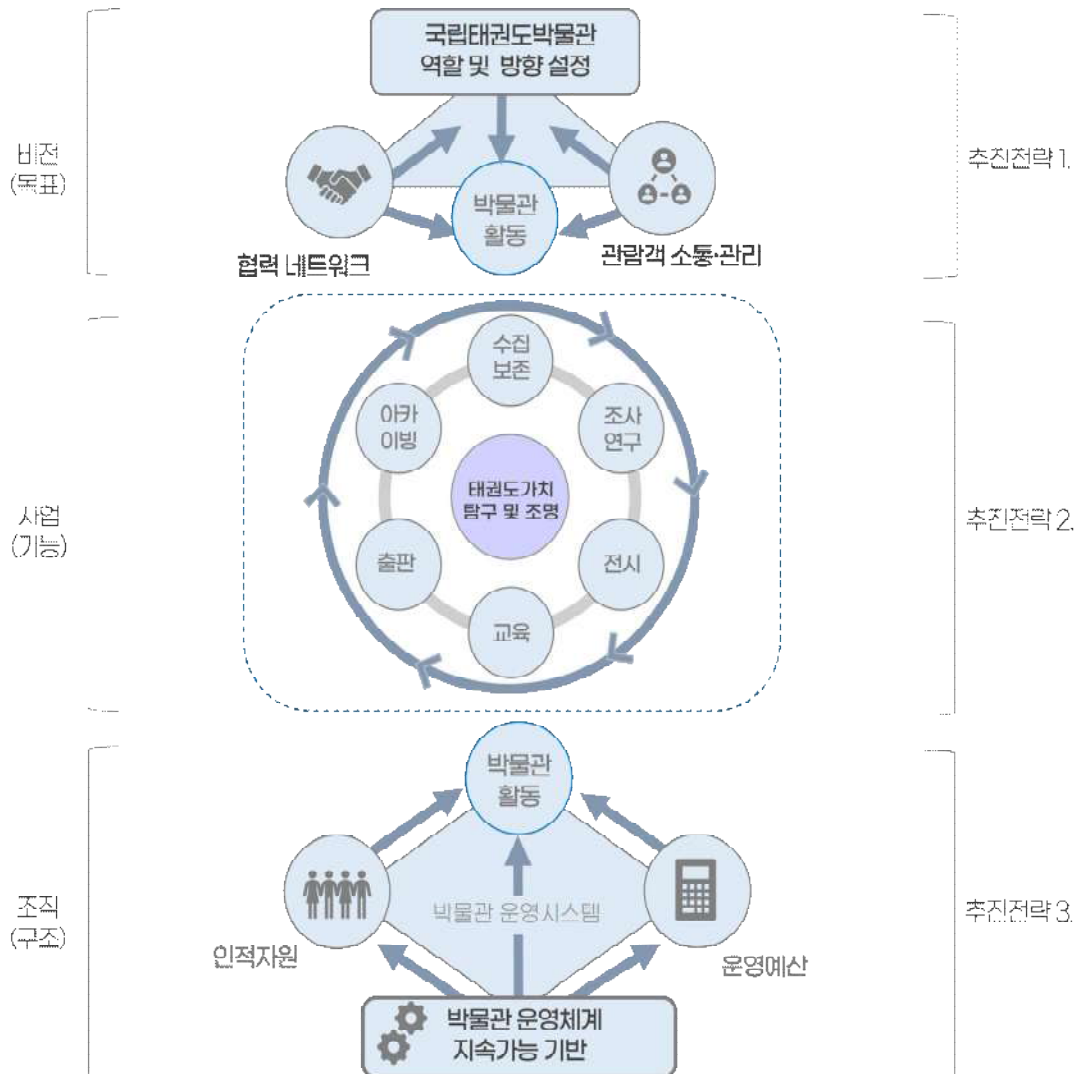


제2절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전략과제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도출

- 시스템 영역(비전-사업-조직)에 기반한 추진전략 및 전략목표 설정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미인증 결과의 실질적 개선을 고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지표와 연동된 전략과제 도출
- 3개 전략영역 11개 전략과제 도출, 전략과제별 세부 실행과제 제시
- 박물관 여건 및 현안을 고려, 박물관의 실질적인 개선의 전제가 되는 시급과제, 단기과제(2023~2024), 중장기과제(2025~2027)로 단계적 실행과제 제시

[그림 51]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전략 구조도



〈표 63〉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전략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비고(국립박물관 평가지표)
1. 비전(목표)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	1-1. 박물관 방향 수립 및 관리	(설립목적의 달성도) -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 - 기관장 전문역량
	① 박물관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② 운영위원회 운영 정례화 ③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달성	
	1-2.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공적 책임) - 법적, 정책적 책임준수 - 상생협력*
	① 태권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협력 강화 ② 전북지역/무주 문화기관 교류 활성화	
2. 사업(기능) 태권도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활동 고도화	1-3. 관람객 관리 및 소통 체계화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적) - 관람객 정책
	① 대중 소통 기반 구축 및 활성화 ② 박물관 관람객 관리체계 구축 ③ 박물관 서포터즈(후원) 운영	
	2-1.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자료 수집 - 자료 관리 - 자료 활용*
	① 소장품 수집, 분류 및 관리체계 구축 ② 기증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③ 전 국민 참여 기증 및 태권도 수기 공모	
	2-2.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 강화	
	① 단기-중기-장기 조사연구계획 수립 ② 조사연구 결과 공유 활성화	
	2-3.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적) - 전시 - 교육
	① 소장품 온라인 DB화 구축 ②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2-4. 전시 콘텐츠 전문화 및 다각화	
	① 상설전시 테마 및 콘텐츠 발굴 ② 기획, 특별전시 콘텐츠 다각화 ③ 전시 방식의 다변화	
3. 조직(구조) 지속가능한 박물관 기반 확보	2-5.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절성) - 시설 관리
	①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②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③ 태권도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2-6. 매력적인 공간 조성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절성) - 조직 및 인력 관리 - 재정 관리*
	① 박물관 공간 활용도 제고 및 환경 개선 ② 박물관 편의시설 확충	
	3-1. 박물관 조직역량 강화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절성) - 조직 및 인력 관리 - 재정 관리*
	① 박물관 전문인력 총원 및 단계적 확대 ② 조직체계 정비 및 효율적 업무분장 조정 ③ 박물관 직제 규정 신설 및 직제 변경 ④ 박물관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3-2. 자원 확보 방안 다각화	
	① 중장기 관점의 운영 예산 수립 ② 지자체 및 기업연계 협력사업 추진 ③ 박물관 후원제도 기반 마련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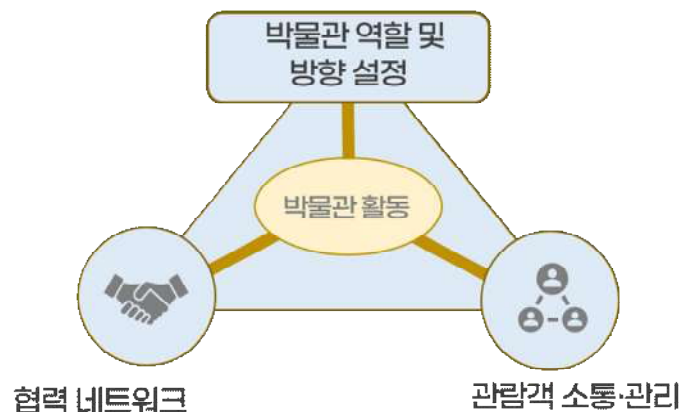
* 2021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시 50점 미만의 취약 항목

1. [전략목표 1]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

■ 박물관 역할 명확화, 국립문화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 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

-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원 연계 강화를 통해 태권도문화 진흥 및 폭넓은 향유를 위한 전략적 박물관 방향 설정 및 실천
-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의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성과환류체계 구축
 -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성과평가, 환류 실행
 - 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 정례화를 통해 박물관 운영 관련 논의구조 활성화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상생 협력’ 취약)에 대한 구체적 개선
 - 국내외 태권도 유관기관 및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위한 공공서비스 및 지역/지역민을 위한 기여도 제고
-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달성을 통한 박물관 인지도 및 위상 제고

[그림 52] 전략목표 1.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



〈표 64〉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시급	‘23	‘24	‘25	‘26	‘27
1-1. 박물관 방향 수립 및 관리							
① 박물관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	■	■	■	■	■	■
② 운영위원회 운영 정례화		■	■	■	■	■	■
③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달성	★	■	▲	▲	■	■	▲
1-2.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① 다각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	■	■	■	■
② 전북지역/무주 문화기관 교류 활성화				▲	■	■	■
1-3. 관람객 관리 및 소통 체계화							
① 소통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	■	■	■	■	■
② 관람객 관리 및 분석	★	■	■	■	■	■	■
③ 서포터즈(후원) 운영		▲	■	■	■	■	■

1-1. 박물관 방향 수립 및 관리

■ 현황 및 이슈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개관 8주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박물관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미비
- 본격적으로 박물관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만큼 분명한 박물관 방향 수립과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세계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으로서 새로운 접근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추진방향 및 목표

- 중장기 발전 방향 및 관리를 통한 박물관 내실화 마련
- 세계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에 알맞은 운영 기반을 통한 정체성 및 위상 확보

■ 세부과제

과제 1) 박물관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 박물관의 본격적인 전문화를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단계임
- 박물관의 중장기 비전에 따른 계획과 이에 부합하는 평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박물관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화 마련
-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와 연동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평가체계 구축
- 연 단위, 3~5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단기, 중장기, 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과정-결과 평가 및 환류 체계를 적용하여 질적인 성장 중심의 체계 마련

과제 2) 운영위원회 운영 정례화

- 현재 연 2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국립태권도박물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음
- 태권도진흥재단과의 협력 및 규정 관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
- 연 2회 정기회의의 안정화 및 향후 정기회의와 연계한 국립태권도박물관 브랜딩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으로 확장 가능

참고사례 1: 한국수자원공사/ 정책자문단 출범 및 홍보자문위원회 토론회 진행

-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자문단 출범 및 정기회의의 진행
- 정책자문단은 정책, 벤처, 데이터, 동반성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역량과 지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
- 더불어 총 11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K-water 브랜드의 위치, 브랜드 혁신 필요성 및 방향성,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제 등을 제시
- 내부 회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아젠다에 대해 공유하고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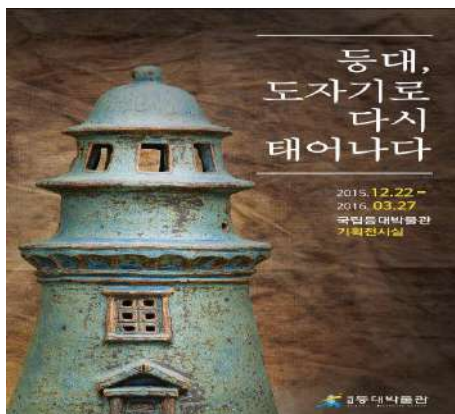


과제 3)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달성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미인증된 이후, 국립태권도박물관은 2023년 인증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 각 평가지표 영역별 검토 및 정기회의를 통해 평가인증제 대비
- 평가지표에 대비하여 시급 과제에 대한 세부 전략 방안 수립 및 실행

참고사례 1: 국립등대박물관

- 1985년 개관한 국립등대박물관은 등대해양문화 가치 확산과 국민과 소통하는 국립등대박물관이라는 비전과 등대해양문화의 보존과 계승 발전 기반 마련, 등대해양문화의 확산과 세계화라는 목표 수립
- 2020년 진행된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과 공적 책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기획전시와 함께 연계된 등대 도자기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진행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아동센터에 등대탐구 꾸러미 2,000세트 기부 등 지속적으로 관람객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실현



1-2.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현황 및 이슈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상생협력 지표에서 37.14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상황
- 지역사회 내 박물관의 연계 및 상생이라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 수립 필요

■ 추진방향 및 목표

- 네트워크를 통한 태권도 연구 및 정보교류 확대
-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류 사업 추진을 통한 거점 박물관으로의 위상 강화

■ 세부과제

과제 1) 다각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현재 대외적인 태권도 관련 연구 및 네트워크는 구축되지 않은 상황임
- 태권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태권도 대표 3대 조직(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 세계태권도문화학회, 한국태권도학회, 태권도과학연구소, 태권박스미디어, 대한무도학회, 한국사학회, 한국체육사학회, 태권박스 미디어, 태권도학과, 동아리 등 융합적 토대 구축 및 강화
 - 국제교류는 태권도진흥재단 내 협력사업과 연계
 - 공동연구 및 인적자원의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 추진
 - 연구주제 공모전 실시 및 공동연구 진행을 통한 연구성과물 발간
- 타 분야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현재 타 분야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는 구축되지 않은 상황임
 - 타 분야의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및 협력 구축
 - 세종학당재단, 재외동포재단, 전라북도 교육청,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 협약 및 공동 프로그램 추진

참고사례 1: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은 2022년 6월 24일 (사)한국민속학회와 공동기획으로 1932 조선민속학회, 민속학 90년이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 1부(1932 조선민속학회와 한국 민속학사), 2부(근대 민속학의 출발과 조선민속학회 연구성과)로 구성
- 그 밖에도 <박물관, 디지털과 커뮤니케이션>, <물질문화 비교연구와 민속박물관> 등을 개최



참고사례 2: 국립고궁박물관/ 국가기록원 업무 협약

- 국립고궁박물관과 국가기록원은 기록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문화재)보존에 대한 협조,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기록물(문화재)의 공동 활용에 대한 협력을 추진



참고사례 3: 한성백제박물관/ 수도권 광역지자체 박물관 협력망 구축 업무 협약

- 한성백제박물관은 경기도박물관,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과 함께 수도권 광역지자체 박물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시, 유물,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경기 남부권 마한·백제 유적 발굴성과 특별전 관련 학술심포지움을 공동 개최
- 행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 및 교육도 함께 연계할 예정
- 오프라인 연계에서 나아가 온라인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확산에 주력



과제 2) 전북지역/무주 문화기관 교류 활성화

- 현재 무주 내 문화기반시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에 가입되어있으나 가시적인 활동 및 교류는 부재함
- 전북지역 문화기관 교류 활성화

-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개최
- 전라북도 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복지 및 교육 기회 제공
- 공동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내 거점 박물관으로의 역할 확립 및 방향성 수립

■ 무주 문화기관 교류 활성화

- 무주 내 문화기반시설 협의체 재활성화 추진
- 공동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입장권 할인, 통합 입장권 판매, 연계 셔틀버스 운행 등 방문객 편의 제공
- 주말 특별 프로그램,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지역 활성화 기여

참고사례 1: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회원관 소식 안내

-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홈페이지 회원관에서는 각 기관의 전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상호간 네트워크를 도모
- 자료마당, 이달의 행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아카이빙



참고사례 2: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 송파구에 위치한 8개의 박물관(소마미술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몽촌역사관, 송파구립 예송박물관, 송파책박물관, 한국광고박물관, 한미사진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이 공동으로 연계 협업체 진행하는 전시관람 및 체험 프로젝트
- 참여기관 어느 곳에서나 감상활동지를 받은 후, 각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및 확인 도장을 받음



1-3. 관람객 관리 및 소통 체계화

■ 현황 및 이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소통 활동이 저조한 상태임에 따라 박물관 홍보 활성화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
- 관람객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립태권도박물관에 꾸준한 관심을 지니고 방문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 추진방향 및 목표

- 온라인 공간에서의 박물관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관람객 특성·이용 행태·관람 수요 등의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유입 전략 구축
- 관람객, 잠재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시간의 박물관 활동 홍보

■ 세부과제

과제 1) 대중 소통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황임. 물리적 위치가 갖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홈페이지 정비
 - 홈페이지 이용의 개선점 모색 및 홈페이지 정비의 당위성 조사
 -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박물관 정보 파악 및 교육 신청에서의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
 - 물리적인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확대
 - 소장유물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풍부한 정보 제공
 - 외국인 대상 다국어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리뉴얼 기념 이벤트 진행
- 소식지 발간 및 메일링 서비스
 - 박물관 온라인(뉴스레터) 발간하여 박물관 홍보, 프로그램 안내, 행사공지
 - 초기에는 계간지 개념으로 실시, 박물관 활동 활성화 이후 월간지로 확대 발간
 - 박물관 관람객,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주소 수집하여 뉴스레터 발송
- 공식 SNS운영 활성화
 - 박물관 주요 전시 및 프로그램 관련한 상시 업데이트 진행, 재단 내 대외협력실과 연계
 - 카드뉴스 제작하여 전시 및 박물관 연계 코스 등 홍보 콘텐츠 제작
 - 박물관 학예사, 서포터즈 등 전시 소개 및 프로그램 관련 유튜브 영상 기획 및 공유
 - 공식 SNS 연계하여 '일상 속의 태권도', '용기가 필요할 때 기합을' 챌린지 등 태권

도 접목 이벤트 실시

- 박물관 마스코트·공간 이름짓기 등 시민공모 이벤트로 함께 소통해나가는 박물관 이미지 구축
- 여름·겨울 기간 한정 박물관 (재)방문 인증 이벤트 실시하여 태권도 기념 및 숙박할 인권 제공

참고사례 1: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 리뉴얼

- 경기무지엄파크의 MI 컬러시스템을 적용한 화면구상
- 소장유물과 전시, 교육 등 아카이브 기능을 대폭 향상하여 새롭게 오픈
- 교육 및 대관신청은 경기문화재단 통합시스템인 지지씨멤버스를 통해 절차를 최소화
-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여 가독성과 전달력 향상



참고사례 2: 국립해양박물관/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 이달의 소식, 인기콘텐츠, 소장품, 자주묻는 질문 등의 내용이 담긴 뉴스레터 발간
- 일상 속에서 소통하며 보다 친밀한 박물관으로의 접근 모색



참고사례 3: 국립중앙박물관/ 방구석왕놀이 챌린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벤트
- 틱톡 앱을 활용하여 신라금관, 금귀걸이 등 장신구 스티커를 활용해서 집안에서 놀이를 즐기는 영상 업로드



과제 2) 박물관 관람객 관리 및 분석

- 박물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에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관람객 리스트가 부재하여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이용객 설문조사에 어려움을 겪음
- 단순히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아닌 실제 국립태권도박물관 발전 방향이 도출될 수 있는 설문 설계 강화
- 방문객 특성 및 방문 경험, 전시·교육·홈페이지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비전과 미션에 연계되는 방향성 관련 항목을 추가
-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참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진행
- 조사 결과를 박물관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하여 SNS를 통해 정보 제공

참고사례 1: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설문조사를 활용한 콘텐츠

- 관람객 설문조사의 내용을 박물관의 실질적인 정보로 재구성
- 웹진 및 SNS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



과제 3) 박물관 서포터즈(후원) 운영

-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나가는 박물관의 활동이 부재하여 다양한 시각의 박물관 활동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동·청소년·청년·가족 등 유형별 서포터즈 모집
- 태권도, 태권도 연계한 문화예술, 무주 및 전북지역 등에 관심 있는 지원자 선발
- 기획 및 특별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박물관 참여 및 온라인 홍보
- 명예 서포터즈 선발하여 이름 자수 태권도복 등 이색 기념품 제공

참고사례 1: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어린이·가족 서포터즈 운영

- 연 2회 어린이 10명, 가족 10가족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선발

- 취재, 인터뷰, 촬영 등 박물관 관련 콘텐츠 제작 및 박물관 행사 현장 지원 활동 등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활동기간 내 박물관 무료관람, 서포터즈 활동 물품 지급, 자원봉사 활동 인정 등 혜택 제공



동두천시 경기박물관어린이가족 서포터즈 모집

모집개요
 모집기간: 2018.1.29 ~ 계속
 모집대상: 어린이, 서포터즈, 초·중·고교 4학년~대학1년 학생, 가족, 커뮤니티, 후원자, 교육자, 지역 인사, 후원 가족
 모집인원: 어린이 서포터즈: 50명, 가족 서포터즈: 100가족
 활동기간: 2018.2. ~ 2018.6.25(제1회), 8주(주회 1회) 7월중 개최

활동내용
 취재, 인터뷰, 촬영, 공익인 활동, 후원, 콘텐츠 제작, 어린이박물관 관련 행사 현장 지원, 어린이박물관 교육 사정 등

활동혜택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활동 기간 어린이박물관 무료 관람, 박물관 기념품 및 서포터즈 활동 물품 지급,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

신청방법
 어린이박물관, 제1회@childrensmuseum.or.kr, 지원서 받음(필수)

선발방법
 서류 합격자에 한해,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2차 인터뷰
 개별 인터뷰, 2018.1.30(예정)

최종발표
 2018.1.31(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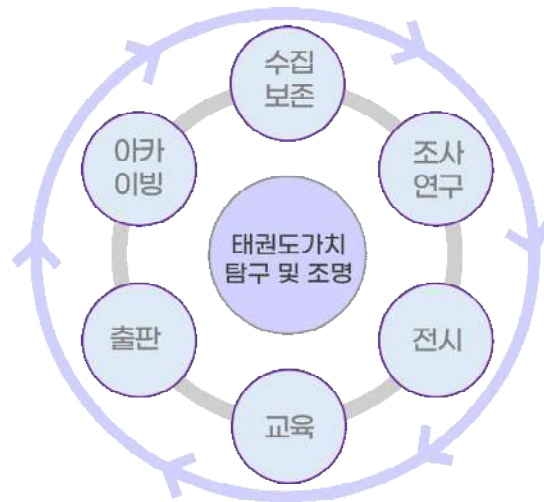


2. [전략목표 2] 태권도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활동 고도화

■ 박물관 활동 영역의 체계적 수행과 활동간 유기적 연결

- 박물관 시스템 관점에서 수집→관리→조사 연구→전시→교육→출판→아카이빙의 일련의 박물관 활동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박물관 활동의 전문성 강화
- 박물관 대상의 다양화를 위한 일반시민, 지역, 태권도인 대상의 타겟화 추진
- 박물관 공간 활용도 제고 및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조성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자료 활용’ 취약)에 대한 구체적 개선
 -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 추진을 바탕으로 상설전, 기획/특별전 콘텐츠 발굴,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아카이빙 및 향후 라키비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

[그림 53] 전략목표 2. 태권도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활동 고도화



〈표 65〉 박물관 활동 고도화를 위한 과제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시급	'23	'24	'25	'26	'27
2-1.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① 소장품 수집, 분류 및 관리체계 구축	★	■	■	■	■	■	■
② 기증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	■	■	■	■
③ 전 국민 참여 기증 및 태권도 수기 공모			▲	■	■	■	■
2-2.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 강화							
① 단기-중기-장기 조사연구계획 수립	★	■	■	■	■	■	■
② 조사연구 결과 공유 활성화				■	■	■	■
2-3.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장품 온라인 DB화 구축	★	■	■	■	■	■	■
②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	■	■	■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시급	'23	'24	'25	'26	'27
2-4. 전시 콘텐츠 전문화 및 다각화							
① 상설전시 테마 및 콘텐츠 발굴			▲	■	■	■	■
② 기획, 특별전시 콘텐츠 다각화			▲	■	■	■	■
③ 전시 방식의 다변화			▲	■	■	■	■
2-5.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①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	■	■
②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
③ 태권도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	■	■	■	■
2-6. 매력적인 공간 조성							
① 박물관 공간 활용도 제고 및 환경 개선	★			▲	■	■	■
② 박물관 편의시설 확충				▲	■	■	■

2-1.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 현황 및 이슈

-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은 국내외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의 정체성에 알맞은 소장품 확보 및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 다각도의 소장품 수집을 통해 태권도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 및 활용함으로써 내실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및 목표

-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보존과 전파를 위한 소장품 확보 및 관리체계 수립
- 유물 기증에 대한 절차와 예우 확립을 통한 체계적인 소장품 확보/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태권도박물관의 활성화 및 확대

■ 세부과제

과제 1) 소장품 수집, 분류 및 관리체계 구축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 영역의 출발점이 되는 소장품 수집, 분류 및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여타 국공립박물관에 비해 소장품 수가 현저히 적으며, 표준 유물관리 시스템 등록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박물관 전문화와 내실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과 연계된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단기, 중장기 추진계획 등 2022년부터 2023~2027년까지의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
- 단기(2023~2024) 기간은 소장품 수집위원회(운영위원회, 태권도 전문가, 박물관 전문가 등)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구축, 소장품 관리 내실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가칭)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품 수집위원회(운영위원회, 태권도 전문가, 박물관 전문가 등) 구성 및 운영
 - 내부 관리체계, 소장유물 가치 평가, 중앙 유물관리시스템 유물 등록
 - 기증 및 위탁, 구입 등의 단계적 추진
- 중장기(2025~2027) 기간은 일차 정비된 박물관 소장유물 기반 적극적인 조사연구 추진 및 추가적인 소장유물 수집을 위한 적극적인 실행을 추진하며, 소장유물 연계 전시 운영 등 태권도 가치 전파를 위한 온오프라인 다각적 프로그램 운영
 - 태권도 콘텐츠 확장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 태권도 자료 및 교재 등의 영문화 추진으로 해외교류 기반 마련
 - 소장유물, 조사연구 연계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 기획·운영
- 전통과 현대를 잇는 수집 활동을 통해 태권도를 미래자산으로 인식하며, 기증 및 위탁, 구매, 조사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 소장유물 및 태권도 콘텐츠 확장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지속

- 향후 제안할 수 있는 조사연구 주제로는 태권도 역사 조사연구, 해외태권도 교류 방안 연구, 대중문화 콘텐츠 속 태권도 개발 연구, 기존 태권도 교재 연구의 영문화 작업 등이 있음
- 이후 소장유물을 연계한 전시기획 등의 온라인 공유 지속

〈표 66〉 소장품 수집, 분류 및 관리체계 추진 계획(안)

연도	추진내용	조사연구/전시 연계
2022	▪ (가칭)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품 수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 추진 연구결과의 활용
2023	▪ 내부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 기 소장유물의 가치평가 기준 마련 - 소장유물 수집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 태권도 역사 관련 조사연구 추진 - 태권도의 근현대사 조사연구 - 해외 태권도인 조사연구
2024	▪ 중앙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 등록 ▪ 소장유물 DB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공개 ▪ 기증 및 위탁, 구입 등 다각적 수집 추진	
2025	▪ 소장유물 관련 조사연구 추진 지속 ▪ 기증 및 위탁, 구입 등 다각적 수집 추진 ▪ 전 국민 참여 기증 및 태권도 수기 공모	▪ 태권도 콘텐츠 확장을 위한 조사연구 추진 - 대중문화콘텐츠 속 태권도 콘텐츠 개발 - 타 장르와의 융합콘텐츠 개발
2026		▪ 태권도 자료 및 교재의 영문화 작업 추진 ▪ 소장유물 연계 전시 기획·운영 ▪ 조사연구 결과 연계 전시 기획·운영 - 타 장르와의 융합콘텐츠 개발 - 온라인 소장유물전 등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 추진
2027	▪ 태권도 유관기관 협력 〈태권도 역사展-태권도 미래: 소장유물전〉(예시) 추진 ▪ 기증 및 위탁, 구입 등의 추진 지속	▪ 태권도 유관기관 협력 태권도 유물 순회전 기획·운영 ▪ 온라인 전시 활성화

과제 2) 기증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 현재 기증 가이드라인 및 예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소장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기증 가이드라인 마련
 - 박물관 학예 내부인력·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외부전문가와 연계해 기증 유물 수집의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
 - 기증대상, 기증절차, 기증제한, 기증유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 후 홈페이지에 명시
-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규정 상 기증자에 대한 예우 정비

- 홈페이지에서 기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 및 역할 공지
- 기증 증서 및 감사패, 기증자 성명 영구 게시, 홈페이지에 기증자 및 기증유물 공개, 박물관 주요 행사 초대 등
- 기증자와 함께하는 연계 프로그램 운영

참고사례 1: 경기도박물관/ 기증 유물 관리활용

- 박물관의 소장품 중 기증 유물이 약 50%에 달하며, 박물관 설립의 모태가 됨
- 기증절차, 유물관리 방안, 기증자 예우 등 가이드라인 구축



참고사례 2: 한성백제박물관/ 기증자료 특별전시회 및 초청강연

- 기증자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의 문양을 담은 자료를 선별한 <문양으로 보는 하늘·땅·사람> 특별전시회 개최
- 기증유물특별전 <동북아 역사 속 우리 숨결>과 연계하여 박물관 연구 성과를 널리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동아시아 역사·문화의 원류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증자와 초청 강연을 개최



과제 3) 전 국민 참여 기증 및 태권도 수기 공모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대외적인 인지도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시민들이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필요함
- 전 국민 참여 유물 기증 운동
 -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유물 기증 운동 상시 진행
 - 기증 운동 관련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한 참여 도모
 - 태권도 대회 관련 성과물, 기록 문서, 기념 인쇄물 및 영상물, 운동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
 - 소장품 분류 및 관리체계와 연동하여 최종 수집 유물 확정
 - 기증자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 제고
 - 기증 유물을 활용한 전시 및 교육 연계
 - 기증 자료집 발행 등 2차 콘텐츠화 진행
- 태권도 수기 공모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 수기 공모전 진행
 - 수기 공모전의 네이밍을 통해 차별화된 접근방안 마련
 - 광범위한 수기 공모를 위한 해시태그(#) 이벤트 진행
 - 나의 태권도 이야기, 생활체육 등 일상에서의 태권도에 대한 기억과 경험, 장소 수집
 - 공모 결과의 실제 내용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유
 - 공모 당선자들을 국립태권도박물관으로 초대하여 전시 및 프로그램 제공
 - 전시 콘텐츠로 활용 가능

참고사례 1: 국립항공박물관/ 전 국민 유물기증운동

- 2020년 개장한 국립항공박물관은 설립 단계에서 전시에 필요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물 기증 운동 실시
- 항공역사·인물·비행기·항공과학·영공 등 항공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대상
- 기증자에게 감사패 및 기증증서를 증정하는 예우 계획 수립
- 소장 유물로 등록되어 전시 및 학술·교육 자료로 활용



참고사례 2: 돈의문박물관/ 기억전당포

- 서울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사진, 영상, 물품 공모전

2-2.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 강화

■ 현황 및 이슈

- 태권도진흥재단 진흥사업부에서 태권도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박물관 자체 조사연구 사업은 초기 추진 단계임
- 박물관 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조사연구 실행의 한계 발생으로 외부 연구 기관 및 전문가 연계 필요함

■ 추진방향 및 목표

- 국내외 태권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연계
- 네트워크 내 연구자 네트워크를 파악하여 박물관과 지속적인 연구 협력체계 추진
- 조사연구 체계 및 내용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연구용역 형태로 발주

■ 세부과제

과제 1) 단기-중기-장기 조사연구계획 수립

- 태권도 조사연구 체계 구축
 - 박물관 내부 학예인력, 외부 산학연계
 - 태권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내 연구 인력 풀 파악
 - 기존 태권도진흥재단 조사연구 수행 기관 및 연구자 파악
 - 연구 인력 풀 관련 학회 등 연계하여 <국립태권도박물관 조사연구 위원회> 조직
 - 박물관 조사연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년 임기제, 연구 기획/실행/평가/자문)
 - 자유로운 연구인력 활용을 위한 홈페이지 내 <연구인력 등록> 탭 추가 및 활용
- 조사연구 로드맵 수립 및 추진
 - 전시 의제 개발, 소장품, 아카이브 활성화 연구 등 영역별 조사연구 로드맵 수립
 - 연구 주제 공모 등을 통해 우선순위 주제 선정 및 단계별 연구 추진 계획 수립
 - 연구 주제별 수행 연구기관 및 전문가 인력 풀 매칭 후 섭외 추진

과제 2) 조사연구 결과 공유 활성화

-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 보고서 출판 및 유관기관 발송
 - 박물관 홈페이지에 보고서(PDF/E-book)를 게시하여 자유롭게 공유
 - 보고서를 발췌하여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하여 연구내용 공론화 시도
- 뉴스레터 발송
 - 일반 시민 및 기존 박물관 관람객 대상 뉴스레터 DM 발송
 - <박물관 소식지(뉴스레터)>에서 조사연구 보고서 소개 페이지 구성을 통해 결과 공

유 및 확산

- 홈페이지 내 보고서 페이지 링크 연결하여 상세내용 안내
- 뉴스레터 구독자 대상 조사연구 보고서 만족도 및 주제 수요 조사 실시

■ 학술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학술 세미나 및 포럼 개최하여 연구 결과 공유(기초강연, 주제발표 세션)
- 조사연구 주제 연계 연례 학술회의 개최
- 조사연구 참여 전문가 및 관련분야 연구자 대상 연구 발표 기회 제공
- 해외 태권도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 연계 국제 세미나 개최
- 홈페이지에서 세미나 및 포럼, 학술회의 발표자료 및 내용 게시

■ 박물관 홈페이지 내 조사연구 페이지 추가

- 보고서 공유, 학술 세미나 및 포럼 홍보 및 신청, 결과 공유 등 게시
- 조사연구 보고서 만족도 조사 및 주제 수요 조사 추진
- 조사연구 내용 활용 퀴즈 이벤트 실시
- 조사연구 보고서 및 뉴스레터 발송 동의 및 이메일 수집

참고사례 1: 과천 추사박물관 업무협약을 통한 교류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산하 추사관과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정보 공유, 콘텐츠 개발 및 행사 협력
- 특별기획전에 상호 소장유물을 대여해주며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학술출판물 등 양 기관의 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결과물 교환
- 유관기관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 및 행사 협력 추진
- 2020년 국내 추사와 관련한 4개 기관(세계유산본부, 서울 예술의전당, 과천 추사박물관, 예산 추사기념관) 공동으로 전시 『추사 김정희와 청조문인의 대화 - 한국전』 기획 및 개최



참고사례 2: 서울역사박물관/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 서울역사박물관, 중국 북경수도박물관, 일본 에도도쿄박물관은 BESETO 협약 중 문화교류 협력을 위해 2002년부터 심포지엄을 순회 개최
- 주제에 따라 전문가 초청 발표 및 토론, 특별전 동시 개최
- 국내 개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진행하며 심포지엄 영상자료 게시



2-3.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현황 및 이슈

-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라키비움 구축 사업은 박물관 주요 사업으로 태권도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공유를 통해 대중들에게 태권도를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강함.
- 이미 라키비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사업이 추진된 바가 없음.

■ 추진방향 및 목표

- 박물관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박물관 방문 및 온라인 전시 관람 유도
-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박물관 소장품 활용의 장으로 역할

■ 세부과제

과제 1) 소장품 온라인 DB화 구축

- 온라인 소장품 아카이브 제공
 - 홈페이지 내 소장품 관련 자료 업데이트
 - 소장품 관련 정보 및 사진 및 영상자료 게시
 - 소장품 연도별, 주제별, 유형별, 유물 기증자별 소장품 분류 검색 체계 구축
- ‘이달의 소장유물’ 소개
 - 소장유물 중 큐레이터 선정 또는 월별 테마 선정하여 관련 유물 1개 소개
 - 유물 관련 기본정보, 기증자 소개 등 다양한 소장품을 집중 조명
 - 유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시각 및 영상자료 링크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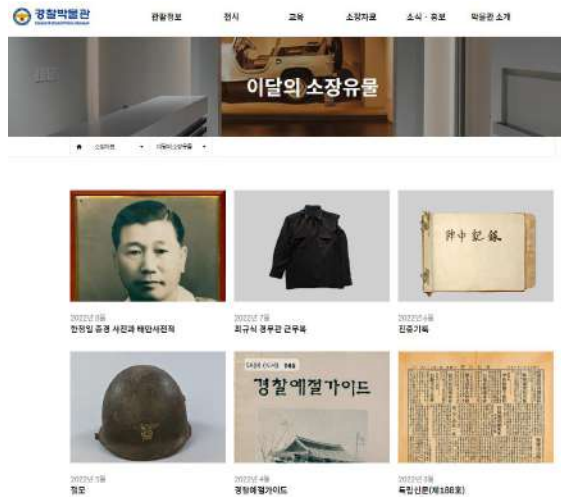
참고사례 1: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 2022년 8월 개관(예정)이며, 미리 현대미술의 중요 기록과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하는 미술관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서비스 시스템 공개
-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고자 함



참고사례 2: 박물관별 이달의 소장유물

-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내 소장자료 탭에 '이달의 소장유물' 지정 및 소개
- 유물 이미지 자료, 설명 자료 및 관련 내용 게시
-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내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 소개
- 유물 관련 정보 및 소장 위치 안내
- 추가 이미지 및 영상자료 게시, PDF 파일 동시 제공



과제 2)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 라키비움 홈페이지 <태권 아카이브> 구축 (온라인 자료 정리)
 - 박물관 홈페이지 내 라키비움 홈페이지 링크 연결
 - 박물관 소장 자료 연계 및 라키비움 자료 체계화
- 아카이빙 도서관 조성 (오프라인 공간)
 - 박물관 1층 유휴공간 활용 자료 검색, 열람, 개인 연구 및 학습 공간 조성
 - 소장품 실물 레플리카 자료실 운영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3개월 시범운영을 통한 보완사항 파악 및 반영
 - 어린이, 일반인, 전문가 맞춤형 자료 안내 서비스 제공

참고사례 1: 서울공예박물관 이동형 아카이브, '한국공예상자'

- 현대도예 · 산업디자인 · 미술아카이브 · 도자사 분야 전문가들과 10여 명의 작가와 장인이 제작에 참여
- 168cm 높이 상자에 실물표본을 수납한 키트 형태로, 고정된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아카이브와 달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전시, 교육, 체험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상자 2개(재료상자, 기법상자)가 한 세트로 구성되며, 총 124점의 실물표본을 담고 있음
- 백자의 주요 원료인 태토, 유약, 안료 등을 직접 만져보면서 완성품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원재료가 공예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 가능
- 개별 표본의 세부정보 DB와 표본화가 어려운 성형 과정, 제작도구, 번조 과정 등은 QR코드를 활용해 영상 · 디지털 콘텐츠로 연동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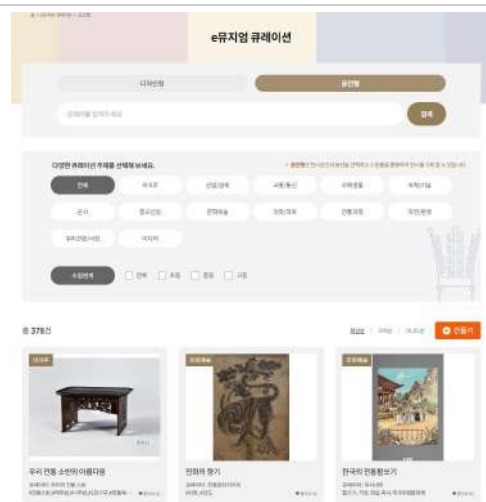
참고사례 2: 국립국악원, 국립국악박물관/ 국악 아카이브, ‘공간이음’ 운영

-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하는 연간 1,200 여 회 이상의 공연·연구·교육활동의 결과물, 민간의 자료를 망라하여 생산·수집한 기록물 등 동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자료 45만 여 점 보유
- 수집자료의 세부정보를 정리하고 디지털변환 후, 원본/복제본을 향온함습실에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
- 저작권 확보한 자료를 선별 가공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
- 기록연도별, 국악 분류별, 주제별, 기증자별 컬렉션 정리
- 박물관 내 뮤직 라이브러리 개념 ‘공간이음’ 운영하여 통합검색 공간에 PC 비치, 소장 콘텐츠 감상 공간 ‘디지털 이음’ 비치, 별도 공간 북한음악자료실에 도서, 비도서 자료 및 특수자료 열람 가능
- 자료 열람 및 전문 서적 비치된 연구 공간 마련하여 개인 연구 작업 가능하도록 조성



참고사례 3: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큐레이션, ‘집에서 전시기획 한다. 나도 큐레이터’ 공모전

- 전국 260여개 국·공·사립, 대학박물관 등의 문화유산 정보가 담겨진 e뮤지엄에서 나만의 전시를 기획
- 전시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따라 소장품 검색 및 선택, 전시 제목 및 기획 의도 등 작성
-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등 모두를 대상으로 공모전 실시
- 최우수/우수/장려상 선정 및 문화상품권 시상, 최우수상 수상작(4편)은 e뮤지엄에 게시
- 이후 자유롭게 주제에 따라 소장품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참여형 플랫폼 구축
- 기획한 전시내용은 다른 이용자와 공유 가능



2-4. 전시 콘텐츠 전문화 및 다각화

■ 현황 및 이슈

- 개관 이후 상설전시실은 동일한 콘텐츠를 유지 중에 있으며,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최근 동향을 반영한 변화가 필요함. 또한, 변화하는 박물관 환경 속에서 일방향 정보 제공 방식의 전시에서 탈피해야 함.
- 현재 학예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중장기 전시 기획은 한계가 있으며, 현안을 처리하는 수준으로 전시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지리적 특성 및 접근성 문제로 지속적인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박물관 전시에 대해 관심을 방문할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해야 함.

■ 추진방향 및 목표

- 정보 제공 위주의 관람에서 참여형 관람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시실 개편
- 외부 전문가 및 관람객 의견수렴을 통한 전시 기획
-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 콘텐츠 제작 및 게시하여 온·오프라인 관람 편의 제공

■ 세부과제

과제 1) 상설전시 테마 및 콘텐츠 발굴

- 소장품 수집관리 연계
 - 기존 소장품 활용 스토리텔링이 반영된 전시 테마 및 콘텐츠 발굴
 - 신규 소장품 기증/구입 당시 주제 기획하여 이와 관련된 소장품 한정 수집
- 5개년 전시 주제안 구성
 - 2023년~2027년 연간 전시 주제, 주요 내용 및 주요 소장품, 기획연출 방식 등 기획(연 2회 x 5년 = 10회 분량)
 - 외부 태권도 및 박물관 전문가 대상 전시 주제안 자문 수행
 - 박물관 관람객, 홈페이지 방문객 대상 전시 수요 조사 및 선호도 평가

참고사례 1: 경산시립박물관 재개관

- 2019년 문화재청 국가 귀속 문화재 위임기간으로 선정되어 경산지역 발굴문화재 인수, 관리, 전시, 연구, 활용 가능
- ‘빛나는 전통을 담아 새로운 미래를 채우는 경산시립박물관’이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상설전시실 전면 재구성, 최신 전시 유물과 콘텐츠를 확보
- 경산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시테마를 구성
- 박물관 로고, 캐릭터 “경산이”, “압독이-압이, 독이” 개발 및 제작



과제 2) 기획, 특별전시 콘텐츠 다각화

- 조사연구 연계 전시 주제 발굴
 - 기존 수행 중인 조사연구 주제와 연계하여 조사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연구 진행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획전시 구상
 - 조사연구 기획단계에서 관련 전시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서 발간과 맞춰 전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 타 분야 연계 전시 주제 발굴
 - 태권도와 유사한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자료를 개인/기관/단체 등에서 대여하여 전시회 기획. 태권도와의 공통 주제 도출하여 태권도라는 메인 테마를 활용하면서도 분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
 - 해외 스포츠 중 태권도와 유사한 종목을 발굴하여 관련 전시 기획(유사 스포츠 종목의 역사, 선수 및 인물, 대회, 주요 경기 등)
 - 태권도 및 스포츠와 다른 분야(미술, 기술, 문학, 영화 등)를 접목시킨 주제 발굴
- 태권도 및 스포츠 분야 트렌드 이슈 연계 주제 발굴
 - 산·학계에서 많이 거론되거나 최근 공유되는 이슈에 대한 전시 기획
 - 범 분야 공통의 트렌드 파악하여 태권도 분야에 대입한 전시 주제 선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예사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전시 기획,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참고사례 1: 국립민속박물관/ 쓰레기와 리사이클 학술회의, 특별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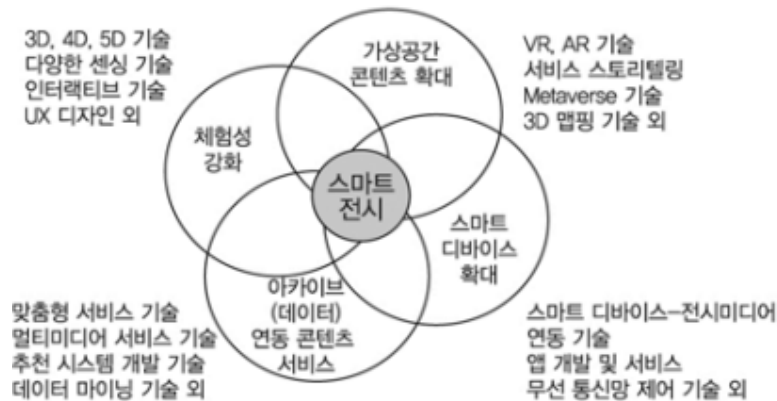
- 쓰레기 양산하는 현대문명을 인문학적으로 고찰하는 '쓰레기와 리사이클'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 쓰레기[JUNK] 관련 인문/사회/환경/예술 등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인 논의 진행
- 국립민속박물관-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의 2016년 9월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공동 전시 추진
- 프랑스 유럽지중해문명박물관 공동 특별전 『쓰레기 × 사용설명서』와 연계하여 학술적 성과 확산 도모



과제 3) 전시 방식의 다변화

- 융합기술 연계 전시 제공
 - 핵심 소장품 및 전시실에 대해 실감형 콘텐츠(파노라마 형식의 대형 프로젝터) 설치하여 전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활용한 태권도 경기 참여, 과거 유명 태권도 선수 및 사범과의 대결 등 소장품 연계 체험 콘텐츠 제작
 - 딥페이크(영상합성조작기술),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사진 이미지로만 제공되었던 태권도 인물(선수) 정보, 선수들의 태권도 기술 등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제공

[그림 54] 전시공간 구축 주요 트렌드와 관련 기술



출처 : 김성희 외(2014). 스마트공간과 메타버스 전시안내 기술개발 동향

- 온라인 전시 서비스 활성화
 - 전시의 취지 및 주요 소장품에 대한 설명을 담은 전시 해설 영상 제작
 - 기존 VR 온라인 전시의 한계를 보완하여 생생한 전시 관람 기회 제공
 - 상설전시, 기획·특별전시 모두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
- 순회전시 및 박물관 교류 추진
 - 국립한글박물관, 국악박물관 등 K-culture를 주제로 하는 공동 기획전시 추진
 - 서울-무주 순환 개최와 동시에 관련 주제로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 공동 기획전시 외 단독 기획전시를 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상호 협력방안 모색
 - 박물관 외 문화기반 시설, 교육기관, 공항 터미널, 기차역 등 다양한 장소에서 팝업 전시회를 개최하여 박물관 인지도 향상에 기여

참고사례 1: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모바일 스마트 전시관람 시스템 '아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해양탐험'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된 사업
-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증강현실(AR) 체험, 전시해설(국문/영문) 등 제공
- 주요 전시 표본/생물 30종의 캐릭터와 박물관에 숨어있는 해양생물을 찾고, 관련 정보 습득할 수 있는 방식
- 전시실 입구 전시 표본/생물 캐릭터 포토존 조성 및 관람객 대상 이벤트 개최



참고사례 2: 서울역사박물관/ 국제교류전

- 모스크바, 프라하, 북경, 일본 등 도시 차원의 교류 속에서 박물관 간의 특별전시 기획 및 공동주최
- 익숙한 도시이지만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거나 한국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을 소개하는 차원의 전시 기획
- 소장품 관람 외에도 실제 크기 및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모형 제작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 국내에서 국제교류전 개최 후, 상호 협력을 위해 해당 박물관에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품 활용 전시 개최



2-5.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 현황 및 이슈

- 무주 시내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박물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 요구됨.
- 현재 아동 및 학생층에 한정되어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콘텐츠를 확장하여 다양한 연령층 및 관람객 유형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목표

- 한시적으로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소 박물관 프로그램에서 변형/확장된 콘텐츠 제공 및 색다른 시각으로 박물관 관람 시도
- 박물관을 포함한 태권도원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세부과제

과제 1)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태권도 및 박물관 분야 심화주제 연계 강좌 운영
 - 기획·특별전시 주제에서 발전된 주제로
 - 학예사가 소장품 일부를 선정하여
 - 박물관학, 스포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 시즌 프로그램 운영
 - 가족단위 방문객 대상 '태권도 여름캠핑' 운영하여 캠핑 공간 대여
 - 여름방학기간 한정 박물관 야간 개장 실시 및 야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내부 공간 및 외부 태권도원에서 박물관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요가, 러닝)
- 추진체계 및 실행방식
 - 주제 및 분야 선호도 조사 실시
 - 매월/격월 단위로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공지
 -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접수
 -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 진행 및 실시간 온라인 중계
 - 녹화본 및 프로그램 자료 등 온라인으로 제공

참고사례 1: 서울역사박물관/ 영유지엄

- 20~39세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5회차 교육을 평일 저녁에 진행
- '서울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대주제 아래 플로깅, 디자인, 기록, 매핑, 음악감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서울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 구성

- 주제에 부합하는 서울 기반 2030세대 활동가들이 참여해 프로그램 진행



(영역지연) 일정		
6.16.목	한류사랑	Flogging Seoul 서울역사로 즐기는 서울
6.28.화	방소담	Design Seoul 한강의 밤을 디자인하다
7.19.화	유혜안·조혜진 이경민	Remember Seoul 서울 기록과 이야기
7.26.화	유혜안·조혜진	Mapping Seoul 나의 사랑한 지도
8.23.화	김윤하	Feel Seoul 서울역사로 즐기는 서울

참고사례 2: 국립민속박물관/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 전문가, 일반인,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일반인 대상으로 직업이야기, 큐레이터가 들려주는 유물이야기 등의 온라인 교육 실시
- 청소년 대상의 교육은 상설전시관 연계, 진로탐색 교육 등이 있으며,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교육 위주의 콘텐츠 구성
-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안내 및 신청 접수받으며, 선착순 한정 프로그램 진행
- 강의 다시보기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 이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

교육안내-전체

전체교육

전체

강의 다시 보기

교육자료

강의 다시 보기

전체

강의 다시 보기

교육자료

참고사례 3: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 안내 및 신청 접수
- 유아·청소년, 가족국악강좌, 일반인, 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구성
- 일반인 대상으로 전시연계특강을 무료로 제공하며 전시 이해도 증진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 열린강좌 (교과서 국악, 일반인, 연주영상 등) 영상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공

국립국악원

국악아카데미

국악아카데미

국악아카데미

국악아카데미

국악아카데미

국악아카데미

참고사례 4: 화폐박물관/ 여름방학캠프-화폐특강

-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간 초등학교 및 가족동반 단위를 대상으로 체험 캠프 개최
- 화폐 전문가와 '화폐와 함께 떠나는 여행- 과학과 경제 이야기 C&SEE' 12회 진행
- 전문 학예사와 '알쓸돈잡- 알아두면 쓸모있는 돈 잡학사전' 4회 진행
-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화폐 이야기' 32회 진행
- 학습지 '화폐의 세계로 Go~Go~'를 통해 돈에 대해 스스로 알아가는 기회 마련



과제 2)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 학교 및 교육기관 연계하여 진로체험 및 탐색, 박물관 전시 소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태권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도 방문하여 실제 박물관 관람 유도
 - 버스로 이동식 박물관/전시실 제작하여 교육 프로그램 연계 소장품 일부 공개 및 체험 기회 제공
- 지역 아동·소외계층시설 연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매달 희망 시설의 접수받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
 - 시설별 희망 주제, 프로그램 유형(교육/체험/이벤트), 진행 방식, 참가규모 등 사전 협의하여 프로그램 기획
 - 무주 내 시설 현황파악 및 문화복지 참여 경험 등 조사 및 선별
- 지역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최
 - 곤충박물관, 김한태문학과, 최북미술관 등 무주 내 문화시설이 함께 지역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콘텐츠 제작
 - 각 박물관 학예사 및 직원 연계하여 프로그램 진행
 - 각 시설별 주제 콜라보한 주제 연계, 지역 공통 관심사 활용 주제 개발
 - 공간 순회하며 개최 및 프로그램 이후 박물관 관람 코스 추가
- 지역 내 시설 및 단체와 협의하여 대상자, 참석 규모, 진행시기 확정
- 대상 및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 유형 및 주제, 진행 방식 등 결정

참고사례 1: 인천공항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식문화상자 특별전 ‘맛멋상자’ 개최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식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 공동개최
- 한식 및 한국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한 박스 형태의 체험형 전시품으로, 한식-도락 문화상자와 궁중잔치 문화상자 두 가지 종류 소개
- 전시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두 가지 한식문화상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해 한국적 이미지가 적용된 보자기를 선착순으로 제공
- 고유 콘텐츠인 한식을 문화예술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을 인천공항에서 홍보함으로써 공항을 찾는 여객에게 새로운 경험 선사
- 우리문화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



참고사례 2: 국립남도국악원/ ‘찾아가는 국악원’ 공연, ‘찾아가는 국악교실’ 운영

-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인과 시설 단체를 대상으로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공연을 무료로 진행
- 공연장 여건과 관람객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 국립남도국악원과 전라남도학생교육원이 주관하여 ‘찾아가는 국악교실’ 운영
- 자유학기 교육과정 연계 및 국악 교육기부를 통해 국악 관련 직업안내, 국악체험, 공연 감상 기회 제공



참고사례 2: 국립민속박물관 주관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공모사업

- 1988년부터 전국 농어촌, 낙도지역 등을 방문하여 전통문화 강의, 탈춤 배우기, 민속공예품 만들기 등의 직접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외 활동 프로그램
- 2019년부터 지역 박물관과 협업하여 진행
- 박물관 전시 버스가 지역박물관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초등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지역박물관을 방문하도록 안내
- 박물관 전시 관람, 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전시버스 관람하며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과제 3) 태권도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 태권도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 전·현직 태권도 선수와 미래 태권도 유망주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강연회 개최
 - 기증인 및 태권도 인사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나의 태권도 이야기' 진행
- 태권도 및 체육 분야 학술포럼 개최
 -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축이 되어 태권도 유관기관, 체육 유사 종목 학술포럼을 박물관에서 개최
 - 박물관 소장품과 연계된 주제를 기획하여 소장품의 가치, 태권도 및 스포츠 분야 학술대회 추진(춘·추계, 연 2회)
 - 포럼 참가자 대상 맞춤형 도슨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태권도인, 태권도 분야 종사자, 태권도 전문가와 신진연구자,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 생활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흥미로울 주제 공모 및 조사

참고사례 1: 국립제주박물관 /기상 전문가 특강

- 특별전과 연계하여 기상청 전문가(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대학 교수(국립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에게 듣는 '기상 전문가에게 듣는 태풍이야기', '태풍의 위력과 순기능'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 진행
- 전문가 특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 1회씩 개최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
- 특강 외에 전시기간 중 매주 수요일마다 학예연구사와 제주지방기상청 인력이 순차적으로 전시해설 진행



참고사례 2: 국립한글박물관/ 학술대회 및 포럼 공모

- 유관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글문화 관련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한글문화 관련 학술대회 및 포럼 공모

- (공모 대상) 한글문화 관련 학회·기관·단체가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포럼
- (공모 주제) 한글문화 관련 주제-한글 관련 연구, 한글 응용 및 활용 포함
- (규모 구분) 소규모: 공모 주제로 3시간 이상/주제 발표 3건 이상, 중대규모: 공모 주제로 6시간 이상/주제 발표 6건 이상
- (지원 범위) 규모에 따라 소규모 5백만 원 이내, 중·대규모 1천만 원 이내

참고사례 3: 국립민속박물관/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교육

-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가입 박물관 및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 유관 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 (자격조건)
- 1.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기관, 국·공·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원 등 유관 기관 소속인 자
- 2. 현재 재직 중인 소속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관련 업무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기간(2~3일) 회차별 교육주제 선정 및 사전 모집기간 공지, 신청 접수 후 선발
- 총 30명 선발, 교육 무료 제공



제48기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교육

- 교육기간: 2022. 9. 28(월) ~ 9. 29(화), 12시간
- 교육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계주관
- 교육내용: 소장품 관리와 보존

일정	1일(9.28)	2일(9.29)
개강식 09:40-10:00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김정·오영호지)	
10:00-12:00	수장품 관리와 아카이브 (김종배 박물관과학자)	박물관 보존환경 (박성직)
합식	12:00-13:00	
13:00-15:00	수장품 열처리 수장고 관리 (김재광)	보존과학실 견학 (관지현, 박성직, 김교익, 윤경희)
15:00-17:00	아카이브 자료 정리와 등록 (김승원)	재주관 수장고 및 전시 견학 (홍경식)
	*도·달마로 교육 진행	수료식 16:30-17:00

※ 교육내용 및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6. 매력적인 공간 조성

■ 현황 및 이슈

- 슬로프 구조와 오래된 콘텐츠로 구성된 상설전시실의 변화가 요구되어짐.
- 넓은 박물관 면적 및 시설 규모 대비 유휴 공간 다수 존재함. 특히, 코로나로 미운 영 시설을 철거한 이후 활용되지 않아 이러한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역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써의 평가가 낮은 점(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중 상생협력)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박물관을 재정비해야 함.

■ 추진방향 및 목표

- 시민이 즐기는 일상의 박물관 실천을 통해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리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식의 적극적인 시민만남을 통해 지역과 호흡하는 지역 박물관, 시민 참여박물관으로의 실제적, 상징적 변화 실현

■ 세부과제

과제 1) 박물관 공간 활용도 제고 및 환경 개선

- 전시실 개편
 - 상설전시실 관람 동선 효율화를 위한 전시 콘텐츠 재구성
 - 상설전시실 일부 공간 활용 어린이 체험 및 일반 시민 교육 공간 조성
 - 상설전 테마 발굴/조사와 연동된 공간계획 구상 및 장애인 고려 등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
 - 현 기획전시실 박스형 전시 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양한 전시 형태, 방식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조성
- 박물관 안내 및 홍보 요소 추가
 - 태권도원 주변 도로표지판 및 안내판에 <국립태권도박물관> 추가
 - 태권도원 입구에 <태권도박물관> 문구 및 위치 안내판 추가
 - 야외 및 박물관 로비에 바닥조명(인포빔) 설치하여 야간 및 실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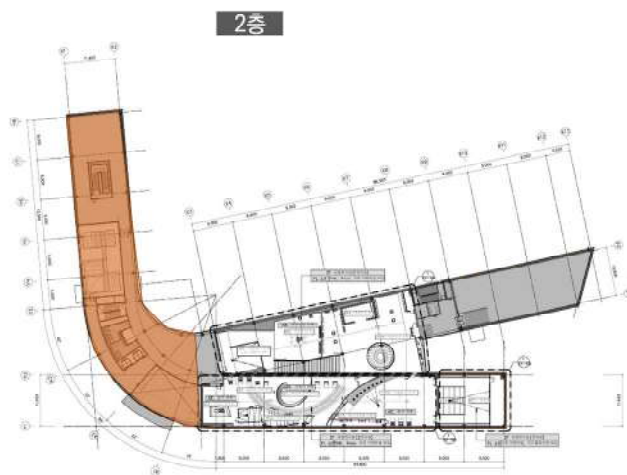
참고사례 1: 송파 책 박물관/ 바닥조명(인포빔) 설치

- 일반적으로 어두운 장소에 설치하여 홍보 및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목적으로 활용
- 이밖에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등 설치하여 정보 제공
- 송파 책 박물관은 1층 입구,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박물관 안내 목적으로 설치
- 입간판 및 안내데스크 대신 활용가능하며, 박물관 상징 디자인/문구 추가로 인테리어 효과 가능



과제 2) 박물관 편의시설 확충

- 공용공간을 활용한 교육·체험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마련
 - 초기 건축계획에서 고려한 편의시설, 다양한 공간의 조성으로 공간 활용도 제고
 - 시민들이 태권도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 태권놀이터, 뮤지엄샵 등의 편의 시설 조성하여 공간 재구성
 - (층별 복도 통로) 무인카페, 키즈 편의시설을 설치, 기존 휴게공간과 연계
 - (3층 상설전시실 입구 옆, 2층 상설전시실 입구 복도) 운영 중단한 뮤지엄샵을 나눠서 조성, 일부 공간은 팝업 공간으로 주기적으로 변경
 - (학습실 옆) 키즈도서관, 키즈아트샵, 단체 방문객 대기/안내 공간, 영유아 놀이공간 조성
- [대상공간 및 활용예시] (2층): 전시실 앞쪽, 엘리베이터 옆 통로 공간



현재 <층별 복도 통로>



1) 무인카페 등 휴게공간 활성화

- 박물관 관람객 대상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 문화행사 참가자 대상 대기 공간 마련
- 박물관 주변 태권도원 내 편의시설과의 차별성 확보
- 무인, 자동화 기계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안내
- 별도 인력 추가 없이 상시 운영 가능



예) 무인카페, 무인로봇 카페 시스템

2) 뮤지엄샵 및 팝업 공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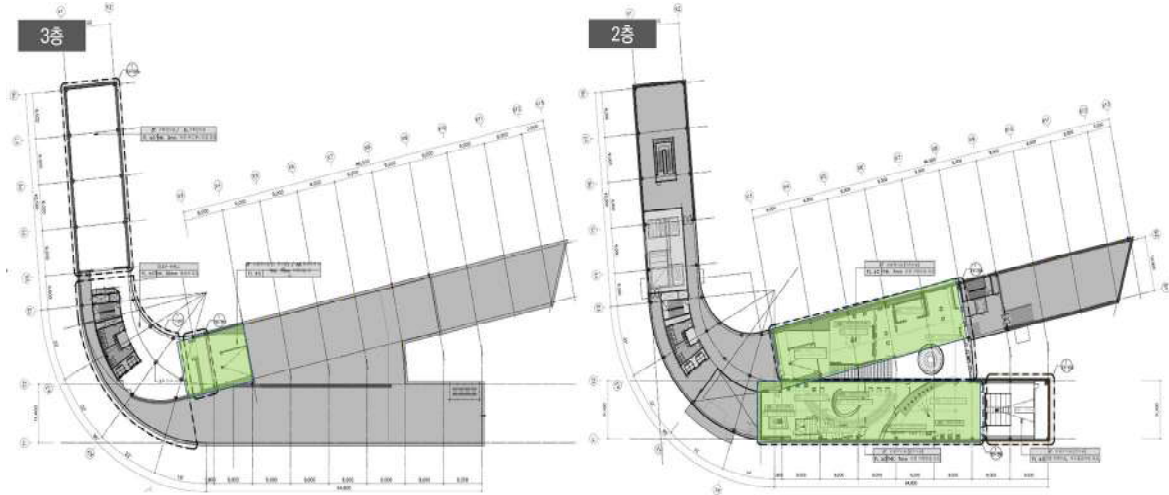
- 박물관 기념품, 도록 등 판매하는 뮤지엄샵 조성
- 전시실 입구 및 출구 공간에 조성하여 관람객 대상 이용 유도
- 기획, 특별 전시 주제 연계한 팝업스토어 한정 운영
- 문화행사 운영 기업 및 문화시설 연계 팝업 공간 조성하여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



예) 영국 디자인뮤지엄의 기업 콜라보 팝업 스토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제 연계 팝업스토어, 경기도박물관의 미술관 연계 팝업스토어 및 체험활동

■ [대상공간 및 활용예시] (2층, 3층):

- 상설전시실 입구 옆 미활용 공간 및 상설전시실 일부 공간



현재
〈상설전시실 입구 옆, 상설전시실 공간일부〉



어린이 대상 체험전시 공간 조성

- 어린이 대상 상호작용 가능한 체험전시 공간 조성
- 소리가 나는 디지털 매체와 조형물 조성
- 직접 체험하며 만들어가는 종류의 활동 추가
- 키즈카페처럼 실내 놀이터 제공 및 지역주민 이용 혜택 제공
- 태권도와 관련된 몸과 정신의 기운을 배울 수 있는 신체놀이형체험 공간 마련



예)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놀이터



예) 용산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의 체험공간

참고사례 1: 용산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 키즈 도서관

- 박물관 로비에서 전시실로 이어지는 통로 공간에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 서적을 비치
- 전시 관람 전이나 후, 또는 전시 관람여부와 상관없이 관심있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게 조성



참고사례 2: 브루클린 어린이박물관/ 부모동반 영유아 휴게공간, 유아 체험 공간

- 아이들의 체험 공간 옆에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영유아와 부모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 휴게공간에는 독립적인 체험 활동이 어려운 영아가 체험할 수 있는 요소 추가



참고사례 3: 영국 디자인 뮤지엄/ 팝업 슈퍼마켓

- 젊은 예술가 콜라보 프로젝트로 제품 디자인에 참여한 상품 판매
- 기업과의 콜라보로 식음료 제품 패키징 시도
- 판매 수익금은 신진 예술가, 문화기관 지원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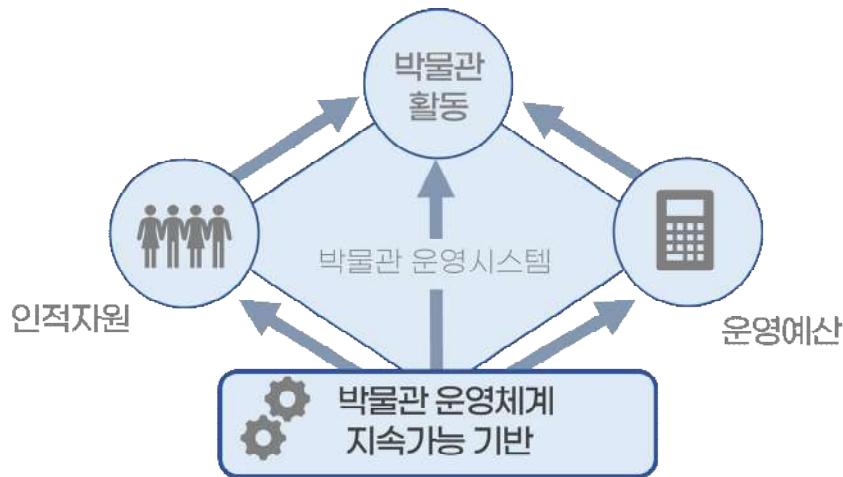


3. [전략목표 3] 지속가능한 박물관 기반 확보

■ 박물관 조직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 운영 기반 확보

-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롭게 전환하는 박물관 혁신 실천
- 박물관 운영 전문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박물관 역량 강화
- 조직체계 재정비를 통한 박물관의 발전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 마련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재정 관리’ 취약)의 구체적 개선 필요
 - 방대한 박물관 규모에 적합한 박물관 전담인력 배치 필수
 - 전시, 조사연구, 교육, 소장품 관리 분야에 효율적인 예산 분배 및 예산 확대
 - 박물관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단계적 인력 확보
 - 지자체, 기업연계 등 다각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

[그림 55] 전략목표 3. 지속가능한 박물관 기반 확보



〈표 67〉 지속가능한 박물관 기반 확보를 위한 과제

전략과제 및 세부과제		시급	'23	'24	'25	'26	'27
3-1. 박물관 조직역량 강화							
① 박물관 전문인력 충원 및 단계적 확대	★	■	■	■	■	■	
② 조직체계 정비 및 효율적 업무분장 조정	★	■	■	■	■	■	
③ 박물관 직제 규정 신설 및 직제 변경	★	■	■	■	■	■	
④ 박물관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	■	■	■	■	
3-2. 재원 확보 방안 다각화							
① 중장기 관점의 운영 예산 수립	★	■	■	■	■	■	
② 지자체 및 기업연계 협력사업 모색 및 추진		▲	■	■	■	■	
③ 박물관 후원제도 기반 마련 및 운영		▲	■	■	■	■	

3-1. 박물관 조직역량 강화

■ 현황 및 이슈

-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직속 부서에 해당하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박물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2022년 8월 현재, 육아휴직(2명), 퇴사(2명)로 현원 5명(관장, 직원 3)으로 총 4명(규정 상의 정원 8명)의 인력이 결원된 인원의 업무를 포함 박물관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인력 채용(학예연구사, 기간제)이 진행 중이나 박물관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원활한 채용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

■ 추진방향 및 목표

- 박물관 기능 정상화 및 전문화를 위한 필수 전문인력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체계 정비
- 향후 단계적으로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 확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적 조직 체계로의 전환 준비
-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충남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인력 모색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인력 충원 노력 추진

■ 세부과제

과제 1) 박물관 전문인력 충원 및 단계적 확대

- 2022년 8월 기준, 기존인력 결원으로 학예연구관 1명(관장), 학예연구사 2명, 기간제인력 1명 총 4명이 현원임. 현재 학예연구사 및 기간제(운영보조) 인력 채용 중이나 채용이 성사되더라도 결원 이전 인력규모로의 정상화도 어려운 실정임
- **박물관 정원 기준으로 박물관 인력 충원:** 박물관 업무 단위 담당인력 배치가 가능한 필수인원 충원 필요
 - 현재: 라키비움(대리), 일반운영(주임), 학예/소장품관리(주임), 학예/라키비움(주임, 육아휴직), 학예(주임) 4명
 - 충원 및 인력배치: 소장품관리, 조사연구/협력, 전시,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의 주요 업무 단위 담당인력 배치 및 학예직 중간관리급 확충으로 업무추진체계 정비
 - 정원 기준 인력 충원으로 박물관 활동 정상화 및 전문화 기반이 구축됨과 더불어 태권도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 충원 추진
- **박물관 인턴십, 근로장학생, 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인력 연계 시도**
 - 박물관학, 문화예술경영, 한국사(태권도연구) 등 관련 분야 재학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시기획, 조사연구, 도슨트, 관람객 조사 등의 활동인력 연계
 - 박물관 온라인 및 SNS 홍보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 관련학과(홍보, 광고학 등) 재학

생 대상 근로장학생 혹은 박물관 기자단 활동으로 인력 연계

- 활동 시간에 따른 경력증명서/수료증 발급, 전북지역 재학생에게 우선권 부여, 여름/겨울방학 시즌을 활용 태권도원 내 숙박 및 무료관람 등의 관심과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확실한 혜택 제공

참고사례 1: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인턴십 프로그램

- 재학생 중 박물관 및 역사에 관심이 있고 1년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
- 박물관 세미나 진행 및 박물관 실무 실습, 전시해설 진행 등의 활동 수행
-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증 및 실무확인서 발급 혜택 부여

참고사례 2: 국립한글박물관 기자단 운영

- 한글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를 대상으로 기자단 모집
- 한글박물관을 널리 알리기위한 콘텐츠 제작
- 박물관 및 홍보 관련 교육 참여, 박물관 공식행사 참석
- 원고료 및 활동비 지원, 활동증명서 발급



과제 2) 조직체계 정비 및 효율적 업무분장 조정

- 업무에 따라 수평적으로 배치된 현재의 박물관 조직구조는 결원 발생 시 정상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구조임
- 박물관 현안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 조직체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업무에 따라 기획운영실, 학예연구실 2개 실 체제로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업무 효율화 및 전문화 기반을 구축하며, 향후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 확장 및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실-담당체계에서 확대된 조직으로의 재정비를 통해 2실 4팀체제(박물관 중점 기능에 따라 배치)로 전환을 고려해야 함
- 단계적 조직체계 정비
 - 2023~2024년(1단계): 기획·운영(일반행정), 소장,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고유 활동 영역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결원 인원의 확충을 통해 박물관 운영 정상화 기반 마련
 - 2025~2026년(2단계): 기획운영실, 학예연구실 2실 체계로 정비하여 중간관리급 확

보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전문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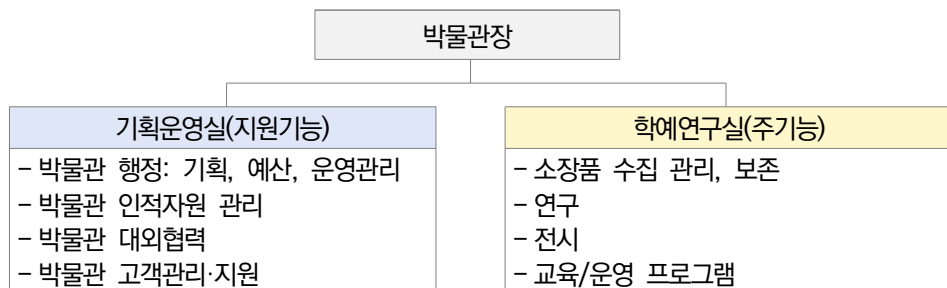
- 2027년 이후(3단계) 실-팀체제로 확대 편성: (예시)기획운영실 내 3팀(기획행정팀, 정책팀, 시민소통팀) 및 학예연구실 내 4팀(연구팀 전시팀, 교육팀, 대외교류팀)으로 조직체계를 보강하여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고도화



- 조직구조 재정비
 - 태권도진흥재단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
 - 박물관의 자율적 운영권 담보
 - 전략적 사업실행계획 및 관리(2실 체제)
 - 사업단위별 실행점검 및 조정
 - 사업실행(사업담당, 기간제, 인턴 등)
- 현재 태권도박물관은 각 사업실행 단위 담당자가 수평적으로 배치되어있는 실정
- 전략적, 전문적 업무체제로 정비 필요

▪ 기획운영실/학예연구실 2실 체제 운영

- 실 체제로 중간관리직급 보강으로 업무 효율화 및 전문화 기반 마련
- 기획운영, 학예연구 중심으로 업무분장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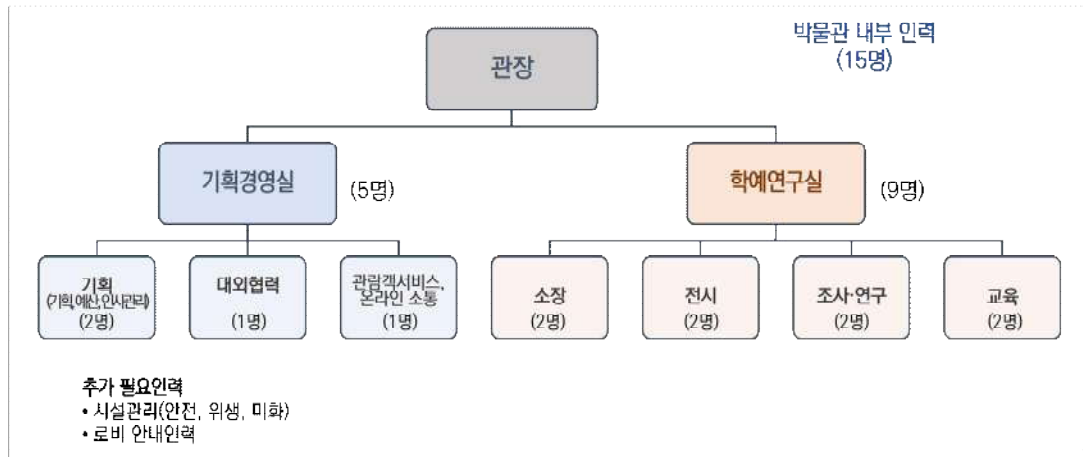


- 학예연구실 조직보강 및 업무배치 전문화로 박물관 주기능 강화
- 연구: 소장품 연구, 학술교류 등
- 자료: 소장품 수집, 보존, 등록 업무
- 전시: 상설, 기획, 특별 등 각종 전시 사업
- 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박물관 내부 인력 수급 계획(안)

- 내부 인력(안)은 기획경영실 5명, 학예연구실 9명, 관장 1명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됨. 단기적으로 각 업무당 1~2명으로 배정하고, 추후 비정규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인력 수급
- 향후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인력분야는 박물관 내에서 근무하거나 박물관을 전담하는 시설관리와 로비 안내인력임

[그림 56] 박물관 조직체계 및 내부 인력 배치(안)



■ 박물관 외부 인력 활용 방안

- 외부 인력의 경우, 6개월~1년 근무하는 비정규직 학예인력을 채용 및 운영
- 방학기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전 및 전북 지역대학 인력 활용
- 모집 대상 학과 : 체육, 전시기획, 문화콘텐츠, 광고홍보, 문헌정보학과 등
- 담당 업무 : 자료 정리 및 디지털화, 온라인 홍보(카드뉴스, 유튜브 제작), 오프라인 유인물 제작(소식지, 홍보 포스터), 전시 해설, 전시 주제 발굴(시민 기증 공모전, 작은 기획전 등 연계)
- 혜택사항 : 전시 기획 참여, 도슨트 참여 기회 제공, 인턴 이수증 발급, 숙박 및 식비 제공, 태권도원 시설 이용권 제공 등

과제 3) 박물관 직제규정 신설 및 직제 변경

- 현재 태권도진흥재단 직제규정에서 박물관 관련 내용만 담은 직제규정 신규 신설
- 직제규정에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직급 명시
 - 박물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체계 구축을 통해 박물관 역할 인식 강화
 - 기존 과장/대리/주임/사원 → 박물관 행정사/학예사로 직제 변경

과제 4) 박물관 구성원 역량강화 지원 및 워크숍 운영

- 박물관 학예인력, 행정인력, 해설사, 자원봉사자 등 대상 태권도 기본소양 교육 실시
- 박물관 신규 인력 대상 교육 정례화 (온라인 영상, 교육 자료 등 제작)
- 외부 인사 초청강연을 통한 태권도의 역사, 철학, 원리를 비롯하여 산업, 학계 등에서 논의되는 태권도 주요 이슈 파악
-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박물관 전시 콘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전략 수립
- 연 1회 워크숍을 통해 박물관 인력 간 업무 이해도 향상 및 협동심 강화 시도

3-2. 박물관 자원 확보방안 다각화

■ 현황 및 이슈

- 현재 박물관 연간 운영 예산은 국립박물관으로서의 박물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매우 작은 규모임. 예산 규모로만 봤을 때는 타 국립지방박물관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규모이며, 작은 규모의 공립박물관 정도 수준
-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취약항목 '재정 관리(46.50점)'의 개선을 위해 2022년 예산 증액하여 박물관 조사연구를 처음 시행함. 그러나 박물관 원활한 활동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추진방향 및 목표

- 박물관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자원 확보 방안 모색
- 전북 및 무주군 태권도추진사업과 연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태권도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도와 방안 모색
- 단계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박물관 사업추진의 전문성·자율성 확보 기반 마련

■ 세부과제

과제 1) 중장기 관점의 박물관 예산 수립

- 박물관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전문인력 충원 및 박물관 활동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예산규모보다 큰 예산 확보 필요
- 박물관의 주요 활동영역인 소장품 관리, 전시, 조사연구,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 책정 및 점증적 확대(2020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의견)
- 중장기 추진로드맵에 따른 향후 2023~2027년 5개년의 예산계획 수립 및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적극적 논의와 협력을 통해 박물관 예산 확대 방안 구체화
 - 박물관 구성원, 박물관 운영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정례적 논의구조 구축
 - 점증적인 예산 확대를 위한 다각적 자원 확보방안 모색과 시도
 - 문체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의 연계, 기업연계 활동 등의 새로운 협력 시도

과제 2) 지자체 및 기업연계 협력사업 모색 및 추진

- 직접적인 운영 예산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 기업과의 협력사업 등 박물관 활동을 실질적으로 다각화·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 추진 필요
 - 전북 및 무주군의 태권도정책사업과 연계한 박물관 활동 모색
 - 세종학당재단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 각 세종학당에 배포되는 교재에 태권도의 역사와 태권도박물관 활동 소개
 - 외교부 재외동포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태권도의 세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활동 시도

참고사례 1: 용산구, 2022년 박물관·공예 매개 청년인턴 모집 및 박물관 배치

- 서울 용산구가 박물관·공예 매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청년인턴 12명 모집함. ‘박물관 전문가 양성사업’은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선정 된 후 구가 4년째 계속 추진하는 사업임. 특히 ‘공예 매개인력 전문가 양성사업’이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추가 선정돼 청년인턴 모집 인원이 2021년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남
- 청년인턴은 박물관·공예 관련 전공자로 선발되어 ▲국립중앙박물관(7명) ▲용산역사박물관(2명) ▲이봉창의사 역사유물관(1명) ▲용산공예관(2명)에서 근무
 -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배치되는 청년인턴은 홍보, 마케팅, 국제교류, 전시, 교육, 전시 디자인, 도서관 운영, 용산역사박물관·이봉창의사역사유물관 근무자는 전시, 연구, 교육, 유물정리 등을 지원하거나 직접 담당한다. 용산공예관 근무자는 판매, 홍보, 교육, 전시 업무 수행
- “박물관, 공예 분야는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 어려운 대표 영역”, “이 사업은 현장 경험도 쌓고 관련 분야 인맥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청년인턴 근무기간은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일급 8만6160원.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됨

출처 : 뉴스앤잡(<http://www.newsjob.com>), 2022.01.24.

참고사례 2: 국립현대미술관과 나이키 협업 <예술과 스포츠> 캠페인

-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술관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서비스 범위를 다각화하고자 기획된 ‘에코 판타지(8월 한달 간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여름 이벤트)’ 일환
- ‘서머 오브 아트 & 스포츠’ 개최, 미술관에서 요가, 러닝 등 스포츠 프로그램 진행
- 예술과 스포츠의 벽을 허물어 자신의 틀을 깨는 도전을 독려하는 취지의 이벤트
 - 전 세계 최고의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설계한 다양한 트레이닝과 요가 프로그램을 트레이너의 지도로 체험
 - NRC 세션에서는 평소 러닝 코스로 접근이 힘들었던 국립현대미술관 일대를 달리는 색다른 러닝 경험 이 제공된다. 모든 세션 참가자들에게는 나이키 티셔츠, 타올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관람권과 그룹 도슨트 서비스를 제공



과제 3) 박물관 후원제도 기반 마련 및 운영

-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박물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원제도 마련
- 박물관의 전시, 연구, 교육, 다양한 문화사업, 편의시설 등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기증, 기부, 재능기부, 협찬,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의 후원 기반 마련
 - 태권도, 무주, 박물관 등을 키워드에 따른 후원 프로그램 기획
 - 일회성 후원, 정기후원 등 다양한 참여방식 기획
- 후원자 대상 박물관 뉴스레터 발송, 박물관 기획/특별전시 사전관람, 문화예술 주제 행사 및 강좌 개최 시 우선 신청 혜택 제공

참고사례: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 운영

- 2014년 4월 16일 사단법인 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 창립총회, 5월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허가
- (사)국립한글박물관 후원회는 국립한글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회원의 기부 기증문화를 통하여 국립한글박물관이 전시, 연구, 교육, 문화사업, 편의시설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후원회 조직:



- 주요사업:
 - 가. 박물관 전시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 나. 박물관 학술자료 및 조사 연구 지원
 - 다. 한글문화 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및 국제 교류
 - 라. 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 사업
 - 마. 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 사업
 - 바. 한글관련 연구자 등에 대한 장학사업
 - 사.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후원(기부) 종류:

후원 구분		후원회원 예우 및 특혜
정기 후원	매월 일정액을 약정 후 기부	- 국립한글박물관 주차장 무료이용 - 박물관 카페 음료 및 문화상품 10% 할인 - 박물관 교육 및 행사 우선 초청 - 박물관 소식지 발송
일시 후원	후원금액 일시 기부	
현물 기부	한글 관련 자료, 박물관 시설 기증	
기업 협찬	전시 및 프로그램 후원	

VI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제언

제1절 중장기 추진 로드맵

제2절 연구 결과의 활용 및 제언

제1절 중장기 추진 로드맵

1. 중장기 추진단계 설정 및 단계별 추진의 주안점

1.1.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단계 설정

■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재정비 및 5개년의 단계별 추진

-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태권도박물관을 둘러싼 거시환경 변화와 세계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이라는 위상에 조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과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며, 장기비전을 향한 체계적,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현 단계 운영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운영 전문화와 새로운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를 높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비(2022년), 단기과제(2023~2024년), 중장기과제(2025~2027년)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재정비기(2022년): 변화를 위한 내부 공감대 형성
 - 운영 기반 강화(2023년~2024년): 박물관 고유 활동영역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 주력
 - 운영 전문화 및 활성화(2025년~2027년): 세계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사업 실현 및 운영 활성화

[그림 57]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추진단계



1.2. 중장기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주안점

1) 재정비가: 2022년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전환을 위한 내부 공감대 형성

- 2022년은 기존 사업실행계획의 이행과 더불어 본격적인 중장기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박물관 운영 기반을 재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임. 국립태권도박물관의 현 단계 운영 여건과 조직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본격적인 전환기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내부로부터 출발하는 변화의 의지와 기존 업무 방식의 탈피,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구조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선 태권도진흥재단과의 내부 협력 구축이 필수적임.

2) 운영 기반 구축: 2023년~2024년

■ 박물관 고유 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 주력

-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2개년은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박물관 고유 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는 단계임. 실질적인 변화가 추동되고 중장기 전략과제가 실천되는 활성화 단계이며,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을 위한 자체 진단과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도출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함.
- 국립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를 전문테마로 하는 국립박물관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인식되며,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전파할 수 있는 허브로서 새로운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3) 운영 전문화 및 활성화: 2025년~2027년

■ 세계 유일의 태권도박물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사업 실현 및 운영 활성화

-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3개년은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단계로서 다양한 영역의 사업이 확장되며 중장기 비전·미션 실현에 근접할 수 있는 박물관 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위상이 강화되는 시기임.

1.3. 단계별 전략과제 추진 로드맵

■ 우선순위에 따른 단기, 중장기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축

- 현재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함.
 - 3개 추진전략, 11개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단위에서 단기과제(2023~2024) 및 중장기과제(2025~2027)로 구분하여 제시
 -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새로운 변화,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시급과제 제시

〈표 68〉 국립태권도박물관 단계별 추진 로드맵

추진전략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시급 과제	기존/ 신규	단기		중장기		
						2023	2024	2025	2026	2027
1. 비전(목표) 박물관 운영 전문성 강화	1-1. 박물관 방향 수립 및 관리	박물관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	신규	실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운영위원회 운영 정례화			기존	지속	확장	지속	지속	지속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달성		★	기존	실행	실행	실행	실행	실행
	1-2.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다각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태권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신규	실행	지속	확장	지속	지속
			타 분야 유관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신규	실행	지속	확장	지속	지속
		전북지역/무주 문화기관 교류 활성화	전북지역 문화기관 교류 활성화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무주 문화기관 교류 활성화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1-3. 관람객 관리 및 소통 체계화	대중 소통 기반 구축 및 활성화	홈페이지 정비		신규		실행	지속	지속	확장
			소식지 발간 및 메일링 서비스	★	신규	실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공식 SNS운영 활성화	★	신규	실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박물관 관람객 관리체계 구축		★	신규	실행	지속	확장	지속	지속
		박물관 서포터즈(후원) 운영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지속

추진전략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시급 과제	기존/ 신규	단기		중장기		
						2023	2024	2025	2026	2027
2. 사업(기능) 태권도 가치 확산을 위한 박물관 활동 고도화	2-1. 소장품 관리체계 구축	소장품 수집, 분류 및 관리체계 구축		★	신규	실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기증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기증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		기획	실행	지속	지속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 운영		신규		기획	실행	지속	지속
		전 국민 참여 기증 및 태권도 수기 공모	전 국민 참여 유물 기증 운동		신규		기획	실행	지속	지속
			태권도 수기 공모		신규		기획	실행	지속	지속
	2-2.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 강화	단기-중기-장기 조사연구계획 수립	태권도 조사연구 체계 구축	★	신규	실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조사연구 로드맵 수립 및 추진	★	신규	실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조사연구 결과 공유 활성화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		신규			실행	지속	지속
			뉴스레터 발송		신규			실행	지속	지속
			학술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신규			실행	지속	지속
			박물관 홈페이지 내 조사연구 페이지 추가		신규			실행	지속	지속
	2-3.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장품 온라인 DB화 구축	온라인 소장품 아카이브 제공	★	신규	실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이달의 소장유물’ 소개	★	신규	실행	지속	지속	지속	지속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라키비움 홈페이지 〈태권 아카이브〉 구축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아카이빙 도서관 조성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2-4. 전시 콘텐츠 전문화 및 다각화	상설전시 테마 및 콘텐츠 발굴	소장품 수집관리 연계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확장
			5개년 전시 주제안 구성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확장
		기획, 특별전시 콘텐츠 다각화	조사연구 연계 전시 주제 발굴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확장
			타 분야 연계 전시 주제 발굴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확장
			태권도 및 스포츠 분야 트렌드 이슈 연계 주제 발굴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확장

추진전략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시급 과제	기존/ 신규	단기		중장기		
						2023	2024	2025	2026	2027
		전시 방식의 다변화	융합기술 연계 전시 제공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확장
			온라인 전시 서비스 활성화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확장
			순회전시 및 박물관 교류 추진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확장
	2-5.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태권도 및 박물관 분야 심화주제 연계 강좌 운영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지속
			시즌 프로그램 운영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지속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역 아동·소외계층시설 연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역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 및 이벤트 개최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태권도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태권도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	신규	실행	지속	확장	지속	지속
			태권도 및 체육 분야 학술포럼 개최	★	신규	실행	지속	확장	지속	지속
	2-6. 매력적인 공간 조성	박물관 공간 활용도 제고 및 환경 개선	전시실 개편		신규		기획	실행	지속	지속
			박물관 안내 및 홍보 요소 추가		신규		기획	실행	지속	지속
		박물관 편의시설 확충	공용공간을 활용한 교육·체험공간 조성 및 편의시설 마련		신규		기획	실행	지속	지속
			활용가능한 유휴공간 파악		신규	기획	실행	실행	지속	지속
			현 박물관에서 시급한 공간의 기능 진단		신규	기획	실행	실행	지속	지속
			공간별 기능 매칭 및 활용계획 수립		신규	기획	실행	실행	지속	지속

추진전략	전략과제	세부 추진과제		시급 과제	기존/ 신규	단기		중장기		
						2023	2024	2025	2026	2027
3. 조직(구조) 지속가능한 박물관 기반 확보	3-1. 박물관 조직역량 강화	박물관 전문인력 충원 및 단계적 확대	박물관 정원 기준으로 박물관 인력 충원	★	신규	지속	지속	확장	지속	지속
			박물관 인턴십, 근로장학생, 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인력 연계 시도	★	신규	지속	지속	확장	지속	지속
		조직체계 정비 및 효율적 업무분장 조정		★	신규	지속	지속	확장	지속	지속
		박물관 직제 규정 신설 및 직제 변경			신규	기획	실행	지속	지속	지속
		박물관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신규	기획	시범운영	실행	지속	지속
	3-2. 재원 확보 방안 다각화	중장기 관점의 운영 예산 수립		★	신규			기획	실행	실행
		지자체 및 기업연계 협력사업 추진			신규	기획	실행	실행	지속	지속
		박물관 후원제도 기반 마련 및 운영			신규	기획	실행	실행	지속	지속

2. 예산 운영계획(안) 수립

■ 지속적인 박물관 사업 확장을 위한 예산 확보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전략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추진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운영예산 규모 파악 및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박물관 운영 예산을 확보해야 함. 따라서 중장기 과제 및 로드맵에 따른 박물관 업무를 고려하여 향후 5개년의 예산 운영계획(안)을 제시함.
- **박물관 운영 예산**은 매년 250,000천원을 확보하여 박물관 단기 및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관람객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홍보마케팅 활동비를 포함함. 또한, 전시실 영상 장비 및 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도 이 안에서 사용하도록 함.
- **전시 관련 예산**은 연 2회 이상의 기획·특별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 및 일반 시민 공모 주제와 기증 유물에 대한 전시를 개최하도록 함. 따라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0,000천원을 배정하여 기존보다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며, 전시실을 순환시키도록 함. 또한, 2026년부터는 추가 100,000천원을 확보하여 전시 콘텐츠의 온라인 전환 및 전시회 동시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매년 300,000천원을 확보하여 지역 연계, 연사초청 강좌, 시즌 한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 추가 100,000천원을 배정하여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함. 일반인 심화 강좌, 태권도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태권도 관련 교육 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사용함.
- **유물관리 예산**은 기존 보유 유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분류하여 온라인 DB화 작업에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태권도 관리 유물을 기증받거나 구입하여 정리하여 등록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포함함. 또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전 국민 유물 기증 공모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 **조사·연구 예산**은 연도별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및 전문가 활용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을 200,000천원으로 편성함. 이를 위해 2022년 재정비기에서 조사·연구 주제 후보군을 선정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실행하도록 함. 또한, 2026년부터는 조사·연구 수행 결과물의 온라인 배포 및 공유 등을 위해 추가 100,000천원을 확보하도록 함.
- **라키비움 사업예산**은 2023년 하반기에 조성될 라키비움 공간을 운영하고, 라키비움에 필요한 자료 구축,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하는 예산을 담고 있음.
- 총 6개 영역의 박물관 운영예산에 대한 합계는 매년 1,600,000천원~1,950,000천원으로 2022년 예산 총액(1,952,000천원)보다 적은 예산이지만 2022년 1,000,000천

원 규모의 라키비움 구축 예산 집행으로 2023년 라키비움 공간 구축이 완료됨을 감안하여 박물관 예산의 규모를 수립하였음.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장기 과제와 로드맵에 따라 활동영역별 예산이 균형적으로 설계되어 원활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표 69〉 박물관 예산 운영계획(안)

(단위: 천원)

박물관 활동영역	단기		중장기		
	2023	2024	2025	2026	2027
박물관 운영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전시	300,000	300,000	300,000	400,000	400,000
교육·프로그램	400,000	400,000	400,000	500,000	500,000
유물관리	1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조사·연구	200,000	200,000	200,000	300,000	300,000
라키비움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총액	1,600,000	1,650,000	1,650,000	1,950,000	1,950,000

제2절 연구 결과의 활용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의 활용

1.1. 연구 추진의 의미 및 계획의 성격

■ 태권도박물관으로서의 성과 및 이슈 진단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본 연구는 지난 8년간의 박물관 운영에 대한 성과 및 이슈 진단을 바탕으로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현시점 박물관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박물관의 방향성 도출과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와 로드맵을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음.
- 본 연구의 결과인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은 2014년 박물관 개관 이래 박물관의 전개과정 이슈 및 성과, 운영현황 및 여건 분석, 박물관 임직원과의 심층인터뷰,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분석 및 태권도/박물관 분야 전문가 자문, 우선순위 과제 도출을 위한 임직원 심층 의견수렴 등 다각적 분석과 종합적 의견수렴을 반영, 박물관의 여건과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안하는 종합 계획으로 수립되었음.

1.2. 연구 결과의 활용

■ 국립태권도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단계적 사업추진의 참고자료

- 본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2022년 현재 박물관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박물관의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 전략과 더불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단기과제(2023~2024), 중장기과제(2025~2027)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향후 5개년간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활동 진단, 환류의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태권도진흥재단 및 지자체 차원의 국립태권도박물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본 연구 결과는 전북지역, 무주군의 태권도정책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정책의 차원에서 국립태권도박물관이 가지는 중요한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적 협력과 지원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 무엇보다 태권도진흥재단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기반 강화 지원과 더불어 ‘태권도 진흥’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중요한 역할과 위상을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수행해나가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임.

2. 국립태권도박물관 발전을 위한 제언

2.1. 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언

■ 박물관 역량 강화 지원 및 동기 부여를 토대로 동력 확보에 중점

- 태권도박물관 운영 내실화는 결국 박물관의 운영 기반, 즉 전문인력과 예산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것임. 박물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내부 구성원들의 변화의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전제되어야 함. 이를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박물관의 실질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임.

■ 효율적 업무분장 및 우선순위 업무추진으로 제약 요소 극복 노력 필요

- 현재의 태권도박물관 인력 및 예산 여건으로는 박물관 운영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변화와 발전을 지향할 수 있음. 현재의 여건과 제약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중사업에 대한 인력 배치 및 예산의 효율적 분배와 집행 등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활동을 위한 재점검과 재구성이 필요함.

■ 단기목표 달성을 통한 단계적 발전 및 국립박물관 평가인증과 연동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기반으로 박물관의 자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단기-중기-장기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단기목표 달성을 통한 단계적·체계적 발전을 견인해야 함. 이러한 과정 설계와 실천은 국립박물관의 평가인증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평가지표를 참고한 박물관 운영 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2.2. 정책 제언

■ 박물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태권도진흥재단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 강화 필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권도박물관이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태권도진흥재단의 박물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탄탄한 운영 기반(전문인력 충원 및 운영 예산 확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태권도 진흥을 위한 태권도원과 태권도박물관의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할에 대한 인식,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함. 특히 ‘국립’ 박물관으로서의 공적 책임과 위상을 진중히 되짚어보면서 향후 박물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 태권도 유관기관 및 지자체,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적극적 논의 및 모색 필요

- 국기 태권도의 진흥을 견인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유관기관 및 태권도 전문가 등과의 교류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전북 및 무주군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또한 지역 교육청, 문화기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립중앙박물관(2020), 2020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 국립중앙박물관(2021), 2021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 국립한글박물관(2021), 2020년 국립한글박물관 결산 개요.
- 국립태권도박물관(2020), 2020년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계획서
_____ (2021), 2021년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계획서
_____ (2022), 2022년 국립태권도박물관 사업계획서
- 김현경 외(2017),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연구-포용적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홍규 외(2021), 국공립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반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면 외(2021),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나나 사이먼, 이홍관 외 역(2015), 참여적 박물관-전략·기획·설계·운영, 연암서가.
- 무주군(2017), 2035 무주군 기본계획
_____ (2020), 7대 핵심비전
_____ (2022), 2022 주요업무계획
_____ (2022), 2021년 무주군 사회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10대 문화콘텐츠)
_____ (2019), 2019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_____ (2018), 제3차 태권도기본진흥계획(2019-2023)
_____ (20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
_____ (2020),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_____ (2020), 코로나19 일상 관련 거대자료 분석
_____ (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_____ (2021), 2021 문화여가 활동조사
_____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박성언, 김동규(2022), 태권도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중요 우선순위 분석, 국기원 태권도연구, 제13권 2호, p.1~9.
- 백종인 외(2020), 국립태권도박물관 마스터플랜 및 라키비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연구, 태권도진흥재단.
- 변지혜(2020), ICOM의 박물관 정의 개정 논의 연구-박물관경영의 예측과 제안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54, 133-153.
- 새문화정책준비단·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2030
- 서순복(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23-44.
- 양혜원 외(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우성호 외(2012), 국립전주박물관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연구, 국립전주박물관.
- 유네스코 박물관 및 컬렉션의 보호와 증진, 다양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권고(2015).
- 윤병화 외(2015), 신박물관학, 신광문화사.
- 이보아(2018), 초연결성의 박물관: 테크놀로지 기반의 해외 박물관 서비스 혁신 사례 고찰, 박물관학보,

35, 89-111.

전라북도(2021),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

_____ (2021),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_____ (2022),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2022~2026)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정보람 외(2022), 문화예술기반 사회적 치유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승진·김소연(2020), 국내 가상체험전시의 사용자경험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21(3), 329-340.

정영수 외(2017), 국립세계박물관 조직구성·운영방안 기본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조아영 외(2021), 부천시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부천문화재단.

조현주 외(2017), 태권도 활성화 및 세계화 전략 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최윤규, 김수지(2016),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활용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_____ (2018), 태권도원과 전라북도 태권도자원 연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추미경 외(2019), 국립한국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키어스튼라탐, 존 시몬스, 배기동 역(2019), 박물관학의 기초. 진화하는 지식의 시스템, 주류성.

하정우·김창수(2020), 바이러스 관광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회복탄력성 탐색적 연구. Tourism Research, 45(2), 499-517.

한국개발연구원(2008),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홍인국(2018), 국내외 체육박물관 사례분석을 통한 국립체육박물관의 방향성 모색, 박물관학보 34, p.73~98.

문화와 지역발전: 영향 극대화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 박물관을 위한 지침서(2021), ICOM-OECD.

해외문헌

Folke, C.(2006). Resilience: the emergence of a perspective for social-ecological systems analys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6: 253-267.

Fyfe, G. (2006). Sociology and the social aspects of museums.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 33-49

Museums Victoria (2016). Strategic Plan 2017-2025.

Vergo, P.(ed.)(1997). The New Museology, London:Reaktion.

World Economic Forum (2020).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Wright, P.(1997). "The Quality of Visitors' Experiences in Art Museums", VERGO,P.(ed.), The New Museology, London:Reaktion.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28.) 주 최대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박상현(2022.01.20.) 국립한글박물관 8년 만에 상설전 첫 개편, 훈민정음 재해석. 연합뉴스

김효중(2019.11.07.) 국립태권도박물관, 개인 소장 태권도 관련 유물 접수. 전북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2.04.13.) 2021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01.31.) 2020년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12.22.) 4차 산업혁명,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02.08.) 전국 36개 국립박물관 평가 결과, 우수 26개관 인증
 이강모(2017.06.15.) 지구촌 태권도 대축제 성공개최 향해 전국 열기 지핀다. 전북일보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립태권도박물관	https://museum.tkdwon.kr/
국제박물관협회	https://icom.museum/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
무주군청	https://www.muju.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국립산악박물관	https://nmm.forest.go.kr/
국립체육박물관	https://kspo.or.kr/sportsmuseum/olympic.jsp
국립한글박물관	https://www.hangeul.go.kr/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https://www.gugak.go.kr/
미국 국립야구박물관	https://baseballhall.org/discover/museum
영국 국립축구박물관	https://www.nationalfootballmuseum.com/
영국 MCC 박물관	https://www.lords.org/lords/conferences-and-events/museum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http://www.jbmuseum.or.kr/
태권도진흥재단	https://www.tpf.or.kr/tpf/
태권도원홈페이지	https://www.tpf.or.kr/t1/
FIFA 세계축구박물관	https://www.fifamuseum.com/

국립태권도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발 간 일 : 2022년 9월

발 행 처 : 태권도진흥재단·국립태권도박물관

(5554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전화번호 063-320-0114

연구기관 : (사)문화다움 www.daumian.org

© 2022 발행처

NATIONAL TAJIK KWON DO MUSEUM



태권도진흥재단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국립태권도박물관
National Taekwondo Museum